

북한의 문학

김 재 용

(원광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1. 북한의 문학조직

해방직후에 평양에는 문학 조직이 없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학예술가 조직이 있기는 하였으나 삼팔선 이북을 통괄하는 그러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평양에 문학예술가 조직이 들어서기는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연맹이 생기면서부터이다. 해방된 후 남북의 문학가들은 처음에 전국적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13일에는 서울에서 남북의 문학인들이 모여 조선문학동맹 결성대회를 가졌고 이것은 비록 삼팔선으로 나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문학조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46년 2월 8일 조선문학자대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문학가들 사이에는 심한 내분이 일어났다. 1945년 12월 13일 날 결정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학자대회가 열렸지만 실제로 일부 문학인들은 그 이전의 결정을 무시하고 새롭게 조직을 결성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또한 서울중심주의를 노정하면서 삼팔선 이북을 지부 정도로 취급하게 되자 삼팔선 이북에 있었던 문학가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946년 3월에 만들어진 북조선예술총연맹이다.

이기영, 한설야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은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과 차별성을 띠면서 진행되었다. 그해 10월에는 이름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고쳤다. 이 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전쟁 중이다. 1951년 3월에 이르러 전쟁을 전후하여 남북 사이에 문학가들의 이동이 생기자 이를 반영하여 남북 문학가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졌다. 조선문학가동맹을 주도하였던 임화 등이 월북하게 되자 더 이상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조선문학가동맹이 참여하였던 남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 별개로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합동하기에 이르러 이름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고치게 되었다. 1953년에는 문학과 그 외의 예술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여 장르별로 분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문학인들은 조선문학가동맹이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1961년 다시 뭉치게 되어 이름을 예전처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회복하였고 지금까지 이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북한문학의 창작방법

북한 문학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문학계 내에서 고정적인 창작방법으로 정착한 것은 1947년 무렵이다. 물론 이 무렵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직접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고상한 리얼리즘이란 용어가 통용되었다. 고상한 리얼리즘이 당시 제기된 데에는 북한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 있다.

해방직후 이북은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다양한 개혁을 했는데 이것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실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해방이 조선 민족 스스로의 싸움에 의해서 쟁취된 것보다는 더 많이 소련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역시 일반 민중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에 의한 것이기보다 국가가 위로부터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민중들에게 국가가 행하는 제반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적인 제도와 후진적인 의식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것 중의 하나가 민중들의 의식개혁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문학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새로운 제도의 개혁 속에서 앞서나가는 인물들의 삶과 실천을 재현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긍정적 모범의 감화 교양을 문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고상한 리얼리즘이다. 고상한 품성을 적극적으로 재현하여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교양하는 것이다. 전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이 고상한 리얼리즘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여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창작방법으로 고정화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문학계 내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체적 성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관철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대신에 주체적 리얼리즘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주체적 리얼리즘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3. 북한의 문학잡지

해방직후 이북에서 처음으로 나온 잡지는 『문화전선』이다. 1946년 7월에 창간호로 선보인 이 잡지는 당시 결성된 북조선예술총연맹의 기관지였다. 5호까지는 계간지였지만 6호부터는 주간이 되었고 또한 성격도 바뀌었다. 그 동안 잡지에서 소화했던 문학 작품은 『조선문학』이라는 문학 전문지가 새롭게 담당하고 『문화전선』은 문학을 포함한 문화일반으로 그리고 시의적인 것을 담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화전선』을 대신한 『조선문학』 역시 2호를 끝으로 1948년부터는 『문학예술』로 제호가 바뀌었다. 『문학예술』은 처음에는 계간지로 나오다가 1949년부터는 월간지로 발간되었다.

매월 발간되면서 문학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였던 이 잡지는 1953년부터는 『조선문학』으로 바뀌어졌다. 당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해산하고 그 대신에 조선문학가동맹이 결성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에서 『조선문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문학』은 매달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이 잡지 외에도 아동문학을 담고 있는 『아동문학』,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학을 담고 있는 『청년문학』 등이 나오고 있다.

4. 해방직후의 북한문학(1945~1948)

해방직후 이북의 문학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위에서 나왔다. 일제말 초국가주의 파시즘의

강압 하에서 노예언어만으로 자기를 표현하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냉전적 분단구조가 정착하는 1948년 이후의 상황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였다. 과거 카프 문학을 하던 작가든 혹은 그와는 무관하게 활동했던 작가든 구별 없이 이 시기의 작가들은 민족문학의 지향 위에서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펼쳤다.

8·15 직후 북한의 문학이 가장 많이 다룬 것은 무엇보다도 해방 후 급속하게 변한 당대 현실이다. 격동하는 현실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시인들은 자신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현재 사이의 대조는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문학인들은 그가 농촌에 살고 있든 도시의 한 가운데 살고 있든 아니면 공장거리에서 살고 있든 관계없이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시로 노래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일제하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들판에서 농민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렘었는데 김순석의 「산향」, 정문향의 「푸른 벌로 간다」, 민병균의 「재령강반에서」, 이호남의 「지경돌」 등은 일제하의 숨이 막힐 듯한 폐쇄적 분위기와 해방 후의 자유로운 공기를 대조시키면서 변화한 농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농촌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공장지대를 비롯한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 일제하에서 일본인들은 고급 기술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단순한 손노동에 종사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일제 말의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생산력을 증강하기 위한 장시간의 노동과 비인간적인 착취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자 자유로움의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시인들은 매우 고양된 어조로 노래하였다. 안용만의 「축제의 날도 가까워」는 바로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조규의 「기차」는 여러 지방의 방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기차 안의 풍경을 통하여 해방이 일반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 직후 당대의 북한 현실을 반영한 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개혁으로 인한 삶의 변화이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농촌에서의 토지개혁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터라 시인들은 이를 자신의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 김광섭의 「감자 현물세」는 자신들에게 땅을 주어 이렇게 살게 해준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읊은 것으로 당시 농민들의 생활감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김우철의 「농촌위원회의 밤」 역시 토지개혁을 다룬 것으로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조규의 「쇠콜령 고개」는 매우 개성적인 시로서 빼놓을 수 없다. 이기영의 「개벽」, 최명익의 「맥령」 그리고 이태준의 「농토」 등의 소설은 토지개혁을 다룬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삶의 제반 변화는 비단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8시간 노동제가 발표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 노동현실에 대해서도 시인들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했지만 이제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보람과 열정에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김상오의 「기사」를 비롯하여 이정구의 「노동법령송」, 김복원의 「용광로 앞에서」, 그리고 정문향의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등을 들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일제하에서의 기사가 아니라 스스로 공장의 주인이 된 기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는 노동자들이 어엿한 사회의 한 영역을 지키는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성장과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잘 노래하였다. 노동자가 대의원 후보로 당당하게 나서는 과정에서 취한 이 시의 발상은 바로 변화한 노동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해방 직후 북한의 문학에서 한 흐름을 차지하는 것은 소련과의 친선 그리고 국제주의의 문제이다. 이 시기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쓰여진 많은 작품들이 1949년에 발간된 『영원한 친선』이란 시집에 모아져 있다. 박세영의 「소련군대는 오는가」, 강승한의 「여사에서」, 이정구의 「영원한 악수」, 백인준의 「니꼴라이 붉은 군대에게 드리는 노래」, 김상오의 「첫눈」 등이 실려있다. 많은 시인들이 이 주제에 관련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소련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작품들을 제외하고 보면 의미를 남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일제의 긴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는 데 미국과 더불어 한 몫을 했던 소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적 근대로서의 소련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 시기 소련과 북한의 관계를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문제성을 가졌던 작품은 한설야의 「모자」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련군의 형상에 대해 소군정이 항의를 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소련문화와 조선의 문화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개재하는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못 중요한 것이었다. 한설야가 이 점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다.

5. 냉전과 북한문학(1948~1953)

1948년을 전후하여 이북의 문학계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냉전 체제는 한반도에 강한 영향을 미쳐 이북에서는 냉전적 반제국주의란 것이 강한 기류를 형성하였다. 문학계에서도 해방직후에 보여주었던 다양한 경향이 점점 사라져 가기 시작하였으며 고정된 창작방법이 휩쓸기 시작하였다. 긍정적 모범의 감화 교양이라는 것이 문학의 주된 기능으로 널리 인정받고 강요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외의 것은 점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남북의 통일문제를 바람뭉에 있어서도 민주기지론이 점차 득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나온 이기영의 『땅』은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해방직후에 쓴 「개벽」은 마찬가지로 토지개혁 시기의 농촌을 그린 것이기는 하지만 긍정적 모범 인물을 통한 감화 교양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 와서는 완전히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을 표나게 내세우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이기영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당시 이북의 문학계를 완전히 압도한 것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당대 문학계의 현실을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긍정적 모범의 감화교양이란 주도적 창작방법이 갖는 의도하지 않은 획일성에 어느정도 거리를 두면서 창작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김사랑이다. 그는 「칠현금」이란 작품을 1949년에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당시 주류적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당시의 여타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웅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 또한 타의 모범이 될 만큼 강한 인상을 주는 인물도 아니다.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면서도 작가는 일제하의 억압과 해방된 후의 자유로움을 적절하게 대비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시기는 긍정적 모범의 감화 교양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상한 리얼리즘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문학을 지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전후의 북한문학(1953~1958)

전후에 이르러 이북의 문학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전의 문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강한 비판성이 이 시기의 문학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일정한 시점부터 문학의 동원성이 강조되면서 비판성이 점점 상실되어 갔다. 문학이 당의 정책이나 국가의 시책을 잘 선전하는 기능을 도맡게 되면서 문학 본연의 비판성이 사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후에 이르러 이러한 문학의 동원성에 대한 반성이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소련 등 외부로부터 도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어오자 북한문학 내부에서는 급격하게 비판성이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며 또 다른 것으로는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 등의 문제가 대두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전후 시기 북한의 시문학이 그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 시기 북한문학의 새로운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우선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부터 살펴보자. 이 시기에 이르러 조벽암·김우철·박석정 등에 의해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다. 조벽암의 「거울 하나씩을 걸라」는 이러한 경향의 포문을 연 작품으로 당시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관료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과거에는 인민을 위한답시고 나서서 일했지만 지위가 올라가면서 인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그들 위에 타고 앉아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한다. 당시 북한 사회가 하나의 체제로 굳어져 가면서 관료와 인민 사이에는 이러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조벽암은 바로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전재경의 「나비」와 같은 작품은 당시의 관료주의를 잘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전후 시기 북한 시의 비판성 강화는 비단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는 작품의 등장도 이 시기 북한 시의 새로운 경향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순석의 「마지막 오솔길」을 비롯하여 한명천의 「그 여자의 봄」 등을 들 수 있다. 김순석의 「마지막 오솔길」은 농촌에 트랙터가 들어오고 이를 위해 길이 넓어지면서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오솔길이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회를 적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북한의 들끓는 현실 즉 농촌의 기계화라는 새로운 현실의 변화를 걱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배적 분위기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농촌의 변화라는 이 사태를 자기의 과거 기억과 결부시켜 보여주었다. 그 점에서 이 시는 당시 대부분의 농촌을 다룬 시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결코 억압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와는 차이가 나는 작품이다. 한명천의 「그 여자의 봄」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다. 전후 전쟁 과부들의 내적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박효주의 장편소설 『전야에 봄이 온다』 역시 그러한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북한의 시문학에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분단현실을 새롭게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후부터 북한의 문학은 분단현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기에 그러한 문제 자체를 다룬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이전의 분단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주로 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쓰여진 작품이고 이는 냉전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작품들은 민주적으로 발전한 북한을 기지로 하여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남한을 구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과 같은 문제가 단순히 체제간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남한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고 이를 건져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에 들어 이전의 이러한 민주기지론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조벽암·정서촌 등이 이러한 작품을 썼는데, 이들 작품은 분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남북의 체제 간 차이에서 오는 우열의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스며들 틈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조벽암의 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조벽암의 「서운한 종점」은 남북으로 달리던 기차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감회를 통하여 분단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다른 시 「삼각산에 보인다」 역시 남쪽의 북한산을 북쪽에서 바라볼 때의 심회를 통하여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벽암의 시에서 우월한 북한이 저열한 남한을 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분단 그 자체는 체제의 문제를 떠나 우리 민족 전체 구성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 다른 시인인 정서촌의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분단현실을 다룬 그의 시 중에는 부분적으로 과거의 민주기지론적 입장에 입각하여 쓴 작품도 있고 거기에서 탈피한 작품도 있는데 이 둘이 한 시인 내에서 혼재되어 있다. 전자의 것으로는 「밤이여」를 들 수 있고 후자로는 「나루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민주기지론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떠난 시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천리마 시대의 북한문학(1959~1967)

1959년 이후부터 북한의 문학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드러냈었다. 하나는 현실을 매우 다양하게 그려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전후에 시작된 비판성의 강화는 이 시기에 이르러 현실을 한층 깊이있게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졌고 문학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부터 청춘 남녀의 애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의 북한의 시문학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다채로운 시세계가 펼쳐진다. 다른 하나는 혁명전통의 강조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일제하 항일혁명운동에 대한 형상화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작품은 주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천리마 기수들이 농촌에서 벌이는 일들과 그 모습을 큰 소리로 담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변하는 농촌 현실의 내부 변화를 작은 목소리에 담은 작품들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농촌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정서촌의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와 오영재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를 들 수 있다. 열아홉의 처녀가 한 밤중에 들에 나가 쓰지 못하는 땅을 일구는 모습을 통해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일하는 풍토를 보여준 작품이다. 과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수첩에 점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땅을 더 넓힌다는 일념으로 일하는 태도이다. 오영재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는 모내기철에 혼자서 이만

평을 쫓아낼 정도로 희생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받은 분배를 마치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처녀 농사꾼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 농촌 사회에서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일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손노동으로 하지만 곧 모든 것을 기계노동으로 하여 이 고운 손의 수고로움을 들어주는 일에 조국이 앞장설 것을 예견하면서 미래의 농촌 사회에 대한 희망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마치 모든 농촌의 노동이 기계화된 것처럼 부풀려 과장하는 이 시기 다른 시들과 다르긴 하지만 사회보다는 국가를 앞장세운다는 점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김병두의 「밭자국」과 김조규의 시조 『마을의 서정』을 들 수 있다. 김병두의 「밭자국」은 농촌 마을에서 들로 나가는 길에 놓여 있는 시냇물 위에 걸쳐 있는 다리가 징검돌에서 나무다리로, 나무다리에서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한 작품으로 당대 북한 농촌 사회의 변화를 아주 조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결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김조규의 시조 『마을의 서정』도 이채를 발하는 작품이다. 이 시조 중 「물새」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던 삼수 갑산 마을에 물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산새뿐만 아니라 물새까지도 찾아드는 광경을 통하여 변화하는 농촌의 삶을 역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시조의 한 작품인 「눈과 눈」은 이러한 농촌에서 젊은 남녀들이 어떻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명랑하게 서로 애정을 나누고 있는가를 하루 일을 마치고 느티나무 밑에서 재회하면서 서로 뜻을 나누는 젊은 남녀의 모습을 통하여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노승모의 「농장의 휴식일」, 오영환의 「쾌청한 날」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시 작품들 중 당대 현실을 다룬 것 중에는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농촌과 노동현장에서의 민중들의 모습 이외에 생활의 폭넓은 영역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일상생활의 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느낌들은 과거에는 시적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였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주목을 받았다. 젊은 청년 남녀들의 애정생활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간의 삶과 인정세태가 시적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욱 지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이들 시가 다루는 대상이 일상의 생활만큼 이를 바라보고 형상화하는 눈의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뎠게 끝나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김응하의 「먼 곳에서」이다. 이 작품은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감회를 담은 것인데 만약 이것 만이라면 이 시는 평범한 시로 끝났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어머니가 떠오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그 동안 떠오르지 않았던 어머니가 주목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 동안 들끓는 노동과 전쟁 등으로 하여 생활이 대단히 바빴고 또한 그러한 큰 일들에 매달리다 보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작은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감정에 자기를 맡기기에는 자신의 일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른 것은 사소하다고 지나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마음 깊이 다가오는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정은 결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아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감정이 진실하게 잘 드러나 있어 이 시는 이채를 발하고 있으며 또한 시는 이 시기 북한 시문학의 새로운 경향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황승명의 「부모된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갓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넘겨줄 수 없다고 다짐하는 부모의 애틋

한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세상의 부모들이 다 가지는 그러한 감정에 그쳐서는 이 시가 매력을 가지기 어려웠을 터인데 다음 세대 전체에게 뒤흔들 수 있는 세대가 되고자 하는 희망이 결들여져 있어 특이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항일혁명에 대한 강조는 조국애를 매개로 하여 이 시기 문학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조국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이 시기의 작품 중에서 조국 산천에 스며있는 항일전통의 체취를 발견하는 시들이 있다. 김순석의 「도강지점에서」, 안창만의 「오가산 밀림에서」 등은 바로 이러한 지향을 담고 있는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순석의 「도강지점에서」는 압록강이 시작되는 한 지점에 서서 과거 항일혁명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강을 건너오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것이 갖는 중요성을 말하는 작품이다. 현재 이러한 자연 하나도 바로 이러한 항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조국 산천이 결코 우연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창만의 「오가산 밀림에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항일운동이 이루어지던 밀림을 통하여 오늘의 이러한 조국이 있기 위해서 과거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를 환기한다. 이들 작품에서는 조국의 산천이 주된 시적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 조국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끝없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혁명의 전통을 그리는 것은 장편소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기영의 『두만강』이나 천세봉의 『고난의 세월』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천세봉의 『안개 흐르는 새언덕』은 혁명전통에 대한 형상화가 결코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작품이다.

8. 주체시대의 북한문학(1967~1980)

1967년 이후 주체문학이 전면화되면서 시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은 이른바 수령형상창조와 더불어 혁명전통을 다룬 것들이다. 1930년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을 바로 오늘날 북한 역사의 원류로 보고 그것과의 연관 위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절대적 과거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또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 세력 이외에는 전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유일한 과거로 해석함으로써 전일성을 드러낸다.

혁명전통을 다루는 이 시기 북한의 작품은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가장 우선된 것은 역시 1930년대의 항일운동을 역사의 원류로 해석하는 작품들이다. 이용악의 「우리 당의 행군로」가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과거 항일 투사들이 걸던 길이야말로 바로 북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이일복의 「혁명주권의 요람」, 이호일의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도 마찬가지 경향의 시이다. 혁명전통을 다룬 작품 중에서 또 다른 경향의 작품은 과거 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적지를 소재로 삼아 시적 전개를 펼친 작품들이다. 이의 대표적인 작품이 구희철의 「불멸의 자옥 어린 영광의 땅이여」이다. 이 작품은 백두산 근처 혁명 사적지를 답사하면서 곳곳에서 느낀 감회를 읊진 작품이다. 문학 치곤 아주 긴 32연의 이 작품에서는 전적지가 거의 망라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으로는 이정술의 「무포의 밤」, 차승수의 「영광의 땅」, 김재훈의 「사랑의 사적비」, 박세옥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등이 있다. 사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투사들의 심정을 자기화한 작품으로 계훈의 「백두산상의 밤」 등을 들 수 있다. 장편소설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을 그린 작품이 많아 나왔다. 석윤키의 『무성하는 해바라기』를 비롯하여 ‘불멸의 역사’총서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북 문학에서 김일성 주석의 형상이 직접 나오는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이른바 수령형상문학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 특히 중편 장편 소설에서는 예외없이 김일성의 형상이 직접 등장인물로 작품 속에 드러났다.

1970년대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3대혁명소조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바뀌어 가는 과학기술을 재빨리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이것은 외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세대 문제이다. 과학기술혁명을 통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장과 농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들이나 위원장들이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 시기의 북한 시에서 세대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과학기술의 문제는 공장과 농촌 가릴 것 없이 대두되지만 특히 공장에서는 자동화의 문제로 하여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다룬 시들은 최호진의 「철의 물결이 파도쳐간다」, 장건식의 「좋은 날에」, 김희종의 「사랑의 화면」, 차승수의 「사랑의 흐름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김희종의 「사랑의 화면」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부제 ‘산업텔레비존 앞에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용해 공장의 지령실에 있는 산업텔레비전을 통하여 기계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과거에 불 가까이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던 시절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생산의 증산도 물론이지만 노동자들을 힘든 손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 시의 제목이 ‘사랑의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결국 노동자들 삶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층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시인은 이러한 현실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읽는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문제는 비단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도 일어났다. 윤두근의 「기계손으로 농사짓는 벌에서」, 조빈의 「소조원 처녀」, 최병원의 「농장의 출근길」 등의 시가 이러한 경향의 작품인데, 최병원의 「농장의 출근길」은 이 경향의 문제적 작품이다. 이 시기 농촌에서의 과학기술의 문제는 공장의 자동화와는 달리 종합적 기계화로 상징된다. 트랙터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 특별히 농촌에서 문제가 될 수 없기에 영농작업의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을 높이는 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에서의 이 과학기술의 문제는 공장과 달리 현재의 절실한 과제이기보다는 미래의 일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 것이 최병원의 「농장의 출근길」이다. 이 시에서는 현재의 농촌보다는 미래의 한층 기계화된 농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읊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전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고만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에는 항상 유보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운 새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고 이 시기에 벌어진 3대혁명소조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다룬 것으로 오대석

의 「로장의 말」, 변홍영의 「혁명전위에 대한 생각」, 동기춘의 「우리 모두 다 쟁취하리라, 3대혁명 붉은 기를」, 김희종의 「소조원과 함께」 등이다. 동기춘의 시는 이 새로운 운동이 해방 직후의 사상총동원운동, 전후의 천리마 운동에 나섰던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들이 그 주역을 떠맡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구세대와 새세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바로 그러한 우려와 더불어 희망을 말한 시가 오대석의 「로장의 말」이다. 이 시는 바로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도입과 정에서 세대들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구세대인 노의 장이 결국 젊은 소조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당시 북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문제와 세대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9. 숨은 영웅과 북한문학(1980~1989)

1980년대 이북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웅성에 대한 비판과 생활의 재발견이다. 특히 숨은 영웅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재현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학경향과는 현저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으며 문학으로부터 떨어졌던 독자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숨은 영웅의 삶과 현실을 노래한 것, 생활의 일상사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다룬 것,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 것 그리고 북한 사회의 관료주의를 다룬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이 시기에 들어 북한 사회와 문학 전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숨은 영웅의 문제를 다룬 작품부터 보자. 숨은 영웅이란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충직하게 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들을 가리킨다. 거대한 사건이나 위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인물들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거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여 무시당해 왔지만 이 시기에 숨은 영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로 되었다. 김상오의 「땅 위의 별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의 새로운 영웅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철 아름답게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스러지는 화려한 종류의 꽃이 아니라 소박하고 겸허한 들국화와 같은 존재로 숨은 영웅을 그린 이 작품은 그 동안 화려함에 골몰하여 이 소박함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한 반성을 담고 있다. 이 술한 땅 위의 별들이야말로 바로 이 사회를 떠받쳐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김우협은 「숨은 영웅들에 대한 생각」 역시 이 새로운 영웅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영웅하면 전쟁에서 수훈을 쌓은 사람이거나 혹은 전후 복구건설장에서 큰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소박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기 북한 사회에서 이전의 영웅과는 다른 새로운 영웅관을 확연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영웅관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화려한 삶의 무대보다는 소박한 일상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인들은 그 동안 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들에 대해 시선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삶의 일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읊은 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로 전병구의 「생일상」, 문선건의 「금지」, 이광선의 「선생님」, 서진명의 「세월과 인생」 등을 들 수 있다. 문선건

의 「금지」는 이러한 숨은 영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철을 녹이는 일을 하는 용해공은 그 일이 중요한 만큼 세상사람들이 평가해 주지만 주형을 만드는 사람인 조괴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괴공인 시적 화자는 항상 자신의 일이 세상의 조명을 받지 못했어도 이것에 구애치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을 한다. 이 조괴공 없이 용해공만 있으면 아무 것도 만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금지를 가지고 산다. 전병구의 「생일상」은 아들의 생일날 잔치에서 얻은 작은 생각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생각하니 과거에 자기의 생일날 어머니가 달걀 한 알을 밥상에 놓아주던 일이 떠오른다.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대조하여 보니 그 동안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남다른 감회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북한 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현재에 대한 변호는 아주 상투적인 착상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특이한 것은 그것을 관념적 언어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장을 하여 큰 인물이 되어도 결국 존경하게 되는 것은 어릴 적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이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흥미롭게 이끌어간 이광선의 「선생님」, 세월을 값있게 보낸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음을 일깨워주는 서진명의 「세월과 인생」 등도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생활의 일상을 예리하고 지적인 눈으로 관찰한 가운데서 나온 시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애정시이다. 이 시기에는 여러 시인들이 대건설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 노동 속에서 맺어진 청년 남녀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정용의 「금골처녀」, 한기운의 「내 너밖에 몰라」, 김형준의 「청춘과 사랑과 대동강」·「탄부와 고향 처녀」, 김송남의 「두 불빛」, 황성하의 「기다린 봄」, 안정기의 「사랑의 조건」·「사랑은 어데 있는가」, 안순희의 「나를 부르는 기적소리」 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거의가 노동하는 청년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 반면, 김기호의 「아직은 말 못해」, 동기춘의 「그대 나의 푸른 숲」, 염우봉의 「한 처녀에게」는 색다름을 준다. 김기호의 「아직은 말 못해」에는 어머니가 도시에 사는 총각에게 선을 보러 가라고 종용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 캐는 동무를 사랑하는 처녀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노동하는 청년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 설정의 특이함 때문에 다른 시들과는 다른 흥미로움을 준다. 염우봉의 「한 처녀에게」는 출근길에서 자주 만나는 처녀가 시계바늘처럼 시간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처녀에게 갖는 호감을 색다르게 표현한 작품이다. 만약 총각이라면 다른 뜻을 가졌을 텐데 쌍둥이 아버지가 된 처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총각을 소개하고 싶다는 말미에서 이러한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애정을 읽을 수 있다. 동기춘의 「그대 나의 푸른 숲」 역시 이채를 발한다. 이 시는 청년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한 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남편은 그 동안 같이 살면서 항상 아내를 편히 쉴 수 있는 숲으로 여기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그 숲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청년 남녀의 애정시와는 다른 깊은 맛을 안겨준다. 남대훈의 「청춘송가」도 이러한 주제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이 시기의 시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북한 사회에 강력하게 남아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윤병규의 「그대 곁에 우리 곁에」는 북한 사회의 관료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과거에는 사무실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 나가 일을 하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현장과는 거리가 먼 채 폭신한 사무실 소파에서 전화만 받으면서윗사람에게는 아침을,

아래 사람에게는 탓만 한다. 과거에 열심히 일한 것조차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북한 사회에서 현재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관료주의자에 대해 시인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재의 「비도덕인을 데려가는 집」은 공장 현장에서 3년간 연구하다가 풀리지 않은 과제를 모교의 교수 덕분에 해결하자 언론과 사회의 초점이 되었고 그 공을 자기의 것만으로 가로챘던 인물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인물이 간 곳으로 되어 있는 ‘비도덕인의 집’에 와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뇌물을 바치고 받은 사람, 공명주의자, 웃사람에게 대들고 여성을 모욕한 젊은이들, 식당의 뒷방만 출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시인이 현재 북한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희근의 『뜨거운 심장』과 백남룡의 『벗』이다. 이혼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 백남룡의 『벗』은 관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민판사 정진우를 통하여 현재 이북에 존재하고 있는 반인민적인 관료주의자를 비판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는 북한시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계열의 시들은 강한 탈식민주의적 분위기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지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한동안 나오지 않던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색채의 시들이 등장하였다. 이 주제의 문학 중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국애를 느끼는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강창영의 「흰파도」와 김석주의 「떠나서는 못살아」, 서진명의 「고향집 뒤뜰의 소나무는」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강창영의 「흰파도」는 흰갈기를 날리며 절벽 기슭으로 달려드는 파도에서 조국에 대한 마음을 읽은 것으로 일상의 체험에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작품이다. 서진명의 「고향집 뒤뜰의 소나무는」은 고향집에 들렀을 때 뒤뜰에 항상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고향과 조국에 대한 변하지 않는 애정을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김석주의 「떠나선 못살아」 역시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통하여 인생의 길에서 한때 벗어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그리고 있다.

10. 고난의 행군과 북한문학(1990~현재)

국가사회주의의 전반적 붕괴는 이북의 문학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기의 문학은 한층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국가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오는 정신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당은 문학에 대해 강한 동원적 기능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이북의 문학이 확보했던 다양한 경향과 비판성이 주눅 들기 시작하였다.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재와 주제의 폭이 넓었던 이전의 문학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기 힘들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문학적 경향을 대담하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문학의 복원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1970년대의 문학적 침체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것이었던 만큼 다시는 그러한 상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이북문학이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엿보게 하는 작품이 김문창의 『열망』이다. 한편으로는 이북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점을 강하

게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과 국가를 중심으로 내일을 열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문학에서 엿볼 수 있었던 강한 현실 비판성도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화된 공식성도 마찬가지로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1. 북한의 대표적 소설가

이기영(1895-1984)

1895년에 충청남도 아산군 가난한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신교육운동에도 참가한 개화양반이었는데 이기영은 어려서는 서당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관여한 신식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신소설을 비롯한 소설의 세계에 묻혀 살았다. 1910년에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동경 유학을 떠났으나 여비가 없어 실현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을 떠돌다 집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그 후 집을 떠나 5년간 방랑생활을 하면서 금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였다. 이는 후에 그의 소설창작에 큰 밑천이 되었다. 1918년 봄에 고향으로 돌아와 몇 해 동안 군 교원 은행 사무원 등의 일을 맡아하다가 1922년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귀국하였다. 1924년에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가 『개벽』 잡지 현상모집에 3등으로 당선된 것을 계기로 문단에 들어섰으며 그해부터 『조선지광』 잡지의 기자 생활을 하였다. 1925년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에 참가하여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 이 시기에 단편 「민촌」 등을 발표하여 카프 작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확립한다. 카프에 참가한 것으로 하여 1931년과 1934년 두 번에 걸쳐 감옥 생활을 한다. 그에게 프로 소설가의 영예를 확실하게 안겨 준 것은 1933년에 발표된 『고향』이다. 1920년대 말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작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이 작품은 카프 10년의 최고의 수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30년대 후반에도 장편소설 『인간수업』, 『어머니』, 『신개지』, 『봄』 등을 발표하였다. 해방 후에는 이북에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1946년 3월에 조직된 북조선예술총연맹에 참가하면서 조소문화협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맡았다. 1948년 해방 후 이북의 토지개혁을 다룬 장편소설 『땅』을 발표하였다. 역사소설 『두만강』 1부부터 3부까지(1954-1961)를 창작하였다. 1972년에 ‘김일성상’을 받았다. 이기영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시대 발표된 『고향』은 물론이고 해방후에 창작한 『땅』, 『두만강』 모두 다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기영은 농민소설의 작가라 할 수 있다.

한설야(1900-1976)

한설야는 1900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1910년 함흥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14년 졸업한 뒤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서울에 있던 서모와의 불화로 함흥으로 내려와 함흥고보에 편입학하였고 1919년에 졸업하였다. 1919년 북경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 일본 유학을 떠난다. 1924년 귀국하여 북청고보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창작에 전념한다. 이 시기에 카프에 참여하여 이후 프로 소설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1929년에 발표한 「과도기」는 프로 소설사에서 그의 위치를 확정지어주는 작품이다. 1934년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함흥으로 내려와 활동하던 중

카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어생활을 한다. 1년간의 감옥 생활 후 발표한 장편소설 『황혼』은 이기영의 『고향』과 더불어 프로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1943년에 경성단파방송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병으로 인해 1944년에 풀려났다. 해방 후 삼팔선 이북에서 활동하던 그는 전국적인 문학가 조직의 건설을 위해 1945년 12월 13일 열렸던 조선문학동맹 결성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다.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연맹의 결성에 주도적이었고 이 조직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후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을 다룬 작품 「모자」를 발표하였다가 소련군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 전후에는 제3세계에 대한 자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를 위해 장편 역사소설 『설봉산』을 발표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시련이 다가온 것은 1959년 이후부터이다. 이북에서는 이 무렵부터 혁명전통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역사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주류로 보았고 문학에서도 항일혁명문학을 혁명전통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설야는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문학의 혁명전통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카프에서 이루어졌던 프로문학을 혁명적 전통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의 이러한 방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당의 주류와 마찰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한설야가 1962년 말 이후 글을 쓸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지방에 내려가 침묵하다가 1976년에 사망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적 지향의 작가들이 민족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만 것과 대조적으로 한설야는 민족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관찰과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명익(1904-1978)

최명익은 190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고보를 졸업한 후에 줄곧 평양에서 지내면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1936년 「비오는 길」을 발표함으로써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1930년대 후반에 「무성격자」, 「역설」, 「심문」, 「봄과 신작로」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 작품들은 주로 식민지적 근대의 격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외를 그린 것들이었다. 해방후에도 그는 향리인 평양에 머물면서 작가활동을 계속하였다. 1946년 3월에는 북조선예술총연맹에 가담하여 이전과는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1946년에 발표한 「맥령」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제말의 소작농민들이 해방후의 새로운 현실에서 토지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소작농민과 지식인 사이의 관계를 통해 토지개혁을 단순히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점이 당시 토지개혁을 다룬 많은 작품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참여하여 직접 함경도 농촌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천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47년에는 이 시기의 작품을 묶어 작품집 『맥령』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그는 분단을 목전에 둔 시기의 민중들의 추이를 그린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특히 해방직후 소련과 이북의 관계를 다룬 「제일호」는 민족적 자율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 널리 주목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최명익의 작품 세계에는 격심한 변동이 일어났다. 동시대의 현실을 항상 다루던 그가 이를 포기하고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지향과 당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의식한 그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정직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준비하였다가 발표한 작품이 1956년에 나온 『서산대사』이다. 1961년에는 임오군란을 다룬 역사소설 『임오년의 서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역사소설에 자신의 작

가적 미래를 걸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것은 정미칠조약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마무리했을 때 이북 문학계의 정황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항일혁명운동과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승배가 나오게 되었다. 최명익은 자신의 역사관과 주류적 역사관이 맞지 않게 되자 이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전혀 작품을 쓰지 않다가 1978년에 사망하였다. 심리적 묘사에 능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최명익의 작품 세계는 그 어떤 작가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천세봉(1915-1986)

1915년 함경남도 고원군 덕지리의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활난으로 겨우 소학교를 마치고 농사일을 하였다. 해방직후 그는 농촌위원회 등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녀작 「령로」(1946)를 발표한다. 1947년 9월 조선문학 창간호에 「새로운 맥박」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하였다. 1949년 3월 문학예술에 「호랑령감」을 발표하여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땅의 서곡」(1949년 10월)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단편을 발표하였다. 전쟁 시기 그는 중군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살았다.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1953)을 발표하기도 한다. 전후인 1953년 10월 조선문학 창간호에 「흰구름 피는 땅」을 연재하였다. 1955년 7월부터 조선문학에 『석개울의 새봄』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전후시기 특히 도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던 1956년 10월의 제2차 작가대회에서는 「현실 연구 및 도식주의 문제」란 글을 통하여 소설에서 당의 인물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도식주의적 경향을 예를 들어가면서 북한문학의 전반적인 도식주의에 대해 비판을 행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그는 농촌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957)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을 묶은 단편집 『흰구름 피는 땅』(1956)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집에는 이 무렵에 중편소설 『전야의 종소리』(1958)을 내기도 하였다. 1959년에는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해방직후의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룬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1962)를 발표하여 해방직후 이기영이 『땅』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시 재조명하기도 한다. 1962년부터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1967년 주체문학이 들어설 때까지 이 지위에서 문학활동을 한다. 그는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는데 1920-30년대의 농촌 현실을 다룬 『고난의 력사』(1964)를 비롯하여 일제하 지식인들의 항일운동을 그린 『안개 흐르는 새언덕』(상, 하1966)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안개 흐르는 새언덕』은 민족주의자의 딸을 항일운동의 편에 세우지 못하고 친일편에 세운 설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천세봉의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이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여진 작품이다.

북한문학이 주체문학으로 바뀐 이후 천세봉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합류하여 여기에 맞는 작품을 줄곧 발표하였다. 1967년 이전부터 문학예술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김정일은 당시 작가동맹 위원장이었던 천세봉을 만나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작품을 쓸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정일 전집 1권에 실린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 데 대하여」(1966.2)라는 글은 바로 천세봉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는 내용으로 된 글이다. 이런

중용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작품을 쓰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주체문학에 합류하여 창작활동을 벌인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일성의 일대기를 다룬 불멸의 역사 총서 중에서 『혁명의 려명』(1973), 『은하수』(1982), 『조선의 봄』(1991)이다. 그 외에도 김정숙의 활동을 다룬 총서인 『충성의 한길』 중 1부 『유격구의 기수』(1975)와 2부 『사령부로 가는 길』(1979)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품을 창작하는 한편 1980년에는 농촌에서 살고 있는 한증녀 일가의 삶을 다룬 『축원』이란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망 후인 1986년 10월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협회 문학상인 로터스상이 수여되기 하였다. 일제하부터 사회주의 협동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농촌의 변화를 소설이란 벽화 속에서 새겨낸 이 작가는 농민작가이면서도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준 작가이다.

황건(1918-1991)

황건은 1918년 4월 함경남도 갑산군 남면 유상하리 빈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1세 때 형을 따라 서울로 올라 간 그는 거기서 직업학교를 마치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 고학을 했다. 다시 형의 방조로 1년 만에 도로 서울에 나온 그는 보성고보에 편입하였다. 그 후 황건은 전주 사범 강습과를 거쳐 전라북도 무주에서 교원생활을 2년하다 중국 동북 장춘에 들어가 「만선일보」 신문 기자 생활을 2년 했다. 이때 「제화」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41년 만선일보사에서 발간한 재만조선인작품집인 『싹트는 대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는 다시 도쿄로 건너가 명치 대학 정치 경제과 전무부에 공부하다 여름 방학에 고향에 돌아온 후에는 산간에서 면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해방 전 5년간의 산간 생활은 그의 지난 반생에서 가장 음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5년은 그의 문학을 위한 생활 체험에서 귀중한 시기였다.

황건의 문학활동은 비로소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고향에서 면인민위원회 일을 맡아 보다가 그해 12월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던 『신천지』에 「깃발」이란 단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후 평양으로 가 주로 신문 기자 직에 있으면서 「산곡」, 「목축기」, 「탄맥」, 「남아의 양」, 「준엄한 날」 등의 단편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산곡」은 그의 문학창작활동의 시발이었다. 1948년 7월 「문학예술」 2호에 발표한 「목축기」는 실제 쓰여지기로는 「산곡」보다 앞선 것으로(1947.2) 해방직후 개마고원 부근에서 이루어지던 양목을 배경으로 하여 과거 일제하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생활과 희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과거 그 자신이 경험한 바 있던 면양을 키우던 것을 토대로 하여 창작된 이 작품은 해방직후 황건의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1949년에는 탄광에서의 현지체험을 기초로 하여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그린 단편 「탄맥」을 발표하였다. 1949년에는 첫 단편집 『탄맥』을 발간하였다. 이 작품집에는 「목축기」, 「산곡」, 「남아의 양」, 「길」, 「탄맥」이 수록되어 있다.

6.25전쟁 때 황건은 전선에 종군하였다. 종군체험을 토대로 1951년에 단편 「안해」, 1952년에 단편 「그가 돌아온 길」, 「불타는 섬」, 「막섬156호」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을 모아 1952년에는 두 번째 단편집 『불타는 섬』을 발간하였다. 1953년에는 중편소설 『행복』을 발간하였다.

전후 시기에 그는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자기의 고향인 개마고원 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린 『개마고원』을 1956년에 발간한다. 또한 중국을 방문한 후 방문기 『6억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1956년 10월에 열린 조선작가동맹

제2차 조선 작가 대회에서 그는 「산문 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라는 토론문을 통해 산문에서의 도식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959년에는 세 번째 단편집 『목축기』를 발간하였다. 1960년에는 중편소설 『새벽길』을 발간하였다. 이때 그는 중국 동북지방을 답사하여 이에 기초하여 항일운동을 그린 작품을 준비하였다. 이것의 결과로 1965년 장편 『아들딸』을 내놓는다. 1935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항일운동을 다루고 있다. 1962년부터 다시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다.

1967년 주체문학이 들어선 후 그는 이에 호응하여 장편 『자라는 대오』를 창작하였다. 이후 중병에 걸려 투병하면서 1980년에는 장편 『새로운 항로』를 발간한다. 이 작품은 일제 하부터 6.25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다. 1986년에 발표한 장편 『딸』은 6.25전쟁 당시 후방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이다. 1988년 4월에 ‘김일성상’이 수여되었다. 1991년 1월 사망하였다.

12. 북한의 대표적 시인

조기천(1913-1951)

조기천은 1913년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두만강을 건너 시베리아로 갔다. 거기서 소학교를 마치고 사범전문학교과정을 마친 후 옴스크 고리끼 사범대학 노문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학교 졸업 후 중앙아시아의 한 조선사범대학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시작활동을 하였다. 해방후 고국으로 돌아온 후 시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1946년에 발표한 서정시 「두만강」을 필두로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서정시 뿐만 아니라 서정서사시·서사시 등 여러 갈래에 걸쳐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북 문학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서사시 『백두산』이었다. 1947년 2월에 발표된 이 서사시는 김일성 주석도 참여하였던 보천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토지개혁을 다룬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를 발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서사시 『생의 노래』 등을 발표하였다. 1951년 3월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한글로 된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러시아어로 된 시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1951년 7월 전쟁 중 폭격을 맞아 사망하였다. 서정시의 전통 위에서 서정서사시·서사시 등 당시 이북 문학계로서는 낯설었던 시적 형식을 과감하게 실험함으로써 이북 시단의 영역을 확충하였다.

김순석(1921-1974)

함경북도 라남의 빈농가에서 출생하였다. 라남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에 부모를 따라 북간도로 갔으며 그곳에서 7년간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사립중학교에 다니면서 글읽기와 글짓기를 즐겨하였으며 많은 시를 습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해방 전에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못하였다. 해방과 함께 조국에 돌아온 그는 해방을 맞이한 기쁨과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문학 「산향」(1945)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창작작업에 들어섰으며 연이어 많은 시를 발표하였다. 그는 해방 후부터 1950년 4월까지의 사이에 쓴 초기 작품들 중에서 40여 편을 추려 첫 시집 『새날의 서정』을 묶었으나 인쇄 도중 전쟁이 일어나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그의 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

는 민중들의 보람찬 생활을 주로 노래하였다. 6.25 시기에 그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함경북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 시기 어랑땅의 생활을 노래한 문학 「어랑천」을 발표한다. 전쟁 시기에 창작한 그의 작품들은 시집 『영웅의 땅』에 묶여져 1953년에 출판되었다. 전후 시기 그는 출판 부문에서 일하였다. 1955년 시집 『찌플리스의 등잔불』을 냈는데 이것은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 얻은 인상을 기초로 하여 쓴 시들을 묶은 것이다. 1956년 10월에 열린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그는 「시인들의 협력은 우리의 시문학을 전진시킨다」라는 토론문을 통하여 당시 북한시의 도식주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따분하고 싫증나게 길고 무내용하고 공허한 외침으로 가득찬 시 아닌 시들이 해방 후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계속 나오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당시 그의 도식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제2차 조선작가대회 직후 개편된 조선작가동맹에서 시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1958년 12월까지 일한다. 이때 그는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데 1957년에 나온 『황금의 땅』과 1958년에 나온 『호숫가의 모닥불』가 그것이다. 1959년에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한설야를 위시하여 여러 사람들로 부터 부르조아적 잔재가 강한 시인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다. 그후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의 현지 생활을 거쳐 1962년부터 196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였다. 1959년 비판 이후 거의 침묵을 지키다가 1963년 무렵부터 글쓰기 활동을 재개한다. 1963년 8월 9일자 『문학신문』에 「시집 『기적소리』를 읽고」는 그의 재개활동을 보여주는 글이다. 주체문학 확립 이후에 그의 활동을 찾기 어렵다. 그의 시가 지닌 특성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현실에서 멀어지는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서 시적 계기를 포착하여 시대정신에 대한 폭넓은 일반화를 지향하면서 민족적 및 향토적 색채가 짙은 섬세하고 다감한 정서 세계를 추구한 개성적인 시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상오(1917-1992)

1917년 해주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다니고 일본으로 가서 3년동안 공부하였다. 1933년에 지하 조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70여일 만에 집행유예로 출옥하였다. 귀국 후 자습으로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하여 해주 등지에서 구강의사로 일하였다. 시는 해방직후에 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해방 전에도 「작품 속에서」 등을 발표하였지만 본격적인 창작활동은 해방 후에 이르러서이다. 해방직후 공산당 황해도 도당위원회 결성에 참가하였고 선전부에서 일하면서 도당기관지 『자유황해』의 주필로 사업하였다. 이 무렵에 발표한 시가 「바다」이다. 9월 16일 황해도 지역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동지들의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들 피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무렵에 쓴 시들을 모아 첫 시집 『우리의 날』을 발간한다. 한국전쟁 기간에 쓴 「집」이란 시는 이 시기 다른 북한 시인들의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시들과는 달리 집을 매개로 전쟁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을 포함하여 이 시기에 쓴 작품들을 모아 1952년에 두 번째 시집 『증오의 불길』을 세상에 내놓는다. 전후에도 줄곧 많은 시를 발표하여 1959년에는 『아름다운 기슭』이란 세 번째 시집을 발간한다. 이렇게 줄곧 시를 발표하던 김상오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은 1963년이다. 이해에 그가 발표한 시 「천리마 동상」이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수정주의’, ‘부르조아’ 작품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항상 상식과 통념을 거부하는 데서 시적 창조의 길을 찾곤 했던 김상오의 시적 경향이 이 무렵에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곡산으로 내려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1970년 다시 문학계

에 복귀한 그는 「나의 조국」을 비롯한 여러 편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1988년에는 시집 『나의 조국』을 마지막으로 출간하였다. 1990년에는 김일성상을, 1995년에는 조국통일상을 각각 받았다. 1992년 사망하였다. 이북의 시인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시를 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상오는 상식과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적 배반을 행함으로써 독특한 시세계를 연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문향(1919-1993)

1919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출생하였다. 1946년에 「푸른 벌로 간다」를 발표하여 문학계에 들어섰다. 토지개혁을 통하여 전변하고 있는 농촌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이 시를 계기로 하여 독특한 시세계를 열었다. 특히 전후 1954년에 발표한 「새들은 숲으로 간다」는 전쟁에서 벗어나 생산활동을 재개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그의 시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서정적 개성을 확연하게 보여줌에 성공하고 있다. 1955년에 첫 시집 『승리의 길에서』를 발간하였다. 1956년 이후 시의 도식성을 극복할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일련의 시들을 내놓았고 1959년에는 두 번째 시집 『조국에 대한 생각』을 발간하였다. 1959년 이후 혁명전통을 노래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자신의 시적 세계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1967년 이후에는 당시의 이북 문학의 주류가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1978년에는 그 동안 써온 것을 모아 세 번째 시집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시작활동과 더불어 단테의 『신곡』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1989년 김일성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사망.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읽어내는 시적 사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북의 시단에서는 보기 드문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13. 연애를 다룬 작품

1980년대 이후의 이북의 장편소설들은 예외 없이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지만, 애정문제는 소설에서 부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남대현의 『청춘송가』는 청춘 남녀의 애정문제를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북 문학계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제철소 강철직장 기사 진호와 그의 애인인 출판사 기자 현옥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진호는 대학시절부터 새로운 제강법을 연구했고 그 실험을 위해 생산현장에 진출할 꿈을 키워온 포부가 큰 청년이다. 그는 자신의 실험이 실패하자 현장에 나갈 것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제철소로 간다. 이러한 진호의 심정을 이해한 애인 현옥은 함께 현장에 나갈 것을 결심한다.

그런데 현옥의 오빠인 금속공업부의 심사 실장인 병식은 진호가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실험에서 실패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여동생 현옥을 말린다. 현옥은 오빠의 말을 듣고 난 후 결국 주저앉고 만다. 애인과 떨어져야 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제철소에 간 진호는 학창 때부터 연구해오던 연구 사업을 계속한다. 한편 떨어져 있으면서도 진호를 잊지 못하는 현옥은 제철소에 내려가 실험 실패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는 애인을 만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주인공 진호는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결국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사랑은 다 익은 과일을 과원에서 따는 식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신념을 안고 현옥을 만나러 간다. 현옥은 시간이 갈수록 오빠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을 뉘우치면서 진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 특히 진호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정아와의 만남을 통해 현옥은 새롭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진호 모르게 그의 일을 돕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북의 젊은이들이 현장을 기피하고 평양 등 도시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 나오는 진호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이 작품에는 오늘날 이북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 드러나지 않아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오로지 국가적 이익에 복무하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사실에서 이런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북 소설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북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애정의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4.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다룬 작품

1990년대 후반 북한이 겪고 있는 ‘고난의 행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일은 식량난의 해결이다.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농촌에서 식량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는데 문제가 자연재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층 복잡하다. 그 중 가장 큰 곤란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서 빚어진 농촌 기피현상으로 이는 원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이 공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간격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소재지 혹은 평양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농촌에는 젊은 남자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농촌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 소설에서는 농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애인을 따라가지 않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의 작품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남편을 따라가기 싫어 이혼을 하는 인물이 나올 정도이니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1990년대 내내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만을 발표하고 있는 리태윤은 그 어떤 작가보다도 도시와 농촌 사이의 긴장을 잘 드러내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한 작가이다. 농촌을 다루는 많은 작가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농촌을 그리거나 혹은 문제를 다루다 너무 쉽게 그 해결을 제시하는 반면에, 리태윤은 「빠국새가 노래하는 곳」(1990)에서 도소재지로 아들을 끌어올리려는 부모와 농촌에 남기를 바라는 아들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벼이삭」(1995)에서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애인 앞에서 농사꾼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한 젊은이의 내면적 갈등을 통하여, 오늘날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이를 극복해나가려는 민중들의 노력을 팽팽하게 그리고 있어 강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도 이 식량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사태를 분식하기보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이 더욱 생산적인 일임을 리태윤은 간접적으로나마 잘 말해주고 있다.

15. 고난의 행군을 다룬 작품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나날을 보내는 1990년대 후반의 북한 사회에

단편소설 한 편이 적지 않은 과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문학 비평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 「행복의 방아」(리성식, 1998)는 현재 북한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견고 있는 ‘고난의 행군’과는 거리가 먼 듯한 청춘 남녀의 낭만적인 연애 이야기이다. 농촌에서 작업반장으로 억세게 일하면서 결혼은 안중에도 없던 한 처녀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체험을 하기 위해 이 마을에 온 청년에게 마음을 준다.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햇물을 켜는 듯 했지만 그가 약속을 어기지 않고 다시 이 마을의 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함으로써 결합에 성공하는 것이 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먹기 힘들고 생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러한 연애 이야기가 북한 사회의 민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패배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 속에서 살고자 하는 지향을 이 작품이 충실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현재 북한 사회에 가장 널리 퍼진 구호 중의 하나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청춘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이 극도의 곤란에 처한 현재 북한 사회에 이렇게 큰 과장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애정을 다룬 작품이 북한 사회 내에서 갖는 의미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학에서 청춘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일은 1980년대 이후 북한문학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흔한 일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1987년에 나온 장편소설 『청춘송가』(남대현)로서 이 역시 연구사로 일하는 한 젊은 청춘 남녀의 애정을 다루었다. 북한문학에서 청춘 남녀의 애정을 그린 작품 중에서 한 획을 그었다 해도 무방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작품은 북한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1994년에 만부의 2판을 찍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그 인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문학이 남녀 간의 애정을 즐겨 다루는 데에는 일상의 욕망을 무시하고 ‘혁명적인 위대한 사변’에만 매달려서는 일반 민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녀간의 애정과 같은 일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혁명적’인 것만 다루어서 민중들 특히 향후 역사를 만들어나갈 젊은 새로운 세대들로부터 유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의 작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대에 비하여 일상의 욕망에 민감한 새로운 세대들이 향후 사회의 중추를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강해지면 강해지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에 북한 사회와 문학가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16.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

북한 사회에서 여성문제는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학 등을 통해 볼 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같은 문제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원하지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 직종은 여전히 남성들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이란 그 자체에만 매달려서는 북한 여성의 내면을 읽는 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북한 사회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다. 현재 북한의 여성문제는 바로 이 남성중심주의의 사고에서 시작되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 때문에 여성들은 바깥에서의 직장활동

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도 전담해야 하는 이중의 노고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슈퍼우먼’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강복례의 「직장장의 하루」(1992)는 오늘날 북한 여성이 겪고 있는 이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직장장으로 일하면서 대학에 나가는 남편과 자식을 돌보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한 중년 여성의 내면적 갈등을 다루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하여 오늘날 북한의 남성주의에서 비롯되는 여성 억압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결혼관에서도 드러나는데 정현철의 「삶의 향기」(1991)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여자는 남편을 잘 내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고 믿고 아들에게도 그러한 여자를 구할 것을 권하는 아버지와 부부는 이상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하려고 하는 아들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가부장적 억압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어 결코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관료주의를 다룬 작품

북한의 관료주의는 그 성격에 따라 구관료주의와 신관료주의로 나뉘어진다. 구 관료주의는 북한 국가가 성립하면서부터 제기되어온 것으로 이 원인은 대부분 구제도의 잔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는 구관료주의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관료주의가 대두하였는데, 노동자와 농민 출신으로 현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가졌던 진취성과 혁명성을 상실하면서 사무실의 책상과 소파에서 자신의 지위와 가족의 안위를 우선하고 일반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군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 농민 출신이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 구제도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시점에 나타나기 때문에 낡은 과거 제도의 잔재 탓으로 돌릴 수는 없기에 이전의 관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현대관료주의’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 현대 관료주의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한 사회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한층 심각하여졌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1999년에 나온 김문창의 『열망』이다. 이 작품에서는 큰 기업소의 당 책임비서까지도 부분적으로 관료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될 정도인데 이는 과거의 관료주의 비판의 작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재 북한 사회에서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심한 비판을 받는 부총국장 양리찬의 집안은 냉장고 안이 온통 외제 상품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또한 그가 기업소에 출장 나와서 노동자들의 반찬인 다시마로 만든 냉국과 풋배추김치는 먹지 않고 자기가 싸온 반찬인 소고기, 돼지고기, 가재미튀김, 새우만을 먹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현재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한층 사회적으로 예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과 유리된 관료화된 간부에 대한 비판이 북한 내부의 민주주의의 진전인지 아니면 일시적 책임전가의 양상인지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18. 교육현장을 다룬 작품

1980년대 이후의 북한소설은 그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교육 현실은 그 중의 한 가지 소재였다. 상투적 갈등을 넘어서 구체적인 교육현실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이들 작품은 이념의 참교육을 다룬 소설과 엇비슷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북의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상순의 『나의 교단』은 사회주의적 경쟁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민학교의 두 선생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현인순 교사는 새롭게 담임을 맡은 반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정성을 다하지만 학생 성적 평가에서는 항상 뒤쳐진다. 태일처럼 말썽을 피우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인순 교사는 그 때문에 특별히 태일을 나무란다는든가 욕박지르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 스스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든다. 실적을 올리는 데 여념이 없는 교장 선생님은 이런 현인순 교사를 질책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태일은 온갖 난관 끝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를 배워가기 시작하고 학급성적도 오르기 시작한다.

이에 반해 정선옥 교사는 주입식 교육에 바탕을 둔 채 강제와 위협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그의 반은 다른 반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고 교장 선생은 이러한 것을 칭찬한다. 이에 고무받은 정선옥 교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위의 어떤 충고도 듣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밀고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주입식 방법은 결국 문제를 야기시켜 반에서 1등을 하던 별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정선옥은 현인순 교사의 지칠 줄 모르는 도움에 힘입어 차츰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한다. 정선옥 교사가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명예를 높이겠다고 생각하는 교장 선생의 잘못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은 스스로는 학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이 없이 단지 경쟁에 이기겠다는 일념만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 작품은 경쟁 때문에 교육이 주입식으로 되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고갈되는 이북의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 대목에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등장하게 만든다는든가, 현인순 교사와 정선옥 교사의 대립을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북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비판하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19.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

북한의 사회와 문학에서 세대 담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세대들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였다. 지주 소작관계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보면서 기존의 세대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기에 문학 등에서 과거 일제하 시절을 잘 재현해냄으로써 젊은이들에게 교양을 주려고 하였고 이러한 작품들이 다루는 대상은 일제시대 뿐만 아니라 해방직후, 전쟁, 그리고 전후의 천리마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1985년에 나온 『세대』(김삼복)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바이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아바이 몸에 있는 전쟁의 상처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작품의 행간에 드러

나는, 현실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시대적 감각의 차이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세대 담론은 관료주의와 보수주의에 물든 기성세대와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가능성을 가진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도 드러나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북한 사회가 정체 되고 그 원인으로 현재 간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안주가 거론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사회에 편입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다. 젊은 대학생들의 3대혁명 소조운동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시기에 나온 작품들이 대부분 보수주의에 물든 기성세대와 진취성을 띠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겪는 곤란의 주원인인 관료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때문지 않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0. ‘불멸의 역사 총서’란 무엇인가

‘불멸의 역사 총서’는 1925년부터 1939년에 이르기까지의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운동을 소설화한 것이다. 주체문학이 성립된 직후인 1967년부터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소설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가 이 작품의 규모 상 한 두 작가가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한다고 결정나면서 시기별로 나누어 소설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1969년 4.15 창작단이 조직되었고 여기에는 천세봉을 비롯하여 석윤기, 권정웅 등이 참가하였다. 1972년 권정웅이 쓴 『1932』가 첫 작품으로 나왔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나왔는데 다루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땃은 올랐다』	1925년초-1926년말	1982	김정
2. 『혁명의 려명』	1927년-1928년	1973	천세봉
3. 『은하수』	1929년 가을-1930년 6월	1982	천세봉
4. 『대지는 푸르다』	1930년-1931년	1981	석윤기
5. 『봄우뢰』	1931년 9월-1932년 4월 25일	1984	석윤기
6. 『1932년』	1932년 4월-1933년초	1972	권정웅
7. 『근거지의 봄』	1933년-1934년	1981	리종렬
8. 『혈로』	1934년 10월초-1936년 봄	1988	박유학
9. 『백두산 기슭』	1936년 봄	1978	현승걸
10. 『압록강』	1936년-1937년 여름	1983	최학수
11. 『위대한 사랑』	1937년 여름	1987	최창학
12. 『잊지 못할 겨울』	1937년 가을-1938년 봄	1984	진재환
13. 『고난의 행군』	1938년 11월-1939년 4월	1976	석윤기
14. 『두만강 지구』	1939년 여름	1980	석윤기
15. 『준엄한 전구』	1939년-1940년 3월 25일	1981	김병훈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박유학의 『혈로』로서 1988년에 출판되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작품화되었다. 이 작품을 끝으로 일제하 항일운동에 대한 소설화는 끝났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나온 이후 해방 후부터 사망 시까지의 김일성의 활동을 소설화할 것에 대

한 논의가 뒤따르면서 이전의 것을 ‘불멸의 역사 총서(해방 전 편)’이라고 했고 이후의 것을 ‘불멸의 역사 총서(해방 후 편)’이라고 명명하였다. 해방 전 편 중에서 마지막 권에 나온 1988년에 해방 후 편 첫 작품으로 역시 권정웅이 집필한 『빛나는 아침』이 출판되었다. 이후 해방 후 편은 현재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

21. 6.15민족문학인협회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문학조직으로 2006년 10월에 발족하였다. 고은, 황석영을 비롯한 남쪽의 문학인들은 그 동안 남북의 문학가들 사이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남북 작가들의 본격적인 회합을 제기하였다. 북의 작가들이 이에 호응하여 ‘6.15실천을 위한 남북 작가대회’가 2005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분단 60년 만에 이루어진 이 대회에서 남북의 작가들은 두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하나는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위하여 상설적인 조직인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조직의 기관지로 {통일문학}을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작가들 사이의 논의 끝에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에 세부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고, 2006년 10월 금강산에서 결성대회를 하였다. 이 날 채택된 규약에서는 1)협회는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줄 6.15 공동선언을 문학활동의 기본정신으로 삼는다. 2)은 거래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위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과 문학활동을 해나간다. 3)협회는 거래의 고유한 민족성을 계승발전시키며 민족문화전통과 민족의 우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린다. 4)협회는 모든 민족문학인들을 망라하여 민족문학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한다. 5)협회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문학조직 및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발전시킨다는 5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6.15민족문학인협회는 결성 대회 직후 첫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이후 몇 차례에 걸친 편집회의를 통하여 기관지 통일문학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2008년 2월 『통일문학』 창간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잡지는 기존에 남북에서 독자적으로 출판되었던 『통일문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남북이 공히 만드는 명실공히 통일문학 잡지이다. 창간호에는 남북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동포작가들의 작품도 실려 있다. 일년에 두 번 발간하기도 되어 있는 이 잡지는 남북화해의 산물로서 이후 문학적 통합의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북한의 음악

민 경 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교수)

1. 음악예술론

북한의 음악예술론은 한마디로 ‘주체음악론’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주체음악론’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김정일이 집대성하여 1991년 7월에 편찬한 『음악예술론』이란 책에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예술론』은 북한음악의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음악가들은 이에 입각하여 음악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음악예술론』에 따르면, ‘주체음악’이란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이고, 그 내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담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형식에 있어서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맞는 ‘인민성’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에서의 주체 확립의 본질적 요구로는 “조선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 방침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워, 민족 음악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혁명가극과 민족가극을 발전시켰고, 발성법을 바꾸었고, 전통악기를 대대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주체적 관현악법’, ‘주체적 발성법’, ‘주체적 편곡법’ 등과 같은 독창적인 연주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민요를 중심으로한 여러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고 또 민족 음악을 발전시켰다.

그런 한편,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에는 창작론과 연주론 등 음악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창작 분야에 있어서는 “음악은 선율의 예술이다”, “절가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이다”, “악기편성에서 기본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는 것이다”, “편곡은 창작이다”,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음악을 창작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과 함께, 연주 분야에 있어서는, “연주는 창조의 예술이다”, “연주에서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을 옹기 구현하여야 한다”, “연주에서 개성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연주는 정열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주가는 창조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지휘자는 악단의 사령관이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체음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의 구현’이라는 목적성과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북한의 음악가들은 이 방침에 따라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음악 역시 이 범위 안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음악정치

북한음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정치적 민감성’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음악은 정치사상적 무기로써 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음악이 정치성을 띠고 또 음악이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음악정치’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말을 둘러싼 배경과 의미가 새삼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음악정치’란 말은 2000년 2월 7일 평양에서 열린 인민무력성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집회에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하여 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토론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한 우리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악정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김정일동지의 음악정치가 가져온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음악정치’란 용어는, 90년대 초에 등장한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90년대 말에 등장한 ‘선군정치’와 ‘과학중시정치’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음악을 통해 당면한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향해 매진해나간다”는 일종의 김정일 식의 통치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음악정치에 관해 언급해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김정일이 음악을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고 음악을 통해 전체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그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왔다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음악은 때로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 톤의 식량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음악으로 생산을 독려하는 경제선동방식을 음악정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을 노랫말에 담아 전하는 것을 음악정치의 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 연설 대신 하는 공연도 음악정치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에서 늘 견지해 온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호화’, ‘개념화’, ‘체계화’ ‘논리화’하였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그 개념은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데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 즉, 현재 북한은 음악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의 통치방식과는 차별화 된 논리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에 의해 온갖 시련과 난관이 극복되고 강성부흥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적 의미의 통치 구호 중의 하나가 ‘음악정치’라는 말로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적 문예사상과 김정일의 주체적 문예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면서, 북한의 음악을 관장 및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이다.

조선음악가동맹은 광복 직후에 생긴 ‘평남지구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모체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조선음악건설동맹’(1946년 3월 25일 - 1946년 10월 10일), ‘북조선음악동맹’(1946년 10월 11일 - 1951년 3월 5일), ‘조선음악동맹’(1951년 3월 12일 - 1953년 9월 28일), ‘조선작곡가동맹’(1953년 9월 28 - 1961년 3월), ‘조선음악가동맹’(1961년 3월 2일 - 현재)의 순으로 이어진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약칭 ‘문예총’)의 산하단체이며, 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작곡분과위원회, 성악분과위원회, 조선악분과위원회, 현대음악연주분과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아동음악분과위원회, 가요분과위원회, 극음악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와 민족음악연구소 그리고 각 도 또는 직할시에 지부가 있다.

이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음악예술활동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둘째 혁명적 문예전통을 이어받아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셋째 동맹원들을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 넷째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음악의 풍부한 유산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 음악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다섯째 음악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현실연구를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작품들을 창작형상하도록 한다, 여섯째 주체의 창작지도체계의 요구에 따라 동맹원들의 음악예술창작활동을 지도하며 음악창작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업들을 조직한다, 일곱째 음악예술의 성과들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인다, 여덟째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음악가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아홉째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토론회를 비롯하여 음악가들의 사상미학적, 기술실무적인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을 조직하여 교양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내 보내며 작품평가 사업도 조직 진행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음악가동맹은 사회단체이지만, 음악가들의 권리옹호와 복지증진이라는 개념의 사회단체가 아니라 당 정책 실현을 위해 조직·동원되는 즉, “예술은 당에 속해야 된다”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에 따른 사회단체이다. 당은 운영경비를 일체 제공하는 반면 조선음악가동맹은 당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범주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유일한 음악단체로 북한의 음악을 관장 및 주도해 나가고 있는 조선음악가동맹은 주체적 문예방침을 음악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북한 음악의 시대별 변천사

북한의 음악사는 이른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결성된 해인 1926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대략 8기로 나뉘어진다.

제1기는 1926년부터 1945년 8월까지이고, ‘항일무장 투쟁시기의 음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민요와 혁명가요가 등장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북한음악의 뿌리라고 보고 있다.

제2기는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까지이고, ‘평화적 건설시기의 조선음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당성·인민성·계급성이라고 하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을 정책화하여 그것을 음악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 시기의 음악은 뚜렷한 사상적 지향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강력한 호소성과 선동성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제3기는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이고,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조선음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모든 음악 정책과 활동이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대부분의 음악들이 전시음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제4기는 1953년 7월부터 1961년 9월까지이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의

조선음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음악이 재정립된 시기로, 악기 개량이 시작되었고 창법과 발성법이 바뀌었으며, 모든 악기의 조율법이 서양식 12평균율로 통일이 되었다.

제5기는 1961년 9월부터 1966년 10월까지이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조선음악(1)’로 명명하고 있다. 음악으로 천리마 기수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형상을 만들고 또 음악에서 ‘주체’를 세우고, 부르주아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군중음악예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제6기는 1966년부터 1970년 11월까지이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조선음악(2)’라고 부르고 있다. 이른바 음악에서도 ‘혁명’이 단행된 시기로, 모든 음악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노동당이 제시한 주체적 문예방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음악은 ‘당의 유일사상 체제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요구에 맞는 음악예술의 전면적 혁명화’라는 방침 아래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제7기는 1970년 이후부터 김일성 사망까지로,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조선음악(3)’으로 명명하고 있다. 모든 음악 활동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실현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북한이 사랑하는 <피바다>를 비롯한 5대 혁명 가곡이 만들어졌고, 전통악기의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곡·영화·무용 등에서 극적 줄거리를 음악적으로 이끌어 가는 일종의 합창형태인 ‘방창’ 제도가 생겼고,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막이 없어지고 대신 흐름식으로 바뀌었다.

제8기는 김정일 등장 이후 오늘날까지이며, 크게 전 시대에 만들어진 ‘주체음악론’을 계승·발전·구체화시킨 것을 주축으로 하면서 미비하나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미비한 변화로는, 창작물의 중심 주제를 김일성 찬양과 인민들의 노동계급화 및 혁명화에서 김정일체제 보위의식 함양으로 옮긴 점,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야 한다면서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인민들의 생활감정이나 연애 감정을 표현한 노래들이 등장하였다는 점, 전통음악의 발굴 및 원형보존에 관한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 종래에는 부르주아음악이라고 배제되었던 궁중음악이나 정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점, 문화정서사업의 일환으로 화면반주음악실(노래방)이 등장하였다는 점,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대중가요가 새롭게 등장을 하여 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국가

일반적으로 ‘국가’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그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구심적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노래를 의미한다. 민족의 정신과 이상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한 나라의 국가는 의식음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의 표상이 되며 또 상징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북한의 국가 역시 다른 나라들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공식적인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음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의 이름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애국가>이다. 박세영이 작사를 하였고, 김원균이 작곡을 하였으며 1947년에 국가로 제정되었다. 음악적으로는 내림 나장조, 4분의 4박자, 못갓춘마디의 어린내기로 시작하며, 24마디, A-B-B 구조의 세도막형식으로 되어 있다.

1947년 이전까지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의 선율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국가로 불렀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이 보수적으로 인민들에게 맞지 않고, 곡도 남의 나라 것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새 민주조국건설에 나선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라”는 김일성의 지시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졌다.

가사는 2절까지 되어있는데, 1절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고, 2절은 근로인민대중의 뜻으로 한없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절의 가사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반만년 오랜 역사에/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로 되어 있다.

‘약간 느리고 장엄하게’게 부르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곡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장엄하다. 부드러운 선율이 전개되는 가운데 내면적인 강렬함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곡 전체의 특징이다.

6. 음악소조

북한의 음악 활동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소조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소조’란 일종의 ‘동아리’, ‘클럽’, ‘서클’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음악소조’란 일반적으로 음악을 취미나 특기로 하는 아마추어들의 조직을 말한다. 1개 소조는 보통 20-30명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나 직장·마을·군대·협동 농장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에서는 대개 음악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음악소조는 개개인의 음악적 취미와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인민들의 문화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주체음악론’에 입각한 음악활동과 당 정책이나 국가 정책을 선전 선동하거나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위문하여 생산력을 높이게 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음악소조의 활동은 단순한 취미 생활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자체 행사를 비롯하여, 직장 단위, 공장 기업소 단위, 협동 농장 단위, 군·도 단위,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각종 경연대회와 노동자 예술 축전, 농민 예술 축전, 인민군 군무자 예술 축전, 학생 소년 예술 축전 등 각종 축전에 참가하여 그 기량을 겨루기 때문에 수준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자나 농민 출신의 신인 작곡가와 연주를 배출하기도 하며, 소조원이 만든 새로운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기도 한다.

그런 한편, 각 생산 단위별로 음악 소조원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기동예술선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적은 인원과 기타·아코디언과 같은 이동하기 쉬운 간편한 대중 악기를 가지고 생산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경제 과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직체로, 이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며 중간 중간에 노래와 춤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공연을 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

이외에도 ‘문학소조’, ‘미술소조’, ‘무용소조’, ‘연극소조’, ‘사진소조’ 등과 같은 ‘문예소조’가 있으며, 이들 소조들은, 전문가와 아마추어,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과 직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예술을 대중화하는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7. 음악형식

북한 음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한도막형식·작은 세도막형식·두도막형식·세도막형식으로 된 ‘가요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규칙적인 4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하고 있으며, 기·승·전·결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민요, 혁명가요, 송가, 당정책풀이가요, 혁명가극, 군중가요, 생활 가요 등 가사가 있는 성악곡은 물론이고 가사가 없는 기악곡도 가요형식으로 된 곡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북한의 기악곡은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요곡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 것을 기악곡 형식으로 다시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형식도 가요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북한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가형식’이다. 북한의 거의 모든 노래가 절가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절가형식이란 가요형식의 일종으로, 정형시 형태의 여러 개 절로 나누어진 가사를 하나의 완결된 곡조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부르도록 만든 것이며,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유절 형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1절, 2절, 3절 등 여러 절로 되어 있는 가요형식을 의미한다. 이 형식은 북한음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절가형식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절가는, 첫째 인민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하나이며, 둘째 간결한 구조 속에서 현실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내용을 풍부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서술적 가능성을 가진 세련되고 위력한 음악형식의 하나이며, 셋째 절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가사와 곡이 조화롭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며, 넷째 인민 대중에 의하여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과 윤후놀이와 같은 집단생활 속에서 창조되어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발전하여 온 인민의 노래형식이라는 것이며, 다섯째 인간의 내면 세계와 정서, 시대정신을 매우 훌륭하게 재현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 또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에 예민하게 작용하며 그들의 기분과 활동을 조절하고 통일시키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여섯째 음악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현시대는 절가의 시대이며 혁명의 새시대, 주체의 시대는 인민대중이 다 알아듣고 즐겨 부르는 전투적이며 통속적인 절가를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절가는 일반적으로 전렴과 후렴으로 되어 있는데, 전렴에 비하여 후렴이 정서적으로 폭이 더 넓고 고양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렴에서 제시된 사상과 감정이 후렴에서 긍정확인 되어 전렴의 물음에 후렴이 대답하거나 전렴의 설명을 후렴에서 결론을 짓고 사상의 본질을 천명하듯 한, 표현적 논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절가형식 즉 유절형식은 음악의 생산자인 작곡가나 수용자인 청중 모두에게 이미 알고 있는 ‘기존 형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작곡가들에게는 가사를 음악화하기 쉽다는 점과 함께 통일된 음악적 형식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청중들에게는 반복된 선율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 곡을 익힐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런 한편, 짧은 오선지 안에 긴 가사를 같은 선율에 담을 수 있는데, 반복된 선율은 가사를 외우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8. 개량악기

남한과 북한의 전통악기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원형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해

전통악기를 원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개량을 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량악기란 말 그대로 원래 악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악기의 구조와 형태·음량·음색·음역 등이 한층 더 좋아지도록 바꾼 악기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전통악기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결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음악을 현대화하고 또 동시대 인민들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개량하였다.

악기의 개량 사업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1963년에 개최된 민족악기전람회에서 이미 150여 점의 복구개량 및 창안 제작된 악기들을 선 보였고,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악기가 개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래의 악기로부터 여러 가지 음높이의 악기들을 파생시켜 고음단소·고음저대 등과 같은 고음 악기와, 대피리·저피리 등과 같은 저음악기들 만들었고, 장새납과 같은 관현악용 새납도 만들었다. 그리고 두 줄 악기였던 해금을 4줄로 바꾸고, 소해금·중해금·대해금·저해금 등과 같은 여러 종류로 만들었고, 가야금을 종래의 7현에서 21현으로 바꾸었으며, 양금의 음배열을 연주에 편리하게 바꾸었다. 그런 한편 ‘옥류금’과 ‘어은금’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창안·제작하였고, 일정한 음이 나오는 음울 타악기를 만들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악기의 개량은 표현능력을 확대하는 면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 결과 음구와 음역이 확대되었고 음량이 풍부하게 되었으며 음색이 맑고 부드러워졌다. 그와 함께 음울적인 면에서도, 한 옥타브를 똑같은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서양의 12평균율에 맞게 개조하여, 반음의 이행을 자유롭게 하였고 앙상블의 효과를 높였으며 서양악기와의 협연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악기 고유의 음색이 많이 사라졌고, 우리 국악만이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도 변하게 되었다. 악기의 개량과 조율체계의 변화란 항상 음의 합리성이라는 측면과 전통 음감각의 고수라는 측면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북한은 결국 음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 따라 악기를 개량한 것이다.

9. 음악가 양성

북한에서는 크게 조기교육, 수재교육, 전문교육을 통하여 음악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하여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조기교육은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을 일찍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뛰어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북한에서는 조기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동시기가 인생에서 음악적 재능발전이 가장 빠른 시기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음악연주기량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기교육은 단계별로 마련된 전공기초기술교육을 비롯하여, 섬세한 감정과 음악적 정서를 키워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로 유치원 특별교육의 형태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경상유치원, 대동문유치원, 오탄유치원, 국제부녀절50주년유치원, 창광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음악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재교육은 뛰어난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우수한 예술적 기량을 가진 음악인으로 키우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발인데, 수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추천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누구나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직접 가르칠 교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단계를 거쳐 선정을 한다. 수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재교육을 담당하는 평양음악무용대학 특설학부에 입학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 한편 음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기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대표적인 음악·무용 전문교육기관인 평양음악무용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평양예술학원을 비롯하여 직할시별·도별로 설치된 각종 ‘예술학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음악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7살에 입학하는 인민반 4년, 예비반 3년, 전문반 3년(예비반과 전문반 6년은 일반학제의 고등중학교 6년에 해당), 학부 4년 총 14년 과정(전공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에 따라 민족악기를 전공으로 하는 민족기악학부, 서양악기를 전공으로 하는 기악학부, 작곡학부, 성악학부, 특설학부가 있으며, 성악학부의 경우 민족성악강좌와 양악성악강좌로 나뉘어져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주로 중앙의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과정인 ‘박사원과정’에 진학을 하기도 한다.

예술학원은, 전국의 예술화와 예술의 대중화 방침에 의해 각 도마다 세워진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예비반 2년·전문반 3년·고등반 3년으로 모두 8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졸업을 하면 주로 지방의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게된다.

음악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이 있다. 교원대학은 3년제로 유치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각 도·직할시에 1개씩 총 15개가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고등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각 지역에 10개가 분포되어 있다.

모든 교육기관의 피교육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통하여 선발을 하며 또 시험을 통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급의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에 정해진 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10. 송가 및 수령형상음악

북한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가요곡의 장르 중에 ‘송가’와 ‘수령형상음악’이라는 것이 있다. 송가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조국 등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부르는 노래이며, 수령형상음악이란 송가의 일종으로 김일성 사후에 등장한 것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송가는 일반적으로 장엄하며 밝고 열정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첫째 김일성을 찬양하고 흠모한 것, 둘째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를 찬양한 것, 셋째 조선노동당을 찬양한 것 등이 있다. 송가의 음악적 특징이나 양식적 특징은 장엄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가요곡들과 비슷하나, 내용면에서는 혁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가요를 대표한다.

송가의 조건으로는 높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가사는 반드시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 또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송가는 음악으로 북한의 주민을 교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송가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조선의 별〉, 〈애국가〉 등이 있다.

한편 김일성 사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수령형상음악’인데, 이는 송가의 일종으로 내용적으

로는, ‘수령의 활동과 풍모를 전적으로 받아 안고 노래하는 것’, ‘수령의 혁명활동역사에 충만 되어 있는 위대한 생활을 개별화하는 것’, ‘생활 속에서 찬양대상을 탐구하고 보여 주는 것’ 등이 있다. 즉, 김일성 사후에 등장한 노래 가운데 김일성의 업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령형상음악’을 작곡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원칙으로 ‘붉은기 정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 ‘붉은기 정신’을 반영할 때만이 ‘전인민적 송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붉은기정신’이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혁명가요의 정신을 의미한다. 이른바 붉은기 정신을 반영한 수령형상작품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곡으로는 피바다 가극단 소속의 작곡가가 창작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 등이 있다

11. 전통음악의 현황

남한에서는 ‘전통음악’과 ‘국악’이란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말로 ‘민족음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음악(국악)과 민족음악은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말하는 전통음악은 우리 민족의 음악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범주에 정악과 민속악 모두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음악은 “민요와 그에 기초한 여러 가지 연주형식, 자기 나라의 민족음악형식과 함께 그것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음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전통음악과 국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민족음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음악의 범주에는 정악이 부르조아 음악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되었고,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민요를 중심으로 한 민속악을 사회주의 내용에 부합되고 동시대 인민의 정서에 맞게 새롭게 만든 것을 ‘민족음악’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음악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요를 모든 음악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끊임없이 민요를 중심으로 여러 형식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민요를 바탕으로 창극 형식을 발전시키고, 민족적 감정에 맞는 발성법을 개발하고, 수 많은 전통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을 하였다. 그리고 ‘우아함’, ‘아름다움’, ‘유연함’을 전통 음악의 특성으로 보고 이를 보전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역시 민요이다. 오래 전부터 발굴·정리를 하여 이제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민요를 모두 수집했다고 한다. 그리고 발굴한 것을 『민요연구자료집』이란 이름의 9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여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악기 개량 작업으로 정악에 쓰이는 악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량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밖에도 〈삼현육각〉, 〈사당패 음악〉, 〈농악〉, 〈창극〉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때 전문음악인들의 음악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산조〉와 인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격이 되었던 〈판소리〉도 전통적 민족음악 유산의 보존·연구라는 차원과 음악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을 하고 있다.

그런 한편 최근에 들어 전통음악의 발굴 및 원형보존에 관한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 종래에는 부르주아음악이라고 배제되었던 궁중음악이나 정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고전음악과 춤 250여편을 발굴 편곡하여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구려의 〈동동〉·〈삿대춤〉, 백제의 〈정읍사〉, 신라의 〈처용가〉,

가야의 〈다스름〉, 발해의 〈용춤〉·〈룽직짜는 춤〉, 고려의 〈청산별곡〉·〈방아타령〉 등이 있다. 그리고 정악과 궁중음악에도 인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민족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전통음악을 민족악으로만 제한시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악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자리를 잡고 있다. 참고적으로 최근 들어 남한에서는 전통음악을 북한과 같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즉, 과거에는 남한의 전통음악을 북한에서는 복고주의와 형식주의라고 비판을 하였고, 역으로 남한에서는 주체성이 상실되었고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북한의 민족음악을 비판하여 왔다. 그런데 남북 모두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 진행 방향은 바로 ‘남북음악의 공통분모 확대’라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12. 음악단, 악단

북한을 대표하는 악단으로는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보천보 전자악단 그리고 만수대 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왕재산 경음악단, 방송 예술단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악을 위주로 하고 기악작품을 전문으로 창작 및 연주하는 중앙예술단체로 1946년 8월 중앙교향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였다. 그 후 국립교향악단(47년), 국립예술극장 교향악단(48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교향악단(70년), 피바다가극단 교향악단(73) 등을 거쳐 1980년 독자적인 국립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며, 단원수는 약 180명으로 서울 공연 때 지휘를 한 바 있는 김병화가 수석 책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은 90년대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창작 및 연주단체이며, 북한 최초의 팝음악 앙상블이기도하다. 1985년 6월 김정일의 지시로 창단 되었으며, 가요와 민요에 전자악기의 음향과 현대적인 서구의 팝음악적 요소를 도입시켜 시대성이 강한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노래들을 대량생산해 내고 있다. 90년대에 들어 북한식의 새로운 가요창작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00여장의 CD를 제작·발매하였으며, 해외공연의 경험도 많다. 문예총 부위원장인 최상근을 단장으로 15명의 작곡가, 연주가, 가수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휘파람〉을 부른 전해영이 소속되어 있다.

만수대 예술단은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단체이다. 1969년에 창립이 되었으며,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공훈남성중창조, 공훈여성중창조, 여성기악중주조, 무용조, 관현악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음악가와 무용가 약 3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외국공연의 경험이 많으며, 민족악기에 서양악기를 결합한 주체적 배합관현악을 완성하였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창조공연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피바다 가극단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 단체로 주로 가극을 창작 및 연주하고 있다. 1971년 7월에 창립되었으며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창작 공연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피바다〉 등과 같은 북한에서 자랑하는 ‘5대 혁명가극’을 창작·공연하였고 단원 수는 약 300여 명에 이른다.

왕재산 경음악단은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으로 1983년에 결성되었다. 16명의 전속악단과 6

명의 가수 및 16명의 무용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김정일이 주최하는 당정고위간부들의 모임이나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한다. 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방북한 남측대표단을 위한 연회에서 두 차례 공연한 바 있다.

방송예술단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직속의 예술단으로, 1949년에 창립되었다. 합창단, 관현악단, 가야금병창단, 민족관현악단, 음악지휘부와 극단, 문예효과편집부, 무대예술부, 연출부로 구성되어 있다.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예술 창조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무대공연도 자주 하고 있다.

13. 북한 인민의 애창가요

현재 북한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곡은 2002년 4월 8일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황진영 작사·작곡의 〈우리는 하나〉이다. 발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곡은 행진곡 풍의 가요곡으로 밝고 힘차며 평이하고 통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주제음악 또는 북한에서 주도하는 통일 행사의 주제곡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반드시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하나〉 못지 않고 애창이 되고 있는 곡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인 〈강성 부흥아리랑〉이다. 김정일이 이끄는 조선은 낭만과 환희에 넘쳐흐르고 강성 부흥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윤두근이 작사를 하였고 안정호가 작곡을 하였으며, 모두 3절로 되어 있는데, 제1절은 무릉도원을 꿈꾸며 흥하는 나라를, 제2절은 선군정치를, 제3절은 태양조국을 노래하고 있다. 이 곡을 들은 김정일은 “현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가사에 민요풍의 음조를 붙이였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면 흥취가 날 것이다”라고 호평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김정일 시대의 걸작”, “21세기의 첫 아리랑”, “흥하는 김정일 시대를 노래한 민족 아리랑”, “선군혁명시대의 본보기작”, “위대한 시대의 아리랑으로 천만년 전해질 조국변영찬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명실공히 21세기 북한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다.

이에 앞서 90년대 초부터 갑자기 대중가요풍의 노래가 등장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1992년 ‘제2차 문예혁명’에서 제기된, “인민이 누구나 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는 명곡과 생활 철학이 담겨있고 정서가 풍만하고 통속성이 구현된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하라”는 창작 방침에 의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대중가요풍의 생활가요를 비롯해 연애감정을 담은 노래들이 등장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상성만을 강조하는 북한의 음악에서 이러한 노래들이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등장 이후,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를 ‘밝고 명랑한 사회’로 묘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것들이 일부 허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래들은 빠른 템포와 서구의 팝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주민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북한식 대중가요 제1호는 역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휘파람〉이며, 이 곡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도 대중가요라는 장르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휘파람〉은 조기천이 작사하고 이종오가 작곡을 하였으며, 보천보전자악단이 연주하고, 전해영이 노래를 불렀다. 북한에서는 이곡을 “청년들의 애정 세계를 노래한 생활적이며 대중적인 통속가요”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적이며 통속적인 소박한 가사와 경쾌한 춤곡 양상의 리듬, 그리고 친근감이 있는

선율로 인해 북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표적인 북한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대표적인 애창가요로는 〈처녀시절〉, 〈나의 별〉, 〈사랑하시라〉, 〈도시처녀 시집와요〉, 〈사랑의 미소〉, 〈임진강〉, 〈반갑습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여성은 꽃이라네〉, 〈아직은 잘못해〉, 〈우등불〉, 〈준마처녀〉, 〈심장에 남는 사람〉, 〈축복하노라〉, 〈나의 어머니〉 등이 있다.

‘북한식 대중가요’ 또는 ‘사회주의적 대중가요’로 명명할 수 있는 이러한 노래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이유는 그 동안 사상성만 강조하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자본주의의 대중가요와 같이 상업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 음악의 변화를 촉진시킬 촉매로써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4. 북한의 인기가수

북한의 가수들도 팬데터와 열렬 팬들의 사인 공세로 말미암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곤 한다. 남한과 다른 점은 최정상급의 인기 가수들 대부분이 여자라는 점일 뿐이다. 북한의 최정상급 인기 가수로는 보천보 전자악단 소속의 전해영, 김광숙, 이경숙, 이분희, 조금화 등과 염청, 조청미, 최삼숙 등을 꼽을 수 있다

〈휘파람〉를 불러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전해영은 뛰어난 가창력에다 빼어난 미모 그리고 다양한 율동과 밝은 표정으로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렬한 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 탄광노동자인 아버지와 피복공장 합창부원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유치원에 다니던 6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인민학교 시절 전국학생예술축전에서 연이어 3회나 1위에 입상했다. 1983년 8월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았으며, 1988년 3월 북한 최고의 보컬그룹인 보천보전자악단에 들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992년 예술인들의 최고 영예인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가요 이외에도 동요나 민요, 외국 노래, 분단 이전의 대중가요 등 레퍼토리가 풍부하며, 10년 이상 북한 최고의 인기 가수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히트곡으로는 〈휘파람〉 이외에도 〈처녀시절〉, 〈새별〉, 〈기다렸습니다〉 등이 있다.

〈도시처녀 시집와요〉를 불러 유명해진 김광숙은 미모와 미성 그리고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무대 매너가 일품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 생으로, 인민배우이며 보천보 전자악단 소속으로 있다. 히트곡으로는 〈도시처녀 시집와요〉 이외에도 〈푸른 버드나무〉,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미소〉 등이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출신의 가수 조청미는 2002년 평양에서 개최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에서 독창자로 등장하여 더욱 더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57년 생으로 원래는 성악가(메조 소프라노) 출신이며 피바다가극단 독창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가극 〈피바다〉에 150여 차례 출연한 바 있다. 1987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톨루즈국제음악콩쿨에서 3위로 입상하였고,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곡상의 요구를 훌륭히 살려내는 풍부한 형상력과 재치있는 기교를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민배우이며, 현재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북한 가요 〈림진강〉을 부르기도 하였다.

영화 및 방송음악단 소속인 최삼숙은 〈사랑 사랑 내사랑〉, 〈길동무〉, 〈아 내조국〉,

〈기쁨으로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등을 불러 인기를 얻었다. 민요가수이지만 가요에서 가곡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최정상급 인기가수로는 〈반갑습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부른 이경숙과 〈여성은 꽃이라네〉를 부른 이분희, 〈아직은 잘못해〉, 〈우등불〉을 부른 조금화, 〈3대 자랑가〉를 부른 염청 등이 있다.

15. 북한에서 인기 있는 남한노래

북한에서는 알게 모르게 남한의 노래들이 애창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애창되고 있는 남한의 가요는 최진희가 부른 〈사랑의 미로〉이다.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을 없을 정도이며, 특히 김정일의 애창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가사는 약간 바뀌었는데 다음과 같다.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자주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바친 그댈 못잊어/ 그대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미로〉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남한의 노래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바람 바람 바람〉, 〈독도는 우리 땅〉, 〈그때 그 사람〉, 〈아침이슬〉이며,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너 나 좋아해〉, 〈이별〉, 〈동백아가씨〉 등도 즐겨 부르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 가요뿐만 아니라 외국 가요의 반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중가요가 상당수 유입되었다. 그 경로는 첫째 연변에서 유행을 하거나 연변을 통하여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인데, 이런 노래들은 대개 ‘연변가요’라는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중국 보따리상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 무역종사원, 외교관들이 남한 가요가 수록된 테이프들을 반입·전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남한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비밀리에 입과 입을 통하여 확산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민족과 운명』에 삽입돼 알려지게 되는 경우로, 〈그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남한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번째로는 북한에서 제작된 화면노래반주곡을 통하여 알려진 경우다. 〈아침이슬〉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 경우 역시 남한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 있는 윤이상연구소에서 발간한 『통일노래 100곡집』이란 노래집을 통하여 알려진 경우로,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시작하는 〈내 나라 내 겨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술아 술아〉 등이 있다. 이 경우도 역시 남한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징이라면, 중장년 층은 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이별〉, 〈동백아가씨〉와 같은 트로트와 발라드풍의 가요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그때 그 사람〉을, 젊은 층은 〈바람 바람 바람〉, 〈독도는 우리 땅〉,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와 같은 빠른 템포의 리듬감이 있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랑의 미로〉와 〈너 나 좋아해〉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있다.

16.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남과 북이 음악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남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따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많지만, 같이 불렀던 노래가 많았고, 같이 부르고 있는 노래도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점은, 그에 못지 않게 앞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남북이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는 분단 이전의 노래들뿐만 아니라 분단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도 상당수 있으며, 그 장르도 민요는 물론이고 동요에서 가곡·신민요·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요로는, 홍난파의 〈고향의 봄〉, 〈개구리〉, 〈낮에 나온 반달〉, 〈달맞이〉, 〈여름〉, 〈작은별〉, 〈풍당풍당〉, 〈하모니카〉, 〈햇별은 쨍쨍〉, 박태준의 〈가을밤〉, 〈오빠생각〉, 윤극영의 〈고기잡이〉 〈반달〉, 〈설날〉, 〈따오기〉, 권태호의 〈봄나들이〉, 정순철의 〈형제별〉, 〈작자궁〉, 안기영의 〈그리운 강남〉, 현제명의 〈가을〉, 〈고향생각〉, 박태현의 〈누가누가 잠자나〉, 김성도의 〈아기별〉 등이 있다.

가곡으로는, 나운영의 〈가려나〉, 홍난파의 〈봉선화〉, 〈그리움〉, 〈봄처녀〉, 〈사공의 노래〉, 〈사랑〉,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박태준의 〈동무생각〉, 안기영의 〈마의 태자〉, 〈작별〉, 임원식의 〈아무도 모르라고〉, 조두남의 〈선구자〉 등이 있다.

신민요로는, 이면상의 〈울산아가씨〉, 문호월의 〈노들강변〉, 김교성의 〈능수버들〉, 〈아리랑랑랑(봄이 오는 아리랑고개)〉, 김준영의 〈처녀총각〉, 형석기의 〈맹꽁이타령〉, 〈조선팔경가〉 등이 있다.

대중가요로는, 〈감격시대〉, 〈강남달〉, 〈꿈꾸는 백마강〉, 〈나그네 설음〉, 〈낙화유수〉, 〈눈물젖은 두만강〉, 〈목포는 향구이다〉, 〈목포의 눈물〉, 〈바다의 교향시〉, 〈번지없는 주막〉, 〈북극 오천키로〉, 〈불효자는 읍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사막의 한〉, 〈서귀포 70리〉, 〈선창〉, 〈애수의 소야곡〉, 〈울어라 쌍고동〉, 〈작사랑〉, 〈찔레꽃〉, 〈타향살이〉, 〈홍도야 울지 말아〉, 〈황성옛터〉, 〈희망가〉 등이 있다.

한편, 남북 분단 이후에 남한에서 만든 곡으로는, 〈사랑의 미로〉, 〈이별〉, 〈아파트〉, 〈언제라도 갈테야〉, 〈그때 그 사람〉, 〈아침이슬〉, 〈동백아가씨〉,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 바람 바람〉, 〈소양강처녀〉 〈우리의 소원〉, 〈님을 위한 행진곡〉, 〈술아 술아〉 등이 있고, 분단 이후에 남한에서 만든 가곡으로는 윤이상의 〈고풍의상〉, 〈달무리〉, 〈추천〉, 〈편지〉 등이 있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만든 곡으로는 〈휘파람〉, 〈반갑습니다〉 등이 있다.

남북한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 자체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어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민족적 정서를 찾을 수 있고,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질화된 민족 정서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과 민족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윤이상 음악연구소

우리 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를 꼽으라면 누구나 윤이상 선생을 꼽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특이하게도 남한(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을 기념하는 연구

소가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윤이상 음악연구소는 1984년 윤이상의 음악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이후 평양시 영광거리에 「윤이상 음악당」이 건립됨에 따라 장소를 동 음악당 내로 옮겼다. 「윤이상 음악당」은 김정일의 지시로 1991년 3월에 착공돼 1992년 10월에 개관을 하였으며, 1993년 3월 4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소속인원은 객원 연구원을 포함하여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음악당의 규모는 15층 건물로 연 건축면적은 1만 7천 미터제곱이고, 2개의 연주홀과 2백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0여개의 방은 「윤이상 음악연구소」 전속의 관현악단원들과 간부들이 사용하는 연습실과 휴게실 그리고 국제회의실 강의실, 음악 감상실, 녹음실, 자료문헌실, 타자실, 인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음악당의 개관 기념행사로 1992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윤이상 음악회와 사진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윤이상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이상음악회’는 윤이상의 작품과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로 연주되며, 연례적으로 음악회와 동시에 윤이상 음악연구토론회 및 통일음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이상 음악연구소는 처음에는 윤이상의 음악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후에 윤이상 음악의 연주와 연구를 비롯하여 인류음악 발전과 음악을 통한 조국통일 위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력투쟁을 위한 선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전통악보 200여 편을 발굴·정리하여 편찬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되어져서는 안 될 것은 윤이상 음악연구소의 해외 업무와 대남 업무이다. 즉 외국음악과 남한음악에 관한 정보수집서부터 자료 구입 및 비치, 분석, 연구,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동 연구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 발간되는 음악자료를 상당수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남한음악의 장단점을 비롯해 남한음악가들의 대북한음악관과 음악정책 그리고 음악가들의 성향까지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남북음악교류 회담과 실제로 있을 남북음악교류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일음악론과 남북음악교류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발성법과 창법

최근 우리는 북한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하고는 노래부르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어 북한의 발성법과 창법을 흉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발성법은 소리를 원만하게 내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라면 창법은 노래를 부르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북한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발성법은, ‘민족적 선율과 감정에 맞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 고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북한의 발성법은 무엇보다도 조선어의 발음법과 연관이 있으며, 좋은 조선말의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목이나 머리를 공명시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얼굴의 앞쪽으로 몰아서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고운 소리가 나고 또 가사의 발음이 정확히 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콧소리가 많이 섞여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고 소박하면서도 열정과 호소성이 강한 즉 걱정적 서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발성법을 ‘민성’ 또는 ‘피꼬리 발성법’이라고도 한다.

그런 한편 창법은 서도민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곱게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곡의 사상 정서적 내용과 가수의 개성적 특성을 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창법을 ‘주체적 창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남한의 민요창법에 비해서는 여성의 음역이 매우 높고 맑으며, 남자는 낮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19. 대표적인 음악가

북한의 음악을 개척한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작곡한 이면상(작곡), 김진영(지휘), 백고산(바이올린), 허재복(지휘), 김옥성(작곡), 김진명(서도창), 안기옥(가야금), 정남희(가야금), 조상선(명창) 등과 김원균(작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 중에서는 지휘자로 김병화·김일진·신경학·전정근·조정림·이진수·박정남을, 피아니스트로 민병만·안남식을, 바이올리니스트로 김성호를, 성악가로 이영옥(테너), 허광수(베이스), 최창림(베이스)을, 민족음악가로 김관보(서도민요가수)·김길화(옥류금 연주자)·김명득(민요가수)·김옥선(민요가수)·김용실(거문고연주자)·이자영(개량 가야금연주자)·박연숙(민요가수)·전동환(단소연주자)·전영남(대피리연주자)·최정희(민요가수)·최명천(장세납연주자)·박복희(민요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면상(1908-1989)은 오랫동안 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의 음악을 개척하였다. 북한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진영(1926-1989)은 만수대 예술단 지휘자로 있으면서 지휘분야를 개척하였고, 백고산(1930-1997)은 바이올린의 대가로 활동을 하였으며, 허재복(1931-1977)은 만수대예술단의 단장으로 있으면서 앙상블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 네 사람은 사망 후 ‘애국 열사의 능’에 묻힐 정도로 북한음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김옥성(1916-1965)은 북한의 대표적인 관현악과 합창곡인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를 작곡했고, 김진명(1913-1997)은 서도민요의 대가였으며, 안기옥(1894-1974)은 가야금의 대부였고, 정남희(1905-1988)는 가야금의 명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상선(1909-1983)은 창극분야를 개척하였다. 현재 북한 음악계의 제1인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의 국가를 작곡한 김원균(1917)이다.

한편 현역인 김병화(1935년생)는 국립교향악단 지휘자이며, 외국에서 윤이상의 교향곡과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지휘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시 지휘를 하였고 서울 공연에서도 지휘를 한 바 있다. 김일진(1956년생)은 만수대 예술단 지휘자 겸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로 1985년 카라얀 국제콩쿨에서 1등 없는 2등을 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학(1930년생)은 만수대 예술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정근(1952년생)은 피바다 가극단 지휘자로, 북한을 대표하는 여성 지휘자인 조정림(1940년생)은 만수대 예술단 지휘자로, 이진수(1932년생)는 피바다 가극단 지휘실장으로, 박정남(1942년생)은 윤이상 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병만(1936년생)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이며, 안남식(1935년생)은 여류 피아니스트로 국제 콩쿨에서 입상을 한 북한 연주자들의 피아노 반주를 거의 했다. 유명한 월북작곡가 안기영의 딸이기도 하다. 바이올린의 김성호(1956년생)는 1976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바이올린청년콩쿨에서 1등과 1978년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4등을 한 바 있다.

이영옥(1955년생)은, 이탈리아 엔나국제콩쿨에서 2등을 하였고, 현재 만수대 예술단 독창가수로 활동하면서 해외 공연 시 주로 독창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허광수(1960년생)는 1994년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3등을 하였고, 최창립(1934년생)은 1961년 조르제 에네스크 국제콩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관보(1921년생)는 서도민요부분의 제1인자이며 19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때 서울에서 독창과 혼성제창을 한 바 있다. 김길화(1956년생)는 19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때 서울에서 옥류금을 연주하여 화제가 된 주인공으로, 옥류금의 제1인자이다. 김명득(1942년생)은 수 차례에 걸친 해외 공연에서 절찬을 받은 바 있으며, 1985년 남북고향방문단 예술단의 일원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한 바 있다. 김옥선(1941년생)은 세계학생축전 독창 경연에서 금메달을 받은 바 있고, 주로 가극의 주인공 역을 많이 맡았으며, 해외공연도 여러 차례 하였다. 김용실(1940년생)은 대표적인 거문고연주가이며, 이자영(1949년생)은 대표적인 개량가야금연주가이다. 박연숙(1937년생)은 민속가극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전동환(1950년생)은 대표적인 단소연주자로,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때 서울에서 연주를 하였다. 전영남(1947년생)은 대피리연주자로 유명하며, 최명천(1940년생)은 장새납연주자로 1985년 남북고향방문단 예술단의 일원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한 바 있다.

20. 남북음악용어 비교

남과 북은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용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미는 같지만 명칭이 다른 음악용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남한의 용어)

가름소리표(잇단음표), 높이표(음자리표), 대보표(큰보표), 리가(붙임줄), 소리표(음표), 웅근소리표(온음표), 변음표(변화표), 조식(조), 대조(장조), 소조(단조), 연장부(페르마타), 마무리(종지), 대화음(장화음), 소화음(단화음), 돌이(옥타브), 주성(화성, 단성), 복성(대위, 다성), 소리맞추기(조율), 남성고음(테너), 남성중음(바리톤), 남성저음(베이스), 여성고음(소프라노), 여성중음(메조 소프라노), 여성저음(엘토),련곡(모음곡),련결곡형식(다악장형식),누르개(건반),사설노래(레시타티보),달림곡(푸가),민족음악(전통음악,국악),민족악기(전통악기,국악기),풍년가장단(굿거리장단),옹헤야장단 또는 안땅장단(단모리장단),양산도장단(세마치장단),긴모리장단(진양조장단)

이와 같이 남한의 음악용어는 한자어를 그대로 쓰거나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북한의 음악용어는 우리말로 풀어서 만든 것이나 노래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1. 남북음악교류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음악교류는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단 교환 공연’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1990년 10월 18일과 23일에 평양에서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 1990년 12월 9일과 10일에 서울에서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1998년 5월 평양에서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 1998년 11월 평양에서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1999년 12월 평양에서 ‘평화친선음악회’, 1999년 12월 평양에서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등이 개최되었다. 남북음악교류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총 10회도 안 되었지만 이후 본격화되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개최된 가장 대표적인 교류로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과 KBS 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을 들 수 있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이 2000년 8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서울에서 총 4차례의 공연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화답의 형식으로 KBS 교향악단이 2002년 9월 16일에서 22일 사이에 평양에서 공연을 가졌다. KBS의 뒤를 이어서는 MBC가 2002년 9월 27일과 29일 양일간 평양에서 ‘2002 MBC평양특별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23일에는 SBS 주최로 ‘광복 60주년 SBS 특별기획-조용필 평양 2005’공연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006년 4월 29일에는 윤이상평화재단의 주최로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으로 ‘윤이상 음악회’가 열렸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교류로는, 2001년 2월 남원시 춘향문화선양회 주최로 평양에서 개최된 창극 〈춘향전〉 공연, 2001년 4월과 2003년 4월에 있는 ‘김연자 평양공연’, 2001년 6월에 KBS-TV가 북에 가서 제작한 프로그램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의 방송,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북측 예술단의 공연과 아시안게임 응원단으로 온 북측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남북 공동으로 평양에서 개최한 6·15 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남측의 예술단 공연이 있었고, 그밖에도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크고 작은 교류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음악교류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기계적 상호주의에서 포괄적 상호주의로, 몇 년에 걸쳐 한 번 할까 말까한 간헐적인 교류에서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실시하는 지속적인 교류로, 일부 예술가만 참여하는 한정된 레퍼토리의 대공연 중심에서 많은 예술가가 참여하는 폭 넓은 레퍼토리의 다양한 편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방송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많은 공연이 남북한 동시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이 되어 그 효과를 배가 시켰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남북 음악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화합이고, 근본적인 정신은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또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참뜻이 있다. 음악 교류는 그 매체가 갖는 정서적인 힘 때문에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의 심성을 바르게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한민족의 원형적인 정서를 깨우쳐 주고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22. 북한의 노래를 총 집대성한 『조선노래대전집』

2002년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는 『조선노래대전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노래집과는 달리 북한의 노래를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총 8,000여 편의 곡이 2,50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집대성되었다.

북한의 주요 노래가 모두 수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분단 이전에 작곡된 곡 상당수와 일본의 조총련을 비롯하여 해외 동포들이 만든 곡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악보와 합

게 작사자, 작곡자, 창작연도를 같이 수록하였으며, 각 노래가 북한 특유의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 노래를 연구하는데 있어 더 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노래를 크게 ‘가요’, ‘가극노래’, ‘영화노래’, ‘아동가요’, ‘민요’ 등 다섯 개의 장르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가요는 다시 불멸의 혁명송가, 불후의 고전적 명작가요, 혁명가요, 광복전가요, 광복후가요로 나누고, 가극노래는 혁명가극, 민족가극, 창극, 가극, 전설가극, 경가극,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 민속무용조곡, 무용극, 혁명연극, 연극, 경희극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영화노래는 예술영화, 텔레비전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로, 아동가요는 학생소년노래와 어린이 노래로, 민요는 전통민요와 신민요로 나누고 있다.

‘가요편’에는 총 3,930곡이, ‘가극노래편’에는 총 1,190곡이, ‘영화노래편’에는 총 1,720곡이, ‘아동가요편’에는 총 1,510곡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민요편’에는 수많은 민요 중에서 널리 애창이 되고 있는 120곡을 선곡하여 수록하였다.

첫 곡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두 번째 곡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이며, 세 번째 곡은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애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노래를 가나다 순으로 엮었는데, ‘불후의 고전적 명작가요’에 해당하는 노래만 중요도 순으로 엮었고, ‘혁명가요’ 중에서 김일성을 노래한 〈조선의 별〉이 예외로 첫 번째로 나오며 나머지는 가나다 순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노래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노래와 관련한 김정일의 어록은 대거 수록되었는데 비해 김일성의 어록은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일성의 어록과 김정일의 어록을 같이 수록한 기존의 관례를 깬 것인데, 향후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23.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북한 공연

2008년 2월 26일 미국의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연주회를 개최하여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적대국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인 만큼 공연 이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미국과 중국이 수교에 앞서 이른바 ‘탁구외교’를 펼친 것에 비유하여 ‘음악외교’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의 역사적인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였다.

이 공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중계가 되었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파격적이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우선 미국의 국기와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게양된 가운데 양국의 국가를 연주하였는데, 북한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고 미국의 오케스트라가 북한의 국가를 연주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북한의 국가 연주가 우리나라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것도 처음이었다. 적성국의 국가가 연주되고 연주를 하였고 또 그것이 방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지고 성숙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연주곡목 또한 파격적이었다. 미국의 작곡가 거쉬인이 재즈를 클래식화한 〈파리의 아메리카인〉과,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미국의 인디안음악과 흑인

음악의 요소를 사용한 〈신세계교향곡〉 등과 함께 앵콜곡으로 북한에서 만든 관현악곡 〈아리랑〉을 연주하였는데, 가장 미국적인 곡과 가장 북한적인 곡을 연주한 것이다. 그와 함께 연주곡목의 측면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금지가 된 것을 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부르조아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재즈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재즈로 만든 음악의 연주를 허용한 것이다.

북한 청중이 보여 준 태도도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다. 연주가 끝난 다음 청중이 기립 박수로 화답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미국을 대하는 태도나 미국음악을 접하는 태도의 변화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북한 공연은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음악을 통하여 화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상징적인 공연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이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많은 사람은 바랄 것이다.

24. 북한의 기악곡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성악곡을 중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음악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중요시 하는데, 성악곡에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용이한데 비해 기악곡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악음악은 우리하고는 달리, 기악곡 자체로 만들어진 것은 별로 없고, 이미 널리 애창되는 노래를 선택하여 그것을 주제로 하여 독주곡, 협주곡, 실내악곡, 교향곡 등과 같은 기악곡으로 재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 기악음악의 주류이다.

그런 한편, ‘표제음악’적인 성격이 강한 게 북한 기악음악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풍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곡이라던가 전원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곡 같은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종류의 기악곡으로는 무용반주 음악이 있다. 원래는 무용반주곡으로 작곡되었지만, 독립적인 기악곡으로 연주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기악음악은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성악곡을 기악곡으로 재창조한 것이거나, 둘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한 곡이거나, 셋째 무용반주곡이다. 그리고 기악곡들도 성악곡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곡의 구체적인 제목이 있으며, 역시 성악곡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모든 요소 중 선율을 제일 중요시 한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악곡으로는 민요 〈아리랑〉을 관현악곡으로 만든 〈아리랑〉를 비롯하여 〈도라지〉, 〈양산도〉, 〈능수버들〉, 〈돈돌라리〉, 〈새야새야〉를 피아노곡 실내악곡 관현악곡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는 〈사향가〉가 있다. 그리고 동요 〈고향의 봄〉과 가곡 〈봉선화〉를 실내악곡으로 만든 것도 자주 연주가 되고 있으며, 북한이 자랑하는 관현악곡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도 원래는 합창곡을 다시 기악곡으로 만든 것이다. 그 외 대표적인 교향곡인 〈피바다〉 역시 혁명가곡 〈피바다〉를 교향곡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의 기악음악은 음악적 소양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어지고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인민성’과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술의 생명과도 같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얻는 데는 실패를 하였다.

25. 북한의 동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북한에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동요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동요를 즐겨 부르고 남한의 동요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에서도 남한 못지않게 동요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또 널리 애창되고 있다.

북한에서 애창이 되고 있는 동요를 시기별로는 크게 분단 이전의 동요와 분단 이후의 동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분단 이전의 동요는 남한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그중 특히 홍난파의 〈고향의 봄〉, 박태준의 〈가을밤〉, 윤극영의 〈반달〉과 〈고드름〉, 정순철의 〈형제별〉, 안기영의 〈그리운 강남〉 등을 명작 또는 중요 곡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

〈고향의 봄〉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 등을 소박하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부한 아름다운 선율로 진실하게 표현한 노래로, 당시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반달〉은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살 길을 찾아 해매는 근로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서글픈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하의 불합리한 사회현실 속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꾸려보자는 어린이들의 지향과 염원이 담겨져 있다.

〈그리운 강남〉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노래로, 민요의 음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서와 감정, 서정적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염원을 진실하고 소박한 음악형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하여 당시 험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불려졌다.

〈가을밤〉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나는 가난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보려는 그들의 절절한 염원과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고드름〉은 생신하고도 흥미 있는 사상주제적 내용과 음악적 형상의 진실성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형제별〉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며 혈육을 그리워하는 소녀의 애달픈 심정을 의인화의 수법으로 소박하고도 부드러운 선율 형상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분단 이전의 동요를, “선율형상이 밝고 명량하며 구조형식이 간결하고 민족적 향기도 그윽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애국의 정신과 민족의 넋을 키워주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동요들은 창작가들의 세계관적 제한성과 시대적 제한성으로 하여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상향’에 대한 동경,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에 그치고 있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도 곁하고 있다.

그런 한편 분단 이후의 대표적인 동요로는 〈색동저고리〉, 〈조국의 품〉, 〈만경대는 꽃동산〉,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내 마음〉, 〈우리 분단 설맞이〉, 〈낮이나 밤이나〉 등이 있다.

분단 이후에 만들어진 동요는 음악적인 면에서 남한의 동요와 크게 차이점이 없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애국심과 사상성 그리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공연

박 영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북한의 공연 기획

북한의 공연형태는 기획 성격에 따라 크게 극장무대공연, 순회공연, 외국방문공연, 경제선동 공연의 넷으로 나뉘어진다.

‘극장무대공연’이란 전용극장을 가지고 있는 공연 단체들이 설비가 잘 갖추어진 극장에서 진행하는 정규 공연을 말한다. 특히 평양의 중앙 공연단체들은 설비가 뛰어난 전용극장(주사용공연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립민족예술단은 봉화예술극장(1982년), 피바다극단은 평양대극장(1960년), 평양교예단은 평양교예극장(1989년)이라는 전용극장을 가지고 있다. 전용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 만큼 다양한 설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무대기술이 구사되고 북한식 ‘대작’ 창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순회공연’이란 자신의 전용극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극장에 무대장치를 싣고 가서 하는 공연을 말한다. 중앙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은 여러 지역과 생산 현장 등에 순회 공연을 다니게 된다. 각 도 연극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방문공연’이란 말 그대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 공연을 말한다. ‘대외공연’이라고도 한다. ‘외국방문공연’ 중 가장 활발한 것은 교예이며, 그 외 음악 공연도 많은 편이고, 가끔 연극과 무용 공연도 포함된다. 이처럼 ‘외국방문공연’에서 교예나 음악 공연이 많은 것은 무대설비 등 기술적인 요인도 작용하였겠지만, 그보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이념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교예나 기악 중심의 공연 종목이 해외 공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의 공연 활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선동공연’이다. ‘경제선동공연’이란 중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 기업소, 농장 등 생산 현장의 노동자·농민들 속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항일유격대식 공연 활동의 혁명적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킨 공연 활동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경제선동공연’에는 전문적인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선전대 공연과 생산활동에 참가하면서 자기 공장과 기업소, 농촌리와 구역들에서 경제선동을 벌리는 기동대공연으로 나뉜다.

이러한 네 가지 주요 공연 형태 외에도, 각종 축전이나 경축대회, 명절 등 국가적 기념행사에서도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 사절을 환영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특별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중 연극과 관련된 주요 행사로는 ‘전국연극축전’(중앙의 예술단 및 도 예술단 경연대회)을 비롯하여, 전국화술소품축전(경연), 전국웃음극경연 등이 있고, 군중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는 전국농업노동자예술(소조)축전, 전국로동자예술소조경연(축전),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전국영예군인예술축전 등이 있다. 이 축전 및 경연들은 전문극단들의 경연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공연단체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 행사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별한 공연행사로는 외국 예술단의 초청공연이 중심을 이루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5일을 전후하여 1주일 정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예술축전이다. 1982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아래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두터이 하고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인류음악예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제20차까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교예 부문의 무대예술 공연으로 되어 있으며, 축전 기간 ‘김일성화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행사가 펼쳐지고, 김일성을 주제로 한 집단체조도 펼쳐진다. 2001년, 2002년에는 일본에서 활동중인 가수 김연자 일행을 초청하여 공연하여 우리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 북한의 공연 장르

북한에도 우리와 같이 연극, 음악, 무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연 장르 구분이 있고, 각각 전문적 영역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공연 장르에는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품’과 ‘대작’이 이원적으로 발달해 있다. 촌극이나 사이극, 무용소품과 같은 짧은 형식 공연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주로 일상의 생산현장에서 공연하고, 가극이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음악무용서사시와 같이 북한을 대표하는 대작을 창작하여 주로 중앙의 전문예술단에 의해 공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가극이나 교예, 집단체조류의 공연이 많이 발달해 있다. 교예나 집단체조와 같이 체육적 기교가 바탕이 되거나 집단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공연이 특별히 잘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혼합 장르, 총체공연물이 발달해 있다. 북한은 음악이나 무용, 체육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대규모의 새로운 공연 장르를 많이 개발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음악과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음악무용극’,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종합공연’ 등 다양한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선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북한의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총집결한 양상을 보이는 가장 총체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북한식 가극이나 연극, 무용, 교예, 집단체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음악과 무용을 결합한 혼합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다. 무용에 음악이 필수요소인 만큼 두 장르의 혼합은 자연스럽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상요소를 배합하였고, 북한 스스로 별도의 장르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해가 요구된다.

‘음악무용극’은 ‘독자적인 무용 장면을 가진 음악극’을 말한다. 음악무용서사시가 일관적 극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음악무용극은 ‘극’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관통되는 극적 얹음새와 개별적 주인공의 성격 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서사적 화폭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음악무용서사시’는 일관된 극적 구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음악과 무용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거대한 역사적 사변들과 사실들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반영하는 대규모적인 종합예술형식”이다. 합창과 관현악, 무용, 시 낭송 등을 엮어서, 서사시적 스케일로 펼쳐놓는 예술인 셈이다. 이러한 음악무용서사시는 한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작품으로 대개 전

국 여러 단체들이 작품 공연에 참가한다.

‘음악무용서사시극’은 “음악, 무용과 함께 시를 기본 형상수단으로 하여 거대한 사회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서사시적인 형식으로 구현하는 큰 규모의 종합적인 극예술형식”을 말한다. ‘음악무용서사시극’은 서사적 줄거리가 있는 시극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무용종합공연’은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음악과 무용 분야 소품들을 엮어서 펼치는 공연을 말한다.

3. 중앙 공연단체

북한에서 공연을 담당하는 단체는 크게 전문예술인 단체와 비전문예술인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는 평양에 소재하면서 중앙기관 직속의 국립 중앙예술단체이다. 각 도에는 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이 ‘○○○도예술단’의 형식으로 꾸려져 있다.

중앙의 공연예술 단체는 각 장르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가극과 가요, 무용을 담당하는 공연단은 ‘가극단’ 또는 ‘예술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연극, 인형극 등을 담당하는 공연단은 ‘극단’의 명칭을, 교예를 담당하는 공연단은 ‘교예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중앙 공연단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극을 주로 공연하는 ‘피바다가극단’과 ‘만수대예술단’이다.

피바다가극단은 가극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음악, 무용 작품들을 창작 공연하는 중앙의 종합예술단체이다. 평양대극장을 거점으로 하여 월 20회 정도 가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혁명가극’ 공연에서 두각을 나타낸 예술단이다. 1946년 ‘북조선 가극단’으로 창립되었으며, 1971년 7월 17일 새로운 형식의 혁명가극을 창조하기 위한 ‘가극혁명’의 과정에서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 재창립되었다.

피바다가극단은 1971년에 ‘혁명영화’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긴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함으로써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조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또한 음악무용이야기 <낙원의 노래>(1975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1982년), 5천 명대공연 <행복의 노래>(1987년)라든가, 무용 <새봄>(1974년), <쟁강춤>(1986년), <칼춤>(1986년), 가요 <새봄>(1973년), <내 나라는 행복의 락원>(1980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1994), 민속무용조곡 <계절의 노래>(1992년), 전설무용극 <봉선화>(1995년)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 공연하였다. 최근에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2000~2001년), <아리랑>(2002년)의 창작과정에도 피바다가극단이 대거 참여하였다.

단원 700명 정도의 피바다가극단은 창작지도부와 합창부, 무용부, 무대미술부, 3관 편성의 교향악단 등 혁명가극창조에 필요한 여러 개의 창조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력영웅,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등 수백 명의 창작가와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만수대예술단 역시 가극과 음악, 무용 작품들을 창조 공연하는 중앙예술단체이다. 특히 무용 분야에서 크게 활약한 예술단이다. 1969년 9월 27일 평양에서 조직되었으며, “주체예술의 본보기단체를 조직하고 그것을 전형으로 하여 예술 전반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고자 하는” 김정일의 특별지도에 의해 전국에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만 선별하여 만들어진 예술단으로 1970년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바 있다. 만수대예술극장과 동평양대극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은 600~700명 정도이며 부서는 창작집단, 공훈남성중창조, 여성중창조, 공훈여성기악중주조, 무용조, 관현악조, 무대조로 구성되어 있다. 만수대예술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를 통해 예술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고, 음악무용이야기 〈낙원의 노래〉(1976년)를 통해 “주체시대의 새로운 무대종합예술형식의 본보기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수많은 가요와 기악곡 등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이 내린다〉(1967년, 당시 국립가무단), 〈조국의 진달래〉(1971년), 〈키춤〉(1977년) 등의 ‘혁명무용’을 창조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예술단은 1980년대 들어서도 음악 및 무용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고, 1972년 〈김일성 훈장〉을 받았다.

국립민족예술단은 가극과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하는 중앙예술단체인데, 특히 민요, 민속무용, 민족가극 등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의 창조 공연에 주력하고 있는 예술단이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국립민족예술단은 1972년 4월 3일 창립 당시에는 ‘평양예술극단’이었으나, 1975년 12월부터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개명하였다가 1985년 ‘평양예술단’으로 개명하였다. 1992년 현재의 ‘국립민족예술단’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립민족예술단의 주 활동무대는 1982년 7월에 개관한 봉화예술극장이다.

1970년대 초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을 창조 공연하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님 우러러〉 등 수많은 가요와 〈강선의 노을〉, 〈풍년든 들판에서〉, 〈장고춤〉 등 무용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88년 ‘민족가극’ 〈춘향전〉 이후 민족가극 〈심청전〉, 민족가극 〈박씨부인전〉을 연이어 공연하면서 민족가극 전문 공연단체로 자리잡았다.

또한 1997년 전통무용과 기악곡을 중심으로 진행된 민속무용조곡 〈평양성 사람들〉은 북한식 ‘민족문예’ 창조의 선봉에 국립민족예술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작품은 ‘임진왜란 때 자기 조국과 향토를 무한히 사랑하며 그를 지켜 용감히 싸운 평양성 사람들의 슬기롭고 근면한 기상’을 그리고 있다.

이 예술단은 1973년 〈김일성 훈장〉을 받았다.

다음으로 ‘국립연극단’은 연극을 전문으로 창조 공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중앙 연극공연단체이다. 우리의 국립극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5월 23일에 조직된 ‘중앙예술공작단’을 전신으로 하여 창립되었으며, 1947년 1월 9일 ‘국립극장’으로 개칭되었다가, 전후 ‘국립연극극장’으로 되었다가, 1972년부터 ‘국립연극단’으로 개칭되었다.

초기에는 연극 〈춘향전〉, 연극 〈심청전〉 등 고전작품을 비롯하여 송영의 〈금산군수〉(1949), 〈불사조〉(1959), 한태천의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 등을 안영일·이서향·황철 등의 연출로 공연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집체작의 형태로 이른바 ‘혁명연극’들을 창조하였다.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형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는 행복해요〉(1960년), 인민상계관작품인 〈붉은 선동원〉(1961년), 대표적 ‘수령형상창조’ 공연인 〈승리의 기치따라〉(1968년), 〈혁명의 새아침〉(1971년) 등이 이 시기 대표작이다.

1978년 김정일의 지도에 의해 〈성황당〉을 공연한 이후에는 〈혈분만국회〉(1984), 〈3인 1당〉(1987), 〈딸에게서 온 편지〉(1987), 〈경축대회〉(1988) 등 북한의 ‘5대 혁명연극’을 ‘〈성황당〉식 연극’으로 재창조하는 등 100여 편의 장막극과 270여 편의 중단막극을 공연하였다.

1990년대에도 〈승냥이〉, 〈소원〉 등의 ‘혁명연극’을 발표하는 등 ‘국립연극단’은 북한연

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연극단’에는 13명의 인민배우와 10명의 공훈예술가, 그리고 40여 명의 공훈배우가 소속되어 있다. 국립연극극장을 거점으로 공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립연극단’의 중심 멤버들은 1978년 〈성황당〉 공연에 출연하여 북한연극계의 중추가 된 리단(연출가), 리병수(무대미술가), 고옥성(복순이 어머니 역), 곽원우(만춘 역), 김춘남(돌쇠 역) 등이다.

이 극단은 197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평양인형극단은 인형극을 전문으로 창작 공연하는 예술단체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는 평양인형극단은 1955년 문화선전성 산하 대중예술극장에 만들어진 인형극부가 모체가 되어 1958년 3월 인형극단으로 발전한 다음, 1961년 독립적인 중앙예술단체인 평양인형극단이 되었다.

〈발곡식의 왕〉(1956년), 〈홍보와 놀보〉(1957년), 〈흑 펜 이야기〉(1960년), 〈빨 난 너구리〉(1962년), 〈세 동무〉(1969년) 등 단막, 장막 형식의 인형극을 공연해 오던 평양인형극단은 1970년대 들어 김일성이 들려준 동화를 각색한 인형극들을 제작하여 새로운 시기를 맞는다. 동화 〈놀고 먹던 꿀꿀이〉를 각색한 단막인형극 〈꿀꿀이〉(1971년)가 그 대표적 작품이다.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이 들려주었다는 동화를 원본으로 제작한 인형극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셋째의 착한 마음〉(김정숙, 1990년), 〈울리지 않는 종〉(김일성, 1993년), 〈봉선화〉(1999년) 등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 특히 〈셋째의 착한 마음〉은 ‘〈성황당〉식 연극’ 형식의 성과와 경험을 인형극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여 창조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 인형극의 대표작이다.

평양인형극단에는 창작창조과, 배우과, 무대과, 인형제작과의 부서가 있다.

국립희극극단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1995년 창립된 희극 전문극단이다.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이 극단을 만든 것은 웃음을 통해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희극이 주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나친 과장, 웃음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상적 내용과 교양적 가치를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희극극단의 대표작으로는 재담 〈제정신을 가지고 살자〉, 〈제것을 사랑하라〉, 독연극 〈잡귀신〉, 〈특수 방탄복〉, 만담 〈부모를 잘 모시자〉, 사이극 〈인심 좋은 작업반장〉, 촌극 〈다같이 충고할 때〉, 희극 〈웃으며 살자〉 등이 있다. 대부분 작은 규모의 작품들이다. 연출형식은 우리의 코미디와 거의 유사하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배우로 장철호가 있다.

평양교예단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교예(우리의 서커스와 마술에 해당)를 전문으로 창작 공연하는 중앙예술단체이다. 평양교예단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에 6월 10일 약 20여 명이 ‘국립교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단원은 1천200~300명으로 공중교예를 하는 배우1과, 동물교예를 하는 배우2과, 요술을 보여주는 요술과, 수중교예과, 빙상교예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양시 광복거리에 있는 ‘평양교예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주 5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평양교예단은 체육과 예술의 결합, 다양성과 민족성 함양이라는 창작원칙을 세우고 지난 50여 년간 체력교예 330여 편, 요술 310여 편을 비롯하여 동물교예, 빙상교예, 수중교예 등 총 970여 편의 작품을 창작 공연하였다. 국내공연 37,930여 회를 비롯하여 중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모로코 등 70개 나라 5,620여 회의 해외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평양교예단은 35차례에 걸친 국제 교예 및 요술축전에 참가하여 60여 개에 달하

는 최고상, 특별상, 금메달 등을 수상했다고 한다. 〈넬뛰기〉, 〈전회비행〉, 〈날아 다니는 처녀들〉, 〈공중철봉비행〉, 요술 〈사과풍년〉·〈신기한 힘〉·〈우산재주〉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4바퀴 돌아잡기, 몸을 펴고 3바퀴 돌아잡기 등 난이도가 높은 〈날아 다니는 처녀들〉은 세계적인 공중곡예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양교예단은 교예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1972년과 1982년 ‘국기훈장 제1급’을, 지난 1977년에는 북한 최고의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았으며, 인민예술가 박소운, 김재근 부자요술가들이며 인민배우들인 김택성과 그의 아들 김철, 김광철 등 수십 명의 명예칭호 소유자들을 배출하였다.

한편 평양교예단은 지난 1999년 말 통일농구대회 때 서울에서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였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도 서울공연을 한 바 있다.

집단체조창작단은 엄밀히 말해 예술창작 집단이 아니라 체육창조집단이다. 그렇지만 집단체조에 예술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단체로 포함시켰다. 즉, 집단체조창작단은 “집단체조작품을 창작하고 보급하며 북한의 집단체조를 전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소속단체이다. 1971년 11월 1일 창립했으며,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해 있다. 부서는 창작연출부, 체조창작부, 배경대창작부, 음악창작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기재, 의상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부서들, 보장부서들이 있다. 1985년 11월 7일 〈김일성 훈장〉을 받았다.

4. 비전문 공연단체

북한의 비전문 아마추어 공연단체로는 크게 예술소조와 예술선전대를 들 수 있다. 예술소조가 경제적 생활 조직에 소속된 순수 비전문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술선전대는 전문극단과 비전문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선전대’는 1970년대 초부터 각 도·시·군 소재지에 설치되었는데, 경제선동공연을 중심 활동으로 삼고, 거기에 예술소조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중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예술선전대는 각 시·도에 건설되어 있으며, 중앙의 주요 공연 단체들도 의무적으로 예술선전대를 조직하여 경제선동공연에 참가한다. 이 때는 예술단원의 일부가 소편대를 이루어 경제선동공연에 참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동예술선동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기동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선동집단”으로서 전문예술단체들에서 하는 것과 달리 간단한 대중악기를 가지고 음악과 무용, 화술 등의 소품들을 가지고 간편하지만 선동성이 강한 예술선동공연을 진행한다. 기동예술선동대는 주요 생산단위들과 건설장들에 있는 예술소조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5~15명 정도의 규모로 조직되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생산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조직되어 있는데, 각급 단위에 모두 만들어져 있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5. 북한의 공연예술의 형식적 특성

북한의 공연은 주제 내용면에서 주제사상에 기초한 작품만을 창작하는 커다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도 우리의 그것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극에서 개척한 여러 가지 공연예술 형식과 기법이 연극이나 무용, 음악, 집단체조 공연 등에도 그대로 적용 내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장면 구성형식’, ‘흐름식 입체무대미술’, ‘방창’과 ‘절가’, ‘설화’ 등은 북한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특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장면 구성 형식’이란 고전극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장소의 무대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엮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극 구성 형식이다. 종래의 막을 없애고, 사건 전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모두 장면화하여 극을 구성함으로써 몇 개의 제한된 극공간에 무리하게 많은 사건을 짜넣거나, 반대로 지나친 생략이나 비약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성황당〉식 연극’에서 보통 서장과 종장을 포함하여 10개 전후의 여러 장면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다장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무용 공연이나 집단체조에서도 ‘서사적 화폭’을 강조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북한의 모든 공연예술은 ‘다장면 구성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다장면 구성법이 좋은 것은 … 장면구성이 립체적이며 장면과 장면 사이의 련관이 빈틈없이 짜여 있어 이야기가 토막이 나지 않고 생활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극조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장면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며 생활을 될수록 집중화하고 집약화하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장면과 장면 사이가 하나의 극적 흐름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 주는 극구성의 요소로 감정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건 조직과 감정 조직을 밀착시켜 단순한 사건들의 연결이 아닌 인물의 행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흐름을 함께 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다장면 구성 형식의 효과는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 전개되는 상황을 실제의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곧 이른바 ‘흐름식 무대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북한의 공연예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곧 무대미술이다. ‘〈피바다〉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은 물론이고 각종 무용, 음악 공연이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경우에도 무대미술의 근본은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이라 할 수 있다.

‘흐름식’이란 ‘흐름식 무대전환’의 의미로서 말 그대로 장면 장면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자는 데서 발상된 것이고, ‘입체무대’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무대장치’의 의미로서 깊이 있는 배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무대미술이 극 진행과 긴밀히 연결되게 하고, 그를 통해 극의 사실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흔히 인물의 감정 변화에 조응하여 음악이나 조명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무대 장치나 소도구까지도 극적 효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관점이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여 무대미술을 고안해야 하는데, 그 구체화된 성과가 바로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은 기능성이 좋은 극장 건축과 다양한 무대 설비이다. 무대 회전은 물론이려니와 무대 전체 혹은 일부가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배경그림, 입체적 장치, 반입체적 장치, 여러 개의 중간막과 흐름막 등 무대 미술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축적 기계적 설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나 장치가 준비되면 한 장면의 진행중에 무대가 변화하기도 하며, 장면전환도 휴지가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북한연극에서 신속한 장면 전환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이 흐름막을 이용한 ‘환등 배경’이다. 환등 배경이란 그림이나 사진을 필름에 담아서 영사하여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으로 무대 위에 펼쳐질 생활환경과 꼭 같은 화폭을 환등미술로 흐름막에 비치면서 그것이 흘러가는 동안에 무대를 자연스럽게 흐름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식 장면전환의 목표는 “관중이 무대에서 화폭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전환시켜 관중의 정서적 감흥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다.

방창(傍唱)과 절가(節歌)는 ‘〈피바다〉식 가극’의 음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불리워지면서 극의 세계를 그려내는 노래”를 말한다. 무용극이나 음악극 등에서 관현악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내용 표현의 구체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사가 전혀 없는 무용극에서 방창을 사용하면 내용 전달이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북한에서 ‘방창’이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은 ‘〈피바다〉식 가극’에서부터이다. 서양의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를 제외하면 모두 무대 위에 등장한 상태에서 노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의 가극에서는 등장인물 외의 무대밖 가수에 의해 ‘방창’이 불려진다는 커다란 특성이 있다. 방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남성방창, 여성방창, 혼성방창도 있고, 독창, 2중창, 3중창, 합창 형태의 방창도 있다. 그리고 가사가 있는 방창이 주를 이루지만 필요시 무가사방창도 활용한다.

방창의 기능은 관현악과 거의 같다. 등장인물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하고 분위기나 상황,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묘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장면전환 시 연결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장인물이 부르는 노래에 백코러스의 기능도 한다. 또 부분적으로는 등장인물의 노래를 대신 불려줌으로써 등장인물이 노래보다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극에서 시작된 방창의 사용은 이후 연극이나 무용극, 집단체조, 영화 등에서도 적극 활용된다. 다만 가극 이외의 장르에서 방창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이들 장르의 기본형상수단이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연예술에서 사용되는 노래는 모두가 절가로 되어 있다. 절가란 “정형시로 된 가사를 몇 개의 절로 나누어 동일한 선율에 담아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민요나 가요의 형식과 비슷하다.

절가 형식의 중요한 특성은 선율의 반복성이며 구조가 간결하다는 점이다. 또 집단적인 가창형식과 전렴과 후렴이 상호 응답하는 구조도 절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절가를 중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간결한 구조 속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자기 표현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민성’, ‘통속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바다〉식 가극’의 노래 형식을 모두 절가로 하고 있다. 또한 관현악에서도 선율을 중시하고, 절가를 확장하여 선율 중심의 관현악곡을 만드는 것도 절가를 모든 음악의 기초로 평가하는 북한의 음악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화(說話)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인물과 생활에 대한 창작가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며 내용을 보충설명하는 형상수단”의 하나이다. 방창과 함께 무대 위에 펼쳐지는 사건진행에 대해 사건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특히 창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서사적 예술에서의 서사자의 성격에 가깝지만, 드라마적 예술에서도 자주 사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해설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보통은 연극이나 영화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작품의 시작 부분이나 끝부분에서 작품세계를 미리 설명하거나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작가의 입장을 직접 진술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주제의식 전달에는 용이하지만, 작가의식을 생경하게 노출하기 때문에 작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효과를 방해하는 역기능도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 창작 과정

북한 공연예술도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창작이 이루어진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작을 규정하는 창작 방식으로는 종자론을 들 수 있다. 종자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 핵심을 담고 있는 알갱이로서, 각각의 작품에도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핵심적 요소로서의 종자가 있으므로 창작가들은 그 종자를 정확하게 포착하여야 작품 창작이 원활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종자론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종자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분야이든 그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의 ‘컨셉’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 창작에서 종자는 시대현실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해당 시기 당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종자의 포착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개인의 창작에 비해 여러 사람의 힘과 예술적 지혜와 재능이 동원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체적인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창작활동”으로서의 집체창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집체창작이 장려되는 까닭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창작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사상적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공동창작’이나 ‘집단창작’과 유사한 말이다. 또한 합평회나 각종 심의체계도 넓은 의미의 집체창작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원래부터 ‘집체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은 물론이고, 개인 창작이 지배적인 문학이나 미술 창작에서까지 집체창작을 강조하여 ‘4.15문학창작단’과 같은 ‘창작단’이나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단체를 만들었다. 주로 ‘수령형상창조’ 분야에 집체창작이 많다. 문학에서 ‘불멸의 역사’ 총서나 영화의 〈조선의 별〉은 그 대표작이다.

그러나 집체창작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많다. 무엇보다 개성적 표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집체창작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집체창작에서 개인 창작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과거 ‘4.15창작단’의 명의로 발표되었던 소설들이 복간되면서 원 작자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은 주목되는 사례의 하나이다.

7. 공연시설

북한의 공연시설은 각 장르별, 예술단체별로 전용공연장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공연단 소유의 극장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하는 공연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각 도별로 대표적 공연장이 있고, 생산현장에는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다목적 공연장 시설이 건립되어 있다. 전체가 공공시설이고, 민영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은 없다. 다만 공연장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장들은 무대설비를 비롯한 각 공간구조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뛰어난 편이며, 대형벽화나 분수공원들로 이루어진 내외부의 장식 디자인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장은 평양에 있는 중앙예술단 전용 공연장들이다.

평양대극장은 평양시 중구역 승리거리와 버드나무거리의 교차지점인 오탄동에 소재한 가극 전용극장(설계: 오병헌)이다. 1959년 2월 16일에 착공되어 1960년 8월 13일에 준공, 개관하였다. 극장의 부지면적은 75,000㎡이고, 연건축면적은 29,000여㎡이며 수용능력은 2,190석이다.

극장은 크게 현관홀 부분, 관람홀 부분, 무대 부분으로 되어 있다. 현관홀은 3층 관통홀로 되어 있으며 양 옆으로 계단이 있고, 천정에는 ‘무리등’이 설치되어 있다. 관람홀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각적 조건을 고려하여 좌석을 배치하였다. 무대는 기본무대, 앞무대, 옆무대, 뒷무대의 ‘4면무대’로 되어 있어 장치가 크고 많은 가극 공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극장에는 700여 명 수용 능력의 종합연습실 3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360여 개의 부속실이 있다.

조선식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이 극장은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연상시키는 19개의 함각지붕이 인상적이다. 양쪽 벽면에는 ‘쪽무이벽화’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이 극장은 ‘혁명가극’ <피바다>로 유명한 피바다가극단의 주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동평양대극장은 가극, 연극, 무용을 공연하는 극장으로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동 문수 거리에 위치해 있다. 1989년 5월 18일 개관한 동평양대극장은 만수대예술단의 주 활동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평양대극장과 대조적으로 재료나 형태가 매우 서구적인 건물로 되어 있다.

동평양대극장은 원형의 4~7층 건물로 부지면적 63,000㎡, 연건축면적 43,888㎡이며 640개의 부속실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적인 무대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중앙홀의 스테인레스 벽화, 금강산, 삼지연을 묘사한 벽화 등이 유명하다.

만수대예술극장은 평양시 중심부 만수대(중구역 서문거리)에 건립된 예술극장(설계 오병헌)이다. 1973년에 시작하여 1976년 10월에 준공, 1977년 1월 1일 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의 연건축면적은 60,000㎡이며, 무대면적 2,000㎡, 높이는 40m 정도이다. 4,000여 명의 관객 수용이 가능하고, 무대 위에도 수천 명이 동시 출연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극장 내부는 크게 현관홀, 기본극장, 소극장, 무대, 배우분장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관홀 부분은 대분수공원에서 장식 아치를 통해 안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며, 현관홀 정면에 ‘만경대고향집’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또한 이 극장에는 금강산의 구룡연 계곡을 그린 벽화를 배경으로 하여 원형계단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오르내릴 때 금강산 절경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극장이나 소극장의 객석수는 가감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하였다. 무대에는 승강무대와 수평이동무대, 회전무대, 요술무대 등이 있고, 100여 개의 드림설비가 설치되고 모든 무대 장치를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대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진 공

연장이었으며, 극장 앞의 분수공원이나 가극이나 무용 장면을 그린 내외부의 벽화들(만수대 창작사 창작)도 유명하다.

주로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봉화예술극장은 평양시 대성구역 화산동에 위치한 공연장이다. 1982년 7월 개관하였으며, 연건평 45,900㎡, 관람석 2,000석과 800석의 규모이다. 직경 10m의 회전무대를 비롯하여 악사 승강무대, 방창 이동무대, 수평 이동무대 등 현대적 극장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묘향산 2선남폭포 그림과 분수 장식이 있다.

민족가극 〈춘향전〉으로 유명한 국립민족예술단의 주된 활동무대이다.

평양교예극장은 평양시 광복거리에 있는 교예전용극장(설계 : 고부웅)이다. 1986년 5월 김정일의 지도에 의해 건설계획을 세운 후 1989년 5월 1일 준공하였다. 총 부지면적 100,000㎡에, 연건축면적은 54,000㎡이다.

평양교예극장은 커다란 정6각형 구조의 무대와 관람홀 부분 건물동을 중앙에 배치하고, 작은 정6각형의 현관홀 부분 건물동을 그 양 옆에 배치하였다. 마치 3개의 커다란 조개를 나란히 놓은 듯한 모양이다. 무대부분에는 일반교예와 수중교예, 빙상교예, 동물교예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환장치를 현대화하였고, 관람홀 부분에는 모든 객석을 39m 이내에 배치하여 어디에서나 공연이 잘 보이도록 배려했다. 그리스식 원형극장 형태를 원용한 내부구조에는 관람석 3,500석에 직경 14m의 원형무대가 있다.

1동 1층의 홀바닥은 1,300㎡의 보석주단을 깔 것이 특징이며 2층에는 묘향산의 봄풍경과 금강산의 가을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2동에는 1호, 2호 청량음료식당이 있다. 3동의 각 계단들과 난간들은 도라지꽃, 진달래꽃, 장식유리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2층 정면 벽에는 40여가지의 교예동작을 보여주는 너비 120m, 높이 3m인 천연색돌인물조형벽화가 있다. 4동에는 배우들의 휴게실이 있고 5동에는 동물들의 대기실, 동물 훈련장, 동물 목욕탕, 동물 치료실이 있다.

1952년 6월에 창립된 평양교예단의 활동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양에는 인민군교예극장이나 국립연극극장 등이 있다.

지방에 있는 극장 가운데서는 함흥대극장이 유명하다. 함흥대극장은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역사 쪽으로 갈라지는 시내 중심 도로 옆에 위치한 대규모 극장이다. 1984년 4월 준공되었으며, 건립 과정에 김정일의 직접 지도가 있었다 한다. 총부지면적 110,000㎡, 건축면적 15,000㎡, 연건축면적 58,000여㎡인 극장에는 2,500여 석을 가진 관람홀과 700석을 가진 관람홀이 있다. 층수는 앞쪽 7층, 뒤쪽 9층으로 기량연습실, 녹음실, 공연준비실, 각종 기술실 등 800여 개의 부속실이 있다. 회전무대와 미끄럼무대, 승강무대 등 여러 가지 무대 설비가 갖추어진 현대식 극장이다. 극장 전면에 높이 26m의 기둥 14개가 있으며, 벽면은 북한 ‘혁명가극’의 주인공을 소재로 한 조각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8. 공연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군중문화의 개념 속에서 일반인에 대한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편이다. 이와 병행하여 어려서부터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재원들을 발굴하여 특별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일찍부터 각종 예술관련 학교를 세워서 전문예술가를 양성하여 온 것은 북한 체제의 도

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 예술교육 체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공연예술 분야에는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교예학원 등이 북한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출판보도 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평양시 동대원구역 평양미술대학 옆에 위치해 있다. 1953년 11월 1일에 창립된 평양종합예술학교를 전신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1956년 8월 종합예술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국립연극학교를 1959년 9월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72년 평양영화대학으로 개명하였다가 1988년부터 다시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부르고 있다.

이 대학에는 연극학부, 영화학부, 텔레비전학부, 배우학부 등과 여기에 속한 희곡문학학과, 무대예술학과, 연극리론학과, 문예행정학과, 영화문학과, 영화연출학과, 영화촬영학과, 영화이론학과, 텔레비전연출학과, 사진촬영학과, 방송배우학과, 분장미술학과 등의 학과가 있다.

그 외 연극영화예술연구소, 박사원, 연구원, 청소년영화창작단 등이 있다.

또한 이 대학에는 박사, 학사, 인민예술가, 인민배우를 비롯한 학위학직 및 명예칭호를 소유한 교원, 연구사, 영화촬영소의 겸임강사들이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여러 교사와 촬영장, 실습장에는 녹음실, 편집실, 필름현상실, 표준영사실, 녹화실, 방송실기장, 무대실기장, 음악실, 미술실기실, 분장실 등 여러 교육시설이 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연극, 영화, 방송 각 부문의 실기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학 중에도 여러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술영화 〈봉선이와 원옥이〉, 〈산정의 처녀 기사〉, 〈도시처녀 시집와요〉, 연극 〈대하는 흐른다〉 등이 유명하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창립 49돌에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음악, 무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거리에 위치해 있다. 1949년 3월 1일 창립된 ‘국립음악학교’(5년제)가 1952년 해주예술전문학교와 통폐합하여 ‘평양음악대학’이 되었는데, 이 평양음악대학이 오늘날 평양음악무용대학의 모체이다. 한편 1956년 8월 종합예술학교 무용과와 국립무용연구소를 통합하여 ‘평양무용학교’(뒤에 평양예술대학으로 개칭)를 창설하였는데, 1972년 2월 평양음악대학과 평양예술대학이 통합하여 오늘의 ‘평양음악무용대학’이 되었다. 일찍이 국립음악학교 시절인 1950년 ‘민족음악학부’(민족성악과와 민족기악과)를 설치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이 대학에는 민족기악, 기악, 성악, 무용, 작곡(작곡, 지휘, 이론) 등 전문교육을 하는 학부와 음악무용연구소, 민족음악연구실, 박사원, 음악무용교재창작실, 관현악단 등이 있다. 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민반이나 예비반 등을 통해 예능 영재교육기관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족음악연구실에서는 계몽기 가요(일제강점기 대중가요) 발굴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대학에는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교사들과 음악당, 개별수업실, 무용실기장을 비롯하여 녹음실, 음악감상실, 도서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민족악기(개량악기) 전시실과 개량악기 공장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학에서는 국립교향악단,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등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하였는데, 재일동포 출신 가수 조청미나 지휘자 김병화, 영화음악작곡가 서정건, 작곡가이자 인민예술가인 이학범, 만수대예술단의 지휘자 김일진,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인 한영상, 김호윤, 피바다가극단의 작곡가 김향 등도 모두 이 학교 출신이다.

이 대학은 1989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평양교예학원은 북한의 교예배우 양성기관이다. 평양교예단의 부속기관으로 있던 교예교육 기능을 분리하여 1972년 6월 평양교예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는 1992년 9월 평양교예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국에서 7, 8세의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일반교육과목과 함께 교예 실기 과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16, 17세 무렵 졸업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바로 평양교예단과 모란봉교예단에서 창작가, 배우로 활동하게 된다.

9. 가극

북한에서는 가극이라는 장르가 연극보다 더 중시되고 있다. 김정일의 예술 부문에 대한 지도과정이 ‘영화→가극→연극’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 가극의 기원은 멀리는 20세기 초의 ‘창극’에 관련짓기도 하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1930년 오가자에서 처음 공연된 가극 〈꽃파는 처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방 후 196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의 가극 양식을 이어받아 전통형식인 창극 〈춘향전〉, 〈심청전〉 등과 서양형식인 가극 〈견우직녀〉, 〈온달전〉 등이 창작 상연되었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가극이 창조된 것은 1971년 ‘혁명가극’ 〈피바다〉를 무대에 올리면서부터이다. 북한가극의 본보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혁명가극’ 〈피바다〉는 1936년 김일성이 지었다는 ‘혁명연극’ 〈혈해(血海)〉를 1960년대 후반 ‘혁명영화’로 재창조하고, 다시 이 영화의 줄거리를 기본으로 하여 가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이 연이어 창조되면서 일련의 ‘가극혁명’이 펼쳐지게 되고, 그 성과로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표준형 가극으로 자리잡게 된다.

북한의 가극은 서양의 오페라를 번역한 말로서,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로 정의된다. 가극의 기본특징은 등장인물이 ‘말’이 아닌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가극에서는 노래와 음악이 인물이나 사건을 형상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북한 가극의 기본 성격은 우리의 오페라와 같으나 ‘아리아’나 ‘레시타티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방창’이나 무용이 사용되며, 노래 형식에 있어서도 ‘절가’가 사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단순화하면 북한의 가극은 우리의 뮤지컬과 오페라의 중간적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가극의 음악은 독창, 중창, 합창 및 관현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 수단은 가수들이 부르는 성악이다. 가극배우인 가수는 성악과 연기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며, 관현악은 등장인물이 부른 모든 노래의 반주를 담당할 뿐 아니라 극 진행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배경음악 및 효과음으로서의 기능,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연결음악으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방창을 사용한다는 점, 모든 노래가 대중이 따라부르기 쉬운 절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관현악 편성이 서양악기와 민족악기를 혼합한 ‘배합관현악’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그 외 북한의 가극에는 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보통 1편의 가극에 3~4개의 무용 장면이 들어간다. 또한 가극 무대미술은 극적 기능과 함께 매우 화려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 공연예술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이 바로

‘〈피바다〉식 혁명가극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혁명가극’과 별도로 ‘민족가극’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가극’이란 민족적 주제와 민족에 고유한 음악형식으로 창조한 가극을 말한다. 여기에는 창극과 같이 전통적 음악형식을 활용한 전통가극 외에도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적 음악형식으로 창조한 현대가극도 포함된다.

북한의 가극은 초기에는 〈춘향전〉 〈심청전〉 등 창극 공연이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이후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새로운 현대적 양식의 민족가극”이 발전하게 된다. 그 첫 작품은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한 〈강 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온다〉(1960년)이며, 그 외에도 ‘항일혁명’을 주제로 한 〈여성혁명가〉(1964년), 〈무궁화꽃수건〉(1966년), 민족고전작품을 주제로 한 〈금강산 팔선녀〉(1969년) 등이 있다.

또한 1970년대 ‘〈피바다〉식 가극’이 등장한 이후에는 ‘〈피바다〉식 가극’의 형식에 민족고전의 내용을 담은 것들을 ‘민족가극’이라 부르고 있다. 1989년 첫 선을 보인 민족가극 〈춘향전〉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민족가극 〈춘향전〉의 내용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지만, 창법이나 구성형식, 형상요소들에서는 ‘〈피바다〉식 가극’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외 〈심청전〉, 〈박씨부인전〉 등도 이러한 민족가극에 속한다.

민족가극은 주로 국립민족예술단에 의해 창조 공연되고 있다. 특히 민족가극은 남북 교류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요 가극단으로는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등이 있다.

10. 가극혁명(歌劇革命)과 ‘〈피바다〉식 가극’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직접 지휘 아래 종래의 가극을 개혁하여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북한식 ‘혁명가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가극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그 기본 성격은 “종래 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가극창작 원칙과 방식이 구현된 주체의 가극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되고 있다.

‘가극혁명’은 1969년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가극혁명방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1971년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한 〈당의 참된 딸〉(1971), 〈꽃 파는 처녀〉(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등 ‘5대혁명가극’이 연이어 창작, 공연됨으로써 ‘가극혁명’이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요소가 곧 방창, 절가 형식의 노래, 무용, 흐름식 입체무대미술, 배합관현악 등이며, 이후 북한 가극은 본보기 작품인 ‘혁명가극’ 〈피바다〉를 따라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 부르고 있다.

〈피바다〉는 원래 1936년 무송현 만강마을에서 김일성의 창작에 의해 공연되었다고 하는 ‘항일혁명연극’의 대표작이다. 원작의 이름은 〈혈해(血海)〉였다고 하며, 뒤에 〈혈해가〉, 〈혈해지창〉 등의 유사한 작품도 여러 번 공연되었다고 한다. “혁명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한 어머니가 생활의 모진 시련 속에서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에 나서는 과정”(『김정일선집』 2권, 20쪽)을 그려낸 이 작품은 1969년 ‘혁명영화’로 창작되었으며, 1971년에는 ‘혁명가극’으로 각색되었고, 1973년에는 소설로 재창작되었다. 피바다가극단에 의해 공연된 ‘혁명가극’ 〈피바다〉는 전체 7장 4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창과 절가에 의거한 새로운 음악극작술 체계를 확립하여 이른바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에는 〈피바다가〉와 〈토벌가〉, 〈울지마라 을남아〉, 〈녀성해방가〉

등의 노래들과 〈백두산춤〉, 〈진달래꽃춤〉, 〈충동원가춤〉 등 무용 장면이 들어 있다.

11. 5대 혁명가극

‘혁명가극’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작품을 말한다.

북한 가극의 본보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피바다〉는 1936년 상연되었다는 ‘항일혁명연극’ 〈혈해〉를 원본으로 하여 1971년 피바다가극단에 의해 ‘혁명가극’으로 현대화한 작품이다.

〈꽃파는 처녀〉는 북한 ‘혁명가극’ 중에서도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극작술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2년 만수대예술단에 의해 재창작되었으며, 꽃분이 일가와 지주와의 계급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당의 참된 딸〉은 1971년 조선인민군협주단에 의해 창조된 ‘혁명가극’으로 전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쟁중에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한 한 여성 간호병사를 주인공으로 하였으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노래가 들어 있다.

〈금강산의 노래〉 1973년 국립민족예술단(당시 평양예술단)에서 창조 공연한 ‘혁명가극’. 서장, 7장, 종장으로 구성되었다. 무용 〈사과풍년〉이 포함되어 있다.

〈밀림아 이야기하라〉 1972년 국립민족예술단(당시 평양예술단)에서 창조공연한 혁명가극으로 서장, 전5장, 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구장의 항일정신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12. 북한의 무용

북한에서 무용은 “예술적 율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율동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무용은 일정한 공간 속에서 표현되는 시각적이며 직관적인 예술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무용에서는 율동 외에 음악, 무대미술, 소도구와 의상도 형상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북한의 무용에서는 연극이나 가극이나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는 ‘항일혁명무용’인 가무 〈단심줄〉과 〈13도사랑〉에서 직접적인 역사적 뿌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1959년 〈단심줄〉을 발굴하여 무대에 재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무용의 초기 역사를 보면 1946년 10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에 ‘북조선무용가동맹’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 ‘최송희 무용연구소’가 북한 무용의 본산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1958년 최송희의 숙청으로 〈국립무용연구소〉로 개칭되어 1961년 1월 조선무용가동맹이 부활되기까지 북한 무용의 중심 단체로서의 기능을 계속하였다. 북한 무용은 월북 무용인에 의해 그 초기 과정의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무용에 대한 지도는 영화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무용예술론』(1990)은 북한무용에 대한 이론적 근간을 보여주는 저술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김정일의 지

도 아래 〈눈이 내린다〉(1967년), 〈조국의 진달래〉(1971년), 〈사과풍년〉(1973년), 〈키춤〉(1973년) 등 북한이 최고로 사랑하는 ‘4대혁명무용’이 나오며, 유명한 ‘자모식 무용 표기법’도 개발되었다.

북한에서 무용은 그 목적에 따라 예술무용과 군중 및 오락무용, 실용적 목적을 가진 무용으로 나뉜다. 예술무용은 민족무용과 발레무용 등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무대무용을 말하는 데 그 규모와 형식에 따라 무용소품, 무용조곡, 무용극 등으로 나뉜다. 민속놀이춤이나 사교춤 등 자기가 즐기기 위해 하는 무용을 군중 및 오락무용으로 분류하고, 군사무용, 종교무용 등은 실용적 목적을 가진 무용으로 분류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무용 장르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용소품이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형식의 무용 작품을 말한다. “내용이 간단하고 구성이 간결하며 춤가락이 특색이 있다”는 김정일의 언급처럼 무용소품은 생활의 한 계기에서 벌어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간결한 춤구성과 특색 있는 춤가락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을 갖는다.

무용소품은 무용의 기본 형식으로서 이를 기초로 다른 무용장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무용관이다. 무용소품은 5~10분 정도의 짧은 무용으로 등장인물의 인원수에 따라 독무, 쌍무, 3인무, 4인무, 5인무, 군무로 나뉘어진다. 이른바 ‘4대혁명무용’인 〈눈이 내린다〉(1967년), 〈조국의 진달래〉(1971년), 〈사과풍년〉(1973년), 〈키춤〉(1973년)이 모두 군무형식의 무용소품이다.

무용조곡이란 여러 개의 독자적인 무용종목들을 하나의 주제사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묶은 규모가 큰 무용작품 형식을 말한다. 또는 몇 개의 무용음악을 묶어서 만든 연쇄곡적인 기악작품 형식을 말하기도 한다. 무용에서는 독무나 군무, 3인무 등 여러 형태의 무용소품을 결합하거나 경우에 따라 주인공을 중심으로 약간의 극적인 구성을 보이는 무용조곡도 가능한데, 무용을 통한 주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즐겨 창작되는 무용장르이다.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들이 많다. 최근 작품 중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의 〈평양성사람들〉(1997년)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무용조곡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무용극이란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극적인 사건과 줄거리를 가지고 무용형식으로 보여주는 규모가 큰 형식의 무용 작품이다.

무용소품 <무용조곡 <무용극의 크기 관계가 있다.

무용극에서는 춤동작과 무언극동작, 무용구도 등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 그 외 음악,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다. 장막무용극 〈붉은 기발〉, 전설무용극 〈봉선화〉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의 무용에서는 전래의 민속춤을 ‘현대화’하여 현재의 레파토리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속무용이란 “인민들 속에서 그들의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추어지면서 전해오는 무용”이라 정의된다. 북한도 우리처럼 〈처용무〉 〈무애무〉 〈탈춤〉 〈농악무〉 〈강강수월래〉 등 전래 춤들을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전통춤의 원형 전수와 계승에 주력해 온 반면 북한에서는 이를 ‘시대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무대에 재현하여 〈3인무〉 〈돈돌라리〉 〈칼춤〉 〈쟁강춤〉 〈달맞이〉 〈상모춤〉 〈장고춤〉 등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이러한 민속무용은 무용조곡이나 무용극, 집단체조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13. 자모식 무용표기법

무용을 음악의 악보처럼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부호체계를 개발하여 제정한 것이 무용표기법이다. “춤동작과 무용구도 등 무용형상의 제 요소들을 기록하는 방법과 이론의 체계”로서의 북한 무용표기법은 일반적인 무보에 비해 일반 문자체계에 흡사하다는 점에서 ‘자모식무용표기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자모식 무용표기법은 “무용예술의 모든 형상수단들을 글자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을 이용하여 부호화하고 그것을 보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무용표기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음악무용대학 무용표기연구실에서 1970년대초부터 15년 동안 연구하여 1987년 발표하였다. 형태와 놀림을 나타내는 15개의 모음과 자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19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형성의 원리는 몸동작 형상을 본떠 표기 문자를 만들고 이를 자모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5선지 악보를 원용하여 인체의 높이구조에 맞추어 고안한 3선의 ‘무용보표’에 무용 문자를 기입하여 사용하며, 기본 문자의 활용 외에 무용의 길이표(음표 활용), 형상표, 부위표, 줄임표, 변율표, 형상표어(흙모의 정을 담아 느리게, 사과를 탄다)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무용총보의 기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무용표기 전용 타자기 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애초의 목표에 비해 실용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악보 표기를 이용하듯 안무가가 무용표기법을 활용하는 상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4. 4대혁명무용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키춤〉 〈사과풍년〉 등 4개 작품을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4대명작무용’이라고도 한다.

4대 혁명무용 중 〈조국의 진달래〉와 〈눈이 내린다〉는 무용소품에 속하며 혁명가극 〈피바다〉와 〈금강산의 노래〉에 각각 나오는 〈키춤〉과 〈사과풍년〉은 가극무용으로 분류된다.

〈조국의 진달래〉는 여성군무로 1970년 만수대예술단이 창작한 공연물이다. 1939년 김일성이 함북 무산지구에서 진출했다는 것을 시대배경으로 당시 여성유격대원들의 조국애·낙천적 생활·혁명에 대한 굳은 결의 등을 그린 작품이다. 총 3부로 이루어졌으며 16명 내외의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눈이 내린다〉는 여성군무로 1967년 ‘평양가무단’(1969.9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이 창작 공연하였다.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불 밝은 창 곁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로 밤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해 백두산 환등을 배경으로 여성 유격대원들이 붉은 기폭을 휘날리며 눈길을 헤쳐 나가고 불 밝은 창문가로 초병들의 형상이 환등으로 보이면서 서서히 막을 내리는 간단한 줄거리로, 항일투쟁과 천리마운동을 연관시킨 작품이다. 30여명의 무용수가 등장한다.

〈키춤〉은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3장 2경에 나오는 방앗간 가무의 일부를 1972년 군무로 분리시킨 작품이다. 항일유격대를 지원하는 마을 처녀들이 유격대에 보낼 식량을 물방아간에서 손질을 해 보낸다는 줄거리이다.

〈사과풍년〉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제3장 ‘선과장’에 등장하는 여러 춤들의 하나로 사과풍년을 맞는 여성 협동농장원들의 노동의 희열을 그린 작품이다. 사과풍년의 기쁨을 그린 부분, 이 기쁨이 있기까지 김일성의 ‘은덕’을 기리는 부분, 사과를 따는 처녀들의 흥겹고 낙천적인 노동생활을 그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연극혁명과 〈성황당〉식 혁명연극

1978년 국립연극단에 의해 공연된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비롯한 명칭으로,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연극의 대명사이다. ‘〈성황당〉식 연극’이라고도 한다.

김정일의 문예부문 지도에 의해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성과에 기초하여 ‘연극혁명’을 전개하는데, 그 결과 창작 공연된 작품이 바로 ‘혁명연극’ 〈성황당〉이며, 이후 북한 연극의 본보기로 됨에 따라 ‘〈성황당〉식 연극’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는 ‘항일혁명연극’ 〈성황당〉(1928년)을 ‘〈피바다〉식 가극’ 무대의 표현형식을 원용하여 ‘현대화’한 것이 1978년의 〈성황당〉이다. 따라서 〈성황당〉식 연극은 다장면구성형식, 흐름식 입체무대미술, 방창과 설화의 사용 등에서 북한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황당〉에 이어 〈혈분만국회〉(1984년), 〈3인1당〉(1987년), 〈딸에게서 온 편지〉(1987년), 〈경축대회〉(1988년) 등 ‘5대 혁명연극’이 국립연극단에 의해 창작 공연되고, 김정일의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1988년)가 발표되면서 이론, 실천적으로 ‘〈성황당〉식 연극’이 완성된다. 이후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연극 작품들은 한결같이 ‘〈성황당〉식 연극’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성황당〉식’ 연극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북한연극을 이해하는 기초이자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되는 일련의 ‘항일혁명연극’을 원본으로 하여 1970~80년대 김정일의 지도로 ‘현대화’한 ‘혁명연극’ 중에서 가장 작품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의 ‘5대혁명연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황당〉은 김일성이 1928년 카룬에서 직접 창작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8년 ‘연극혁명’의 첫 시험 작품으로 창작되어 이후 북한 연극은 모두 〈성황당〉의 모범을 따라 ‘〈성황당〉식 연극’으로 창작되고 있다. 작품은 종교와 미신에서 주민을 해방시킨다는 계몽적인 소재를 ‘인간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주성’의 주제에 연결시키고 있다.

〈혈분만국회〉 역시 김일성이 ‘항일빨치산투쟁’ 당시 만든 것을 1984년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한 작품이다. 구한말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된 이준 열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으며,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딸에게서 온 편지〉는 1930년 가을 만주 오가자 일대에서 공연됐던 것을 1987년 재창작한 작품이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배우려 하지 않다가 봉변을 당하는 한 농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인1당〉은 가상의 ‘송도국’에서 박정승·최정승·문정승이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끝내는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간에 빚어졌던 파쟁

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역시 1929년 길림지역에서 김일성이 창작하여 공연했다는 원본을 토대로 1987년 국립연극단이 〈성황당〉식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경축대회〉는 1936년 8월 무송현 만강마을에서 처음 공연되었던 것인데 1988년 4월 김일성의 76회 생일에 맞춰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했다는 작품이다. 일본군과 유격대를 대조적 형상으로 펼쳐 보이는 풍자극이다.

16. 북한의 연극(演劇)

북한에서 연극은 “인물의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극예술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양에서 들어온 연극 장르의 기본 성격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연극사적 전통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단 이후의 과정을 보면, 남한에서는 부조리극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현대연극을 받아들이고, 마당극으로 대표되는 전통연희를 발전시켜 다양한 연극 형태가 발전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무대 연극을 기본으로 하여 ‘〈성황당〉식 혁명연극’이라는 표준형 연극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 연극의 역사를 보면, 그 뿌리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에 걸쳐 김일성에 의해 직접 창작되었다고 주장되는 이른바 ‘항일혁명연극’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 국내의 진보적 연극의 대명사인 ‘카프연극’이다. 196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해방직후 월북한 연극인들에 의해 북한연극의 기초가 형성되었지만, 1970년대 초부터는 김정일의 지도에 의한 ‘연극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성황당〉, 〈3인 1당〉, 〈혈분만국회〉 등 ‘항일혁명연극’을 현대화한 일련의 ‘혁명연극’이 만들어지고, 그 때부터 북한연극의 정통성은 ‘항일혁명연극’→‘혁명연극’으로 정리된다. 북한연극사는 크게 보아 1978년 〈성황당〉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며, 오늘날의 북한 연극은 한결같이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연극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주로 대중선동 매체로 기능하여 왔다. 연극의 형식은 일관되게 ‘〈성황당〉식’이지만, 내용은 시기별로 제기되는 제반과제를 직접 다루어 왔다. 중앙(평양)에서는 ‘국립연극단’을 중심으로 혁명적 대작을 주로 공연하고, 지방에서는 도예술단이나 예술선전대 등을 통하여 ‘경제선동공연’을 주로 해 왔다. ‘혁명연극’과 같은 대작 외에도 ‘사이극’, ‘토막극’, ‘재담’, ‘만담’ 등 소품 장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당극과 같이 기존의 연극 형식을 벗어난 실험적 연극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 연극 주된 특징은 사실주의적 무대에 충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로 불리는 무대미술 분야에서는 극히 사실적인 ‘재현의 미학’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극사적으로 북한에서는 근대연극이 발달한 반면 전통연희나 현대연극은 발달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우리와 달리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등장시키는 ‘수령형상작품’을 연극에서도 다수 창작하고 있는 점이나, ‘방창’·‘설화’와 같은 보조형상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연극론은 김정일의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이다. 이 글은 ‘〈성향당〉식 혁명연극’의 이론적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에까지 북한연극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17. 북한의 교예(巧藝)

“육체의 기교동작을 기본적인 형상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영하는 예술.” 우리의 ‘씨커스’에 해당한다. ‘교예’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의 씨커스(극마단)가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술의 한 장르로 위치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예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종목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체력교예, 요술, 동물교예, 교예막간극으로 나누어진다.

고도로 세련된 육체적 기교동작을 기본형상 수단으로 하는 체력교예는 기교동작에 따라 전회교예, 조형교예, 중심교예, 소재주교예 등으로 나뉜다. 또한 체력교예에는 전통 민속놀이 등을 교예화한 여러 가지 민족교예 작품이 창작되어 특색을 이룬다. 체력교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민족교예인 〈2인 그네〉 〈3인그네〉 〈널뛰기〉 〈밧줄타기〉 등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형상한 〈기계조립공〉 〈기중기조형〉 등이 있다.

우리의 ‘마술’에 해당하는 요술은 사람들의 손재주와 기자재의 조작에 의해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교예형태로 기능요술, 기재요술, 광선요술, 희극요술, 탁상요술 등으로 구분된다. 동물의 행동과 재주를 수단으로 한 동물교예는 야생동물교예와 집짐승교예, 혼합동물교예로 나뉘며, 〈곰 권투〉 〈개 산수풀이〉 〈말 춤추기〉 등의 작품이 있다.

교예막간극은 교예기교동작과 풍자극의 수법이 결합된 교예형태로 주로 남한사회나 미국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막간극과 다른 점은 교예기교동작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주로 풍자회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뇌물바람〉, 〈불에 탄 경찰〉, 〈구두 닦는 소년〉, 〈자리다툼〉, 〈리발소에서〉, 〈양복점〉, 〈교통순경〉, 〈떨 수 없는 빠라〉 등의 작품이 있다.

그 밖에 공연 무대에 따라 지상교예, 공중교예, 빙상교예, 수중교예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북한의 교예는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분야로 최근에는 〈날아다니는 처녀들〉이라는 공중교예 작품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수상 성적을 받은 바 있다.

평양교예단과 모란봉교예단 등이 인민군교예극장과 평양교예극장, 평양요술극장 등 전용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18.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전문예술가집단과 집단체조 창조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배합한 새로운 형식의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스타디움 대공연 형식이다. 지난 2000년 10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서 첫 선을 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2002년 〈아리랑〉의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형성 중에 있는 장르이다. 1999년 김정일의 지시로 과거 ‘혁명가극’이나 ‘혁명연극’에 버금가는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공연 장르라 할 수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과거의 집단체조에서 그 뿌리와 토대를 찾을 수 있으나, 창조집단의 성격에서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등 전문예술단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기념행사와는 별개의 공연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 무대장치의 도입과 첨단 과학기술과 접맥된 조명, 북한 최고의 전문예술가 집단이 출연하는 음악·무용·교예 등 예술적 표현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과거의 집단체조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체육행사의 일부였다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문화성에서 직접 관장하는 예술공연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집단체조는 말 그대로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집단이 운동장에서 체조 동작을 중심으로 형상을 펼쳐보이는 체육의 한 종류이다. 우리의 마스게임과 카드섹션을 결합한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집단체조는 체육기교와 사상예술성이 배합된 종합적이고 대중적인 체육형식”으로서 집단주의정신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집단체조가 발달한 곳이 바로 북한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집단체조의 기원은 1930년 카룬과 오가자 지역에서 김일성이 창작, 공연했다는 꽃체조 〈조선의 자랑〉이라고 한다. 해방 후에도 북한에서는 국가 주요기념일에 집단체조를 지속적으로 공연하였는데, 2002년 현재 80여 개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형식에 있어서 집단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김일성, 김정일, 조선노동당 등을 주제로 삼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집단체조의 기본 구성 요소는 운동장 바닥에서 체조울동을 펼치는 체조대, 관중석에서 카드섹션을 펼치는 배경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통일과 지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체조음악 등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1년 ‘집단체조창작단’을 조직하여 모든 집단체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김일성경기장(구 모란봉경기장)을 배경대가 상비된 집단체조 전용구장의 성격으로 건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소규모의 실내 집단체조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 실내 집단체조는 주로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생일 기념으로 펼쳐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집단체조를 예술적으로 발전시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는 새로운 공연예술 장르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19. 정례화 되고 있는 〈아리랑〉 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2002년 4월 첫 선을 보였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능라도에 있는 5월1일경기장에서 10만여 명의 출연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초대형 공연이다. 〈아리랑〉은 사상 초유의 출연자 규모, 3개월여의 장기공연, 외부세계(주로 남한 국민)를 겨냥한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리랑〉 공연이 집단주의 문화의 정수이고, 또 국가적 동원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공연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창작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음악·무용·체조·교예 등을 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예술로 창안해 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에서 평가하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리랑〉 공연의 실제 출연자는 몇 명이나 될까? 북한의 공식 홍보물에는 10만 명이 출연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6~7만 명 정도라고 한다. 배경대(카

드섹션)에 2만 여명, 그리고 운동장 출연자 4만여 명 정도이다. 각 장면마다 운동장에서 들어서는 출연자의 수는 대략 1,500명 내외이다. 다만 이는 순수하게 출연자의 수를 말하고, 만약 운동장을 빙 둘러 사각으로 막을 치고 있는 ‘막깃발’을 담당하는 기수나, 의상이나 소품 제작자, 조명이나 음향 등의 기술 스태프까지 더하면 〈아리랑〉 공연을 만들어 내는데 줄잡아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일손이 참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북한 사회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공연의 기획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아리랑〉 공연은 분절되어 있는 여러 장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면은 출연자도 다르고 주된 표현 장르도 다르다. 즉, 하나의 장면 내에서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만, 장면과 장면 사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밀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각 장면별로 연습을 진행하여 충분히 익숙해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관통훈련’을 통해 등·퇴장 등 연결부분만 서로 맞추어 보면 된다.

2005년 가을, 3년 만에 〈아리랑〉 재공연이 있었다. 공연 내용과 형식이 2002년 공연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공연장소도 5월1일경기장으로 같았다. 출연자들도 배경대(카드섹션) 등 학생들이 담당하는 부분만 교체되었을 뿐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2002년 공연과 거의 같았다. 크게 달라진 점은 2005년 〈아리랑〉 공연 때에는 8,000명 가까운 남한 관객이 직접 평양의 5월1일경기장을 방문하여 관람했다는 사실이다. 분단 이후 일반 국민이 평양에서 펼쳐진 공연을 관람하고, 시내 주요 시설과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2007년 공연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관람하여 다시 한 번 외부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8년에도 〈아리랑〉 공연이 8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관계가 풀리게 되면 〈아리랑〉 공연이 다시 한 번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20. 리모델링으로 새단장 중인 북한의 공연장

북한 공연예술은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한 장면에 수십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군중씬이나 깊고 입체적으로 구성된 무대장치 등이 즐겨 사용되곤 한다. 그러한 무대 연출이 가능한 것은 무대구조나 설비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연장의 큰 특징은 각 장르나 단체의 전용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극 전용 공연장으로 국립연극극장, 가극 전용 공연장으로 평양대극장과 봉화예술극장, 클래식 콘서트홀로 모란봉극장과 윤이상음악당, 교예 전용 공연장으로 평양교예극장 하는 식이다. 또한 각 공연장에는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바다가극단은 평양대극장, 국립연극단은 국립연극극장, 조선국립교향악단은 모란봉극장, 평양교예단은 평양교예극장을 홈으로 삼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연단체는 매우 안정적인 제작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레파토리를 구축하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자랑하는 공연장들은 모두 개관 이후 수십 년이 되어 노후화 되고, 또 오랫동안의 경제난으로 공연설비나 건물 내외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1989년에 개관한 평양교예극장과 동평양대극장이 가장 최근에 건립된 극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극장들도 벌써 20년 가까이 운영된 셈이다.

1990년대의 북한은 과거 1970~80년대에 비해 공연활동이 크게 위축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나면서 북한은 공연장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장 먼저 리모델링에 들어간 것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국립연극극장이다. 극장 인테리어는 물론 외부벽면을 석재와 유리로 마감한 이 건축물은 평양에서는 몇 안 되는 현대적인 양식의 건축물이 되었다. 2008년 2월 뉴욕필의 평양공연이 있었던 동평양대극장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 건물 정면 상부에 횡으로 길게 펼쳐져 있던 대형 벽화가 금속성 외장재로 교체되어 역시 현대적 감각의 건물로 탈바꿈하였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상주하는 모란봉극장(1946년 개관)은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적 스타일의 서양식 건축물인데, 최근 외벽 페인팅으로 옛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이미지는 산뜻하게 바뀌었다.

공연장만이 아니라 요즘 신축되거나 재건축되는 평양 시내 건물들은 모두가 서울에서도 바로 몇 년 전에 볼 수 있었던 현대식 구조나 디자인을 하고 있다. 건물 내부 현관에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서울의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양 시내 공연장들의 새 단장이 외부세계의 관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의 조용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1.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문화성혁명사적관

평양시 외곽 형제산구역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있다. 총 부지면적 100만㎡에 야외촬영거리, 실내촬영장, 각종 영화제작 관련 설비실이 있는데, 우리의 드라마세트장처럼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야외촬영거리는 1930년대 경성(서울)의 거리를 비롯, 1950~60년대 서울의 거리, 조선시대 서울 거리 및 농촌 마을, 그리고 유럽 거리와 중국 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영화의 야외장면을 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콘크리트 구조나 목조, 석조 등 실제의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는 특수한 성격의 전시관이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문화예술 부문 ‘혁명사적’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전시해 놓은 ‘문화성혁명사적관’이 그것이다. 문화성이란 우리의 문화부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촬영소 정문에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대형 벽화가 설치된 2동의 건물이 보인다. 첫 번째 건물이 제1관(김일성관)이고, 그 다음 건물이 제2관(김정일관), 제3관(김정숙관)인데, 각각 12개와 15개,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2관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김정일이 북한 문화예술에 그만큼 깊이 관여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사적관에는 이른바 ‘주체예술’의 성립과정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주요한 문건이나 현지지도 관련 일지 및 내용, 관련 신문기사나 사진 화보, 그리고 영화촬영이나 연극 공연 시 사용했던 대본·소품·의상 등이 시기별 장르별로 전시되어 있다. 이 사적관의 디스플레이는 북한 박물관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대형 사진이나

그림, 또는 어록이 전체 사적관은 물론이고 각 호실 벽면의 위와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벽면에는 관객의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면자료가 가득 채워져 있고, 벽 앞쪽 바닥에는 유리상자 안에 소품이나 사관(모형관) 등의 전시물이 놓여 있다.

이 전시관이 비록 김일성·김정일의 소위 ‘현지도’를 중심으로 한 사상교양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혁명사적관에 해당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정책박물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이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다.

22. 북한 공연예술에서 희극 장르 현황

북한사회와 같이 국가통제가 강한 나라에도 코미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웃음이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듯이 북한에도 희극적 공연예술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북한 연극을 대표하는 5대 혁명연극도 희극적인 작품을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준 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혈분만국회〉만 비극에 속하고, 〈성황당〉, 〈3인 1당〉, 〈경축대회〉, 〈딸에게서 온 편지〉 등 네 작품이 풍자와 해학을 주된 정서로 하는 희극 계열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코미디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은 경희극이다. 일찍이 1960년대 초 연극 〈산울림〉의 성과 이래, 오늘날까지 가장 인기 있는 연극 장르로 성장한 것이 경희극이다. 경희극이란 이름 그대로 신랄한 비판보다는 가벼운 웃음을 주조로 하고 있다. 적대적인 세력 사이의 풍자보다는 동지적 비판을 기초로 한 해학적 웃음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설명이다.

경희극은 국립연극단과 같은 정통 연극단체에서도 공연하고 있지만, 주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나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등 영화창작단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시대 경희극 공연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후신)이다. 이 영화촬영소에서는 〈약속〉(1996), 〈축복〉(1997), 〈편지〉(1998), 〈동지〉(1999), 〈웃으며 가자〉(2000), 〈철령〉(2003) 등의 히트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영화촬영소에는 영화배우를 포함한 영화창작단이 소속되어 있는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영화배우들이 경희극 무대를 창조하여 정기공연 또는 전국 순회공연 등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위로와 화합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에는 아예 희극만을 전담하는 공연단체를 새로 설립하였다. 그만큼 희극의 수요가 많고, 또 북한당국의 정책적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대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희극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런데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의 경희극이 장막 위주라면, 국립희극단의 공연작품은 촌극·막간극(사이극)·독연·무연극·만담·재담 등 다양한 소품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품공연이란 출연 인원 1~5인, 상연시간 5~15분 정도의 작은 공연을 말한다. 소품공연은 극장에서의 공연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기동적으로 펼쳐지는 경제선동 공연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희극단의 공연 레파토리는 연간 20여 편으로 다소 많은 편인데, 이는 작품의 길이가 짧은 것과 관계되어 있다. 주요 장르를 보면 1인이 출연하여 여러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독연(남한의 모노드라마와 유사)이 있다. 같은 독연 중에서도 노래를 사용하거나 풍자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은 별도로 노래독연, 풍자독연 등으로 분류된다. 역시 출연자 혼자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르 가운데 연극이 아닌 구연의 형태로 펼쳐지는 것이 만담이다. 북한의 만담은 일제강점기에 최고의 만담가로 명성을 떨쳤던 신불출(1907~1969)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오늘날의 북한 만담은 미국과 남한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담은 구연형식인 만큼 방송매체에서도 즐겨 사용되고 있다. 재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형식의 소품공연으로 재치 있고 기지 있는 말로 엮어지며 명랑한 웃음 및 풍자와 해학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 공연 작품과 작품 사이에 상연되는 사이극(막간극)이나 촌극, 대사 없이 배우의 몸동작과 얼굴표정만으로 작품의 내용을 보여주는 무언극도 국립희극단의 주요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이다. 2002년부터는 재담극이나 노래대화극도 등장하는데, 모두 출연자 5인 이내의 소품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영화

이 효 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1. 영화예술론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이론서로서 1973년에 김정일 명의로 발표되었다. 남한의 영화 이론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화 역사에 관한 저술서, 개별 영화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한 영화평이나 영화계 현안을 다룬 개인 평론집, 영화학을 미학적 바탕 위에서 서술한 순수 영화이론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술서, 영화 제작 과정과 흥행에 관한 영화 마케팅 실무서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영화예술론』은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영화 관련 서적과는 다르다. 영화는 사회와 인간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는 커다란 명분 아래 기술서라고 할 수도 없고, 미학서라고 할 수도 없으며, 마케팅 실무서라고 부르기에 적당치 않은, 북한만의 고유한 영화관과 창작론이 집대성되어 있다. 김정일의 북한 내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이 책은 북한 영화계의 창작 지침으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영화 제작자의 사상적 태도와 행동 요령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제작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영화 이론은 『영화예술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의 영화와 관련된 이론적 저작은 크게 주체의 문예이론,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이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문학은 1967년을 전후로 주체문학으로서 재정립되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이 정립되고 창작활동도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수행되었다. 그 구체적인 구조를 요약하면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 인간학을 정립하고 이를 종자론, 영화예술론 등의 창작방법으로 이론화하여 창작과 수용 전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 들어 강조된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체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질, 종자론, 창작방법론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예술론』은 북한 영화 창작의 결정적인 지침으로서 생활과 문학(시나리오론), 영화연출론, 영화배우론, 영화촬영론, 영화미술론, 영화음악론, 창작과정론, 창작지도체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생활과 문학」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을 요약하는데, 다른 부분 역시 이런 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생활과 문학」에서는 “영화문학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인간을 그려내야 하며 그럼으로써 문학을 접하는 인간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자주적인 인간을 그려야 하고, 작품의 핵심인 종자를 잡아야 하며, 주체는 정치적 의의가 있어야 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그려야 하며, 또한 투쟁 속의 생활을 묘사하면서 대작 창작을 지향하면서, 갈등 문제는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다.

2. 김정일과 영화

김정일이 영화광이며, 그의 지시에 의해 외국의 수많은 영화 필름 등이 북한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문은 여러 북한 경험자들의 발언과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김정일의 이러한 행동과 취향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왔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의 외로움이나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선전선동 정책에 의해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영화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한 일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혁명 1세대들은 항일투쟁과 건국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배 명분을 만들었다. 반면 김정일 등 혁명 1세대들의 자제들은 자신들의 통치 명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는 대중들을 통치하는 명분인 동시에 혁명 1세대들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명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개인적으로 영화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1968년을 전후로 북한은 김일성 일파의 권력 장악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기는 김일성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조선 현실에서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사고를 넘어서 당시 수정주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소련 공산당의 이론이나 좌경으로 인식되던 모택동 사상과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주체사상이 보편적 이론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196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때 김정일은 1967년 이후 두각을 드러낸 후 김일성의 혁명 동지였던 김책의 아들 김국태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되자 그와 함께 사상문화 분야의 장악에 들어간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연구실’로 개칭하는 등 김일성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과업에 깊숙히 개입했다. 이 시기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던 문학예술인들 사이에서 그를 1969년경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예술 영화에서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 김일성이 직접 항일투쟁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던 작품을 영화화하는 작업이 벌어졌고, 기록영화로서는 김일성 일가를 그린 기록영화 〈만경대〉(1969),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1969) 등 김일성 가계가 혁명적 가계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영화들이 나왔다. 이러한 영화 작업들은 거의 모두 김정일의 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정일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강조’로 영화 제작 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즉 김정일의 영화관은 개인적 취향과는 별개로 김일성 유일 권력의 대중적 설득력을 구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입증하는 방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3. 조선영화인동맹

북한의 영화인들은 북한의 조선영화인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조선영화인동맹은 1946년에 발족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7개 산하 동맹 중의 하나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조선 노동당의 문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명목상으로는 사회 단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조선 노동당의 문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산하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한 조선영화인동맹은 연출, 연기, 장치, 효과, 평론 등 5개의 분과와 도직할시지부를 두고 있고, 소속원들은 국책에 의해 운영되는 여러 촬영소에 소

속되어 활동을 한다. 이 영화인들은 1962년에 세워진 평양연극영화대학 등 관련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분야의 일을 하다가 영화계로 옮겨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영화인동맹의 임무와 기능으로는 (1) 영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영화 분야에 제시된 시책을 실행하고 그 성과적 관철을 위해 동원할 것 (2) 영화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무 교육, 교양의 실시와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보급할 것 (3) 영화인들 속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며 공산주의적 교양 강화에 기여할 것 (4) 영화 생산 계획을 질량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영화인들을 지도, 통제, 감독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단체로 되어 있는 조선영화인동맹과는 달리 영화계 당 조직으로는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영화예술과가 있는데 여기를 통하여 영화인의 사상성에 대한 통제와 영화 관련 여러 조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선동 직속 담당 비서 아래 선동부가 있으며 여기에 선동과, 예술지도과와 함께 영화예술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 영화 관련 행정 조직으로는, 내각(옛 정무원) 산하에 문화선전성, 교육문화성, 문화예술부 등과 함께 문화성이 있는데 2000년 현재 영화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내각 문화성이 맡고 있다. 이 문화성 산하에 영화총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총국은 그 산하에 보급처, 계획처, 생산처, 기술처, 제작처, 재정처, 자재상사를 두고 영화 관련 제반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정부의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과가 있으며, 정부의 일정한 관리를 받고 있는 기구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있고, 민간 단체로는 한국예술인총연합 산하의 한국영화인 협회와 개별 단체인 영화인 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있다.

4. 영화제작시설과 기술

1945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의 영화 자본과 영화인들은 거의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따라서 북한 영화의 시작은 자본도 인력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소련의 원조와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 우호적이었던 유럽 쪽의 작은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북한 영화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정은 남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후 북한은 정책적으로, 또 집중적인 계획아래 영화를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시설과 기자재 면에서는 월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영화 제작 시설은 북한의 영화 촬영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표적인 촬영소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일제 때 일본인이 운영했던 양말공장을 김일성의 지시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전쟁 때 파괴된 후 김정일에 의해 확장 건축되었다고 한다. 부지는 약 100만㎡이며 연건축면적은 10만㎡로서 실내 촬영장, 촬영, 녹음, 편집, 특수 촬영 설비, 필름 가공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1955년에 이미 스크린 프로세스(배경화면을 합성할 수 있는 설비) 시설을 마련했으며 80년대 초반에 이미 자동으로 조절되는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90년대에나 가능했던, 카메라에 직접 모니터를 연결시켜 보는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 야외촬영소는 조선 거리, 중국 거리, 일본 거리, 서양 거리, 남한의 서울과 광주 그리고 농촌 마을 등을 갖춘 세트 시설이 있다. 이 외에도 조선인민군 4.25 예술영화

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등이 있으며 특히 신상옥 감독이 총장으로 있던 신필름영화촬영소는 연건평 2만평이 넘는 대규모 시설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촬영 기술은 여전히 재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컴퓨터 그래픽은 조금 생소한 실정이고 특수 효과 역시 외국 스태프들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고 한다. 현상 기술은 북한 영화계의 특성상 지방 등에 내려보낼 많은 필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색과 흑백 필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름 등의 재료는 주로 동구 제품을 사용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코닥과 후지 필름 등으로 찍은 후 서독이나 일본 등에서 현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실정을 거의가 1980년대 상황이므로 현재는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90년대의 북한 영화 역시 별다른 화질 개선 등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않다.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의 영화진흥위원회 부설 종합촬영소가 세워졌으며, 서구의 현대적인 장비와 기자재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술 스태프들의 역량 또한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영화제작체계

북한의 영화 제작 체계는 다음과 같다.

쥬시나리오 단계 : 북한에서 시나리오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나오는 작품들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영화문학(시나리오) 공모를 통하여 제작할 영화의 시나리오 결정

쥬작품 심의 및 선택 단계 : 심의조의 종합 심의 조정원들이 시나리오 선택에 참가하며 최종적으로는 각 촬영소의 예술 부총장이 참가하여 촬영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촬영소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나 제 1부총장 등도 개입할 수 없다. 심의 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촬영소로 넘어가는 작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시나리오 작품이다.

쥬연출 대본 심의 단계 : 연출 대본을 심의할 때는 담당 연출가, 촬영가, 미술가, 작곡가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종합 심의에서 채택된 작품은 그대로 촬영이 되는 편이다. 영화 문학과 연출 대본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영화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까지 이 작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종합 심의 성원’이 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처음에 채택된 시나리오가 제작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영화문학창작사와 영화촬영소 그리고 작품을 만든 창작 단위의 일꾼들과 창작 단위의 당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

쥬창작단 구성 단계 :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처음에 구성된 창작단의 성원 변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 강조된 것처럼 연출가는 성원들의 창작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조직생활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고 지도해야 한다. 부연출가는 남한의 조감독에 해당하는데, 『영화예술론』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예같은 조감독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창작 작업을 돕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 행정부 연출가는 남한의 라인 프로듀서(제작 현장 지휘) 역할을 한다.

쭉창작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연출가가 책임지고 모든 제작 작업을 진행한다. 창작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창작 의도 발표회’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심의 조정원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보태기도 한다. 하지만 김정일은 심의 조정원들의 월권 행위를 금하기도 했다. <처녀 리발사>의 제작 과정에서 김정일은 “심의원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발표회에 참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심의원의 말대로 하면 영화들이 다 같아지기 때문에, 일단 작품이 선택되고 나면 모든 창조 사업의 연출가가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쭉완성 대본 작성 단계 : 창작단은 영화 제작이 완료되면 필름과 함께 부연출가의 책임 아래 만들어진 완성 대본을 당에 제출한다. 이 완성 대본을 본 김일성 및 김정일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영화를 수정하게 된다.

쭉사후 관리 단계 : 영화가 완성되면 창작단은 자체 시사를 한 후 다른 촬영소와 문화성 등에 필름 프린트를 돌린 후 영화 제작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소를 답례 방문하여 영화 시사회를 가진다.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창작단이 대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답례 방문 시사가 끝나면 이 필름 프린트는 력사 자료실에 넘겨져서 보관된다.

6. 영화 보관, 보급, 상영 체계

어느 예술보다 중요한 선진 예술인 영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매니아적 관심과 정책 실현의 필요성에 의해 북한의 영화는 더욱 중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보다 훨씬 많은 지원과 관심에 의해 운영되는 북한의 영화 보관소, 즉 ‘영화문헌고’에는 1만 5천여 편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영화가 수집되어 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장치(항온항습장치)에 완벽을 기한 지상 3층에 지하 보관소까지 갖춘 이곳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는 물론 헐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등을 국가별로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도 300편 이상이 따로 보관되어 있고, 제작연도, 출연배우, 감독, 제작진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목록이 따로 비치되어 있다.

북한의 영화 보급은 문화예술부 산하 영화보급사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주민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를 위한 사회 교육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영화보급일꾼들을 통하여 조직적, 전국적으로 보급된다. 이를 위해 ‘전국영화보급일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공훈영화보급원 칭호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격려하기도 한다. 또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현지도영화’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급되는 북한영화는 영화 상영관, 공연예술극장, 문화회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등의 영화 시설, 이동 영사대 및 기타 비전문적인 상영공간에서 상영이 된다.

북한 전역의 영화관은 약 1,000여 개가 있으며, 주요 도시에 통상 서너 개의 극장이 있다. 대표적인 극장으로는 평양의 개선문 영화관, 락원, 대동문, 서평양, 동대원, 문수동 등의 영화관이 있다. 북한의 영화관에서는 1일 평균 3회(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상영하며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하는 ‘현지도영화’ 외에는 입장 요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전문 영화관 외에도 기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북한 영화의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영화를 이해하는데 ‘영화실효투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은 “영화보급사업에서 영화실효투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근로자들이 영화를 보고 배운

것을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분석하면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투쟁의욕과 신심을 가지고 일에 달라붙게 하는 영화실효투쟁은 우리 당이 내놓는 독창적인 영화보급방침의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영화실효투쟁이란 모든 조직이 영화 학습조를 만들어서 영화를 보고 학습조별로 영화에 나온 모델을 놓고 토론을 벌인 후 영화 주인공들의 생활과 자기 생활들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즉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처럼 살며 일하는 실효투쟁을 직장과 가정에서 벌이게끔 돼 있다. 즉 정책적 지도 아래 기획된 북한영화는 조직적으로 ‘건실한 창작 집단’을 통하여 제작되고, 이후 주민들이 이 영화를 통하여 교훈과 투쟁 의욕과 신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영화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이며 조직화된 주의주장과 그 영화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의식 등이다. 우리는 이를 징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분적이거나 북한 사회의 현실과 북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관과 생활 이데올로기 등 특정한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7. 영화 촬영소

북한에서 예술영화라고 부르는 극영화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북한의 대표적인 촬영소로서 1947년 2월 6일에 설립되었다. 실내 촬영장, 현상소, 야외 촬영장, 배우 양성소 등을 가진 이 촬영소에는 김일성과 그의 가계에 관한 영화 즉 수령 형상 창조 영화를 주로 담당하는 백두산창작단을 비롯하여 대흥단창작단, 왕재산창작단, 보천보창작단, 삼지연창작단 등 하부 창작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창작단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백두산창작단은 1967년 5월에 진행된 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지도성에 대한 훼손’을 이유로 박금철, 이효순 등 이른바 갑산파들이 종파주의자로 숙청을 당한 후 김정일의 보다 강력한 영화계 지도 와중에 탄생하였다. 이 창작단의 역할은 “수령님의 혁명역사와 혁명적 가정을 형상하며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영화화면에 옮기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백두산창작단은 당의 지도를 직접 받는 기관”으로 명시, 김정일에 의한 직접적인 지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 창작단의 초기 활동은 〈피바다〉(1969), 〈한 자위단원의 운명〉(1970), 〈꽃파는 처녀〉(1972) 등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 시절 만든 연극을 영화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 〈누리에 붙는 불〉(1977),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1978), 〈백두산〉(1980), 10부작 〈조선의 별〉(1980~1987), 〈민족의 태양〉(1987~1992) 등 김일성의 항일 유격 활동을 극적으로 미화한 이른바 수령 형상 창조 영화 등으로 막을 내렸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의 중요한 예술영화(극영화)촬영소로는 조선 4.25예술영화촬영소가 있다. 이 곳은 북한군 소속 극영화 제작소로서 1959년에 ‘조선인민군 2.8예술영화촬영소’로 시작해서 1970년에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96년에 북한 인민군 창설일(김일성이 유격대를 조직한 날)을 기념하여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곳의 시설은 1998년에 완공된 7개의 극장과 1,200석 규모의 극장 등을 거느린 촬영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촬영소는 주로 군사물을 제작했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혁명전통, 계급교양, 체제찬양 등의 다양한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저지한 월미도 전투를 그린 〈월미도〉와 1987년 제 1회 평

양 비동맹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도라지꽃〉 등이 대표작이다. 이 곳 역시 산하에 월미도창작단, 대덕산창작단, 월비산창작단 등의 창작단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다큐멘터리물과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영화제작사인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있다. 1996년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의 과학영화 제작부문이 통합해 생겨났으며 총장은 최춘영이다. 통합 후 이 영화촬영소는 96년 11월 김정일을 지켜세운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천하제일봉〉을 시작으로 기록영화 〈본때있게 일해 제끼는 황해남도 안의 당일꾼들과 새별군당 책임비서〉, 과학영화 〈뚝감자 덕을 크게 보는 고천리 사람들〉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편 조선과학영화촬영소는 55년 1월10일 당시 “국립영화촬영소”내의 과학영화와 아동영화(만화영화 포함)를 각각 연간 20여편 정도 전담하여 제작해왔다. 조선기록영화 촬영소는 1957년 국립영화촬영소(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분리된 다큐멘터리물 전담의 영화제작소로 첫 작품은 무성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이다. 1957년 설립 이후 1996년 통합으로 인해 해체될 때까지 이 촬영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행사 및 그 행적의 미화와 변모발전한 각 지역모습을 소개하고 각 분야의 모범적인 인물 홍보, 자연, 지리, 사적 소개 및 전쟁기록, 남한 비판 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물을 제작해 왔다.

8. 예술영화

예술영화는 남한의 극영화에 해당되는데 주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나 군 소속의 ‘조선 4.25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최초의 예술영화는 1949년에 제작된 〈내고향〉이다.

예술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항일투쟁물

북한 사회의 주요한 원동력이기도 한 항일 혁명 정신은 북한 영화의 주요한 주제로 언제나 다뤄져 왔다. 이것은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한이 처한 수세적 위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동 기제이기도 하지만 김일성 유일 사상을 강화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주로 1930-40년대 김일성의 항일 투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러한 영화들로는 〈강물은 흐른다〉(유정혁 작, 박동연, 장웅강 연출, 1967), 〈내가 찾은 길〉(집체작, 천상인 연출, 1967). 그리고 〈유격대의 오형제〉(1968-1969), 〈피바다〉(최익규 연출, 1969), 〈꽃파는 처녀〉(박 학 연출, 1972) 등이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서 3대 혁명 소조원에 대한 형상 창조와 숨은 영웅들의 형상 창조를 위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열 네 번째 겨울〉(리춘구 작, 1980), 〈청춘의 심장〉(리춘구 작, 1981), 〈려단장의 옛상관〉(리상욱 작, 1984) 등이 있다. 그리고 당의 영도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에 주체형의 당 일군을 형상화한 〈한 당 일군에 대한 이야기〉(설주용 작, 1981), 〈군당책임비서〉(리춘구 작, 1983) 등의 작품이 있다.

2) 노동계급화와 사회 혁명화 그리고 애정 영화

북한의 애정 영화는 영화 전체가 애정 문제로만 그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운동의 두 가정>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부부의 대조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영화의 주요한 모티브와 결말은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 계급 의식을 고취하는 영화와 사회 혁명화를 추구하는 영화, 그리고 남녀관계를 다룬 영화들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이외에도 <노동가정>(한복규 작, 1970), <사과 딸 때>(김세륜 작, 1971) 등과 <포구의 처녀들>(김정흠 작, 1971), <우리 열차 판매원>(신정범 작, 1972) 등이 있다. 또한 <추억 속에 영원하리>(강중모 연출)는 군인들의 농사 지원 사업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먼 훗날의 나의 모습>(장인학 연출)은 '노력 영웅'의 아들이지만 혁명 정신이 없는 청년이 과오를 뉘우치고 대덕단 지역에서 훌륭하게 트랙터 기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도라지꽃>, <아무도 몰라>, <도시처녀 시집와요>, <병사를 사랑하리라>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이러한 영화들은 조국애=향토애라는 종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 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형상한 작품과 사회 진출 문제로 갈등하는 북한 신세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 전쟁의 회고와 고취물

북한 주민들을 단일한 감정으로 묶는데 언제나 사용된 것은 주로 적대 감정 즉 반미, 반한 의식이었다. 6.25 전쟁을 다루는 주제는 이런 논리에 대단히 적당하다. 전쟁을 회고하거나 고취하는 영화는 이러한 정신적 역할과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스펙타클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르의 작품으로는 <전사의 맹세>(2부작, 주동인 작, 민정식 연출, 1968),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1971), <태백산에 봄이 온다>(1971), <화선에서 부르는 노래>(1972), <마을을 지켜 싸운 인민무장대>(1970) 등이 있다. 군사, 전쟁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조선 2. 8예술영화촬영소(후신 조선 4.15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월미도>(리진우 작, 1983)는 한국 전쟁시 월미도를 지켜 싸운 인민군 해안포병들의 무용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북한에서의 평가는 “주인공들 성격의 개성화와 대중적 영웅주의의 유기적인 통일 등으로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쟁 영화에 오락성을 강화한 독특한 영화로는 <명령 027호>(1986)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한국전쟁 시절 남측에 침투하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특공대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실제 시청의 핵심은 그들이 벌이는 무술이다. 최근작으로는 <곡절많은 운명>(1990), <빛나는 아침>(1990), <성새>(1992), <소속없는 부대>(1993), <담가소대장>(1995), <근위병의 아들들>(1995), <89여단>(1995) 등이 있다.

4) 수령 형상 창조 영화

북한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논리는 김일성 유일사상 즉 주체사상이며, 이것의 역사적 증명은 항일 유격대 전통 및 이를 지도했던 김일성에 대한 형상화였다. 이는 김일성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김일성과 함께 북한 사회를 지배했던 당시 유격대원들에 대한 존경과 김일성 가계에 대한 극단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의 별>(10부작, 1980-1987년)은 '수령 형상의 창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후 10부에 나오는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을 모티브 삼은 연작 5부작 <민족의 태양>이 후속편으로 제작되었다. <조선의 별> 연작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를 배경으로 김일성 주석이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고 조선혁명의 길 위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여 조선 인민혁명군을 창건하여

항일 대전을 벌여 나가서 반일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과정을 연작으로 그린 것이다.

이런 작품으로는 〈누리에 붙는 불〉(백인준 작), 〈첫 무장 대오에서 있는 이야기〉(리종순 작) 등이 있다. 김일성의 가계 즉 아내인 김정숙의 탄생 65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미래를 꽃피운 사람들〉, 아버지 김형직을 주도적인 항일 투사로 묘사한 〈려명〉 전후편, 어머니 강반석은 김일성이 등장하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혁명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으며, 항일 투쟁 중에 사망한 동생 김철주는 〈영생〉에서 처절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9. 기록영화

다큐멘터리 기록물을 지칭하는 북한의 기록영화는 현실에 실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영화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사실성이며, 이 사실성은 기록영화를 실재하는 사실을 가공하여 반영하는 극영화와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록영화는 모두 ‘조선기록영화촬영소(후신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는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쫓김일성·김정일 행사와 행적의 과장 및 미화 : 〈인민의 염원〉(김일성이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은 시간에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1985), 〈위대한 아버지 품〉(사회주의적 대가정에서 수령이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현지도의 모습과 이러한 수령의 은덕에 힘입어 사회의 공로자로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1985)

쫓변모 발전했다는 북한사회의 모습, 도시·농촌·공장 등의 모습과 생산광경 : 〈공화국이 걸어 온 승리의 45년〉(해방이후 북한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설명하는 영화, 1993), 〈90년대의 참된 선동원〉(금야군 신성협동농장의 선동원 조명숙이 무엇보다 가정을 가진 여성의 몸으로 훌륭하게 선동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90년대의 참된 선동원임을 보여주는 영화)

쫓자연·지리·사적 등의 선전 및 소개 : 〈금수강산 내나라〉(금강산과 묘향산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화), 〈금강산〉(천하명산 금강산의 봄과 가을 풍광 및 전설, 문화재, 식생,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을 소개한 영화, 1973)

쫓전쟁기록 : 〈승리자들의 추억〉(북한의 전승기념일(7. 27) 42돛을 맞아 공화국 영웅들의 추억을 통해 한국전쟁(북 :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의 ‘미제’를 상대로 승리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수령의 주체전법, 승리의 신심, 혁명적 낙관주의를 분석하고, 전쟁에서 죽은 인민군 열사를 추모하는 기록영화, 1993)

쫓중요 행사 : 〈김일성 주석 탄생 경축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70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모습, 즉 축포와 화려한 네온싸인, 각종 민요와 찬양가, 집단 무용 및 교예단의 재주, 해외에서 온 유명인사들의 모습, 만세 삼창 등을 보여주는 영화)

북한 최초의 기록영화는 1946년 제작된 〈우리의 건설〉이라는 작품이다. 이러한 기록영화는 역사문헌영화, 정론영화, 사건기록영화, 시사보도영화(현지도영화, 행사기록영화), 기행영화 등으로 분류된다. 역사문헌영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행적을 미화, 그들의 우상 선전과 함께 주민들의 충성심 제고를 목적으로 제작된다. 예를 들면 〈김일성 원수 항일유격전적

지> (1955) 등이다. 정론영화는 <풍년> (1962)처럼 예술영화에서의 노동력 선동 주제 영화와 흡사한 것으로 단지 표현방법이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 주민들의 이른바 시대정신을 일깨우는 형태로 되어 있다. 시사보도영화, 즉 시보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건이나 사변들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분량이 짧은 영화로서 <공화국 기치만세> (1963) 등이며, 기행영화는 자연, 지리, 풍토, 사적 등을 소개 선전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작가가 보고 느낀 사실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서술한 영화이다. 예를 들면 <봉산탈춤> (1987)같은 작품이다.

10. 과학영화

북한에서의 과학영화는 각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각 분야의 선진적인 경험, 의학기술 상식 등의 보급을 위해 제작되는데 ‘조선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을 담당한다. 과학영화 제작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당의 문화기술혁명에서 가장 의의 있는 문제들, 즉 해당 시기 과학 기술발전에 보다 많이 필요한 문제들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은 대중과학영화로 이것의 제작 원칙은 주어진 논리적 체계를 내용 속에 올바르게 용해시키는 문제로써, 과학법칙 등을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써가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사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생활적 감수성, 생활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서술해야 하며, 영화에서 나타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생활적인 이야기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영화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관객들이 본질을 찾기 쉽게, 조리 있고 간결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과학영화는 관객들이 신비감을 느끼도록 보다 환상적인 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영화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중과학영화, 교육교재영화, 연구용 영화로 분류된다.

대중과학영화는 일반기초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대중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교재영화는 관련부문종사자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전문 과학 기술적 문제를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용 영화는 과학탐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자료로써 각각 제작된다. 90년대 작품으로는 <강냉이밭 흙갈이>, <가득누에 보호치기>, <무병장수>, <새로운 만능분쇄기>, <질 좋은 비날론>, <건설에서의 자재절약>, <벼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강냉이 가공에서 새로운 방법>, <섭조개가공>, <산소와 열>, <주문제에 의한 상품공급>, <두부 순물로 만든 젓산 음료>, <겨울철 메탄가스 생산>, <산탄경화기술>, <밀폐식 벼종합탈곡기>, <태권도와 건강>, <플라즈마에 의한 보이라 불지피기>, <해충을 죽이는 농작물> 등을 들 수 있다.

11. 아동영화

북한의 아동영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로써 아동예술영화와 만화영화, 인형영화, 지형영화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아동영화는 처음에 ‘인형·만화영화 제작단’에서 제작을 담당했으나 1965년 이 제작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아동영화촬영소’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 흡수, 아동영화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물론 만화·인형·지형영화

는 여기서 제작되고, 아동예술영화는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다.

이러한 아동영화의 주제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우화로 된 영화문학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공산주의 도덕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우화로 된 영화문학, 과학 환상 아동영화 문학 등이다. 그러나 아동영화의 대부분이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들로서 일정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① 욕심부리지 않기, ② 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지혜로 이기기(용감과 지혜), ③ 교만하지 않기(겸손), ④ 뭉친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여주기(단결심) 등 어린이 도덕교육에 동원되는 보편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많다. 물론 어린이용 만화영화에도 주제사상적 요소나 김일성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섞여 있기는 하나, 성인용 영화에 비해 그러한 내용이 배제되거나 지극히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동영화제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동심의 구현으로 이러한 것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이 세워져 있다. 만화·인형·지형영화와 같은 아동영화는 철저하게 환상적 심리에 기초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만화·인형 등 소재의 특성상, 그리고 아동들의 사고 구조의 단순성을 고려, 간결하고 선명한 구성이 요구된다.

북한의 아동영화는 단순한 아동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교양하는 수단으로써 집단주의, 계급의식,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등을 강조하는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영화 중 만화영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에서는 북한 만화영화인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토끼전〉, 〈령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등이 상영되어 북한 만화의 수준을 보여준 적이 있다.

12. 북한의 영화제

북한에는 두 개의 영화제가 있다. 하나는 1987년 ‘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국가 평양영화축전’으로 시작한 평양영화제로서 1996년 5회 영화제부터 평양국제영화제(일명 평양영화축전)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개방적인 성격의 격년제 국제영화제로 탈바꿈했다. 이 대회의 평양 개최는 1983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 1차 비동맹 교육문화장관회의의 합의와 1986년 제 8차 비동맹정상회의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제 1차 영화제에서는 장편예술영화 46편, 단편예술영화 42편, 만화영화 22편 등 총 29개국의 110편의 영화가 출품되었다. 최고상인 ‘햇불금상’은 제 1회는 〈도라지꽃〉(북한, 극영화), 〈젊은 심장을 가진 사람〉(쿠바, 다큐멘터리, 단편), 〈도적을 쳐부순 소년〉(북한, 만화영화) 등이 수상했다. 1990년 제 2회의 수상작은 총 80여 편 중에서 임수경의 밀입북을 다룬 기록영화 〈통일꽃〉이 햇불금상을 수상했으며, 오미란은 1회와 2회 모두에서 최우수 여자주연상을 받았다. 1992년의 3회 영화제는 44개국에서 온 48편의 극영화와 50편의 기록영화가 출품된 가운데 〈민족과 운명〉(2부, 북한, 극영화), 〈연기에 휩싸인 도시〉(폴란드, 기록영화부문) 등이 수상했다. 현재 이 영화제는 격년제로 운영되며 2000년 제 7회까지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국제 영화제는 남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자유로운 영화제가 아니다. 2000년도에 열린 이 영화제에 다녀온 동독 출신의 영화 기자 마크 지크문트는 “자유로

운 관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힘들다. 일단 다른 국제영화제들과 ‘매우 다른’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외국 게스트들은 나를 포함해서 40여명 정도였는데, 이권 영화제에 온 것이 아니었다. 안내원들이 원하는 정해진 코스를 다녀야 했으니까. 김일성 주체탑이라든가 인민궁전같은 것 말이다. 간신히 본 영화도 북한영화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의 대지〉를 포함해서 극영화 2편, 다큐멘터리 4편 정도」 〈사랑의 대지〉는.. 우..참으로 고통스러웠다. 러닝 타임도 3시간이 넘었고.”라고 평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영화제는 1991년에 시작한 북한의 국내 영화제로서 조선영화축전이 있다. 국내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또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鸞遮?슬로건으로 개최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 행사 중 문화예술행사 중 하나로 국제영화축전이 열렸다는 기록도 있다. 장소는 평양국제 영화회관과 대동문 영화관이었으며, 북한 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렴〉 등과 수십 개국에서 온 15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3. 북한 영화의 국제교류

북한 영화의 국제 교류는 순수 영화적 관계에 의한 교류라기보다는 대개 북한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격년제로 열리는 평양국제영화제 등도 있고 외국의 영화제에 북한 영화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외교 관계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과 밀접한 교류를 가진 나라는 역시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문화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북한의 예술인들이 문화 사절단으로 참가하여 그들의 문화적 성과를 배우는 방식이었다. 문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 특히 1977년 북한과 소련이 ‘영화협조계획서’를 체결한 이후로는 영화 기술 지원, 영화인 상호 방문, 영화 감상 주간 개최, ‘모스 필름’의 북한 영화 기술자 초청, 기술자 연수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1979년 소련 영화인 축전에 참가했으며, 1985년 5월에는 조선 영화인 동맹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했고, 그해 8월에는 소련의 ‘조선 영화 상영 주간’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 1986년에는 조선과학영화대표단과 조선영화대표단, 소련영화대표단이 상호 5회씩 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와는 영화협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해방 직후 평양에서 열린 군중 집회에서 김일성을 암살하려는 폭탄 투척을 몸으로 막은 소련군 장교 도브첸코의 이야기를 다룬 〈영원한 전우〉(1,2부)는 해방 4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 창작단과 모스 필름 제 2창작단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경우처럼 평양에서 중국영화 감상 주간(1978, 1979)을 갖거나, 북한 영화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옛 동구권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로비아 등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몽고,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쿠바, 이집트, 우간다 등 북한과 깊은 외교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반미 공동 투쟁 기간을 통한 영화 상영, 북한의 기록 영화 보내기, 상호 영화 감상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가졌다. 이 외에도 북한은 소련 및 구 동구권의 정권이 무너지기까지는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1986년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는 〈봄날의 눈석이〉와 감독 임창범과 고학림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베

를린 국제영화제 등에도 참가했으며, 1986년에는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조선 영화 회고 상영 주간을 갖기도 했다. 퐁피두 센터에서 한국 영화 상영 주간을 가졌던 것보다 약 8년 빠른 시점이었다. 또 북한에서 가장 인기있는 영화 중의 하나인 <홍길동>(1986)의 제작에는 홍콩의 유명한 무술영화 감독인 호금전이 기술 스태프로 참가하는 등 주로 영화의 오락 기술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방 세계의 기술진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의 영화 수출입은 조선영화수출입사에서 담당하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이나 중국의 정책적 영화를 주로 수입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동구권 영화와 인도, 아프리카 등 비동맹국 영화도 수입했다. 이런 영화들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사회윤리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삭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영화의 수출은 일본의 친북 조선인들을 위해 조총련을 통한 배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꽃파는 처녀>가 싱가포르에 수출되어 인기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다.

14. 북한의 대표적인 감독

북한의 영화인들은 촬영이 없더라도 매일 출근을 하며 ‘기량 훈련’을 하거나 다른 일을 보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문화어’(평안도 말과 함경도 말을 합친 북한의 표준어)를 써야 하고, 삼각 관계나 키스 장면 등은 없는 편이다. 북한의 영화인들은 그 공로에 따라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집, 월급 등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한다.

북한의 감독들은 대체로 3기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 1세대의 대표적 감독으로는 박 학, 천인봉, 윤용규, 최익규, 최남선 등이 있다. 해방 후 처음 제작된 극영화 <내고향>(1949)의 감독을 맡았고 북한영화사에 그 이름을 새긴 강홍식은 그후 <행복의 길>, <애정>(1959), <붉은 신호탄>(1960), <행복의 서곡>(1960)과 많은 히트작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평가받지는 못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만들어진 <또 다시 전선으로>를 감독한 천상인은 이 작품으로 감독이 되어 그 후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수많은 인기작품을 만든 대감독이 되었다. 그는 <미래를 사랑하라>(1959), <붉은 꽃>(1963), <인민교원>(1964) 등 계속 우수작을 만들었다. 이중 박 학은 항일투쟁기의 빨치산 영화라고 불리는 장르를 정착시킨 감독이다. 그는 초기에 <분계선 마을에서>(1961), <붉은 선동원>(1962), <독로강변에 핀 꽃>(1964), <한 지대장의 이야기>(1965) 등 해방 전 항일 빨치산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후 그는 북한영화 중 최고의 국제적 평가를 받은 <꽃파는 처녀>(1972년 카를로비바리 국제 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특별상 수상)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헤어져 살 수는 없다>(1957), <최학신의 일가>(1966)을 만든 오병초, <성장의 길에서> 후편과 <조선지도 이야기>의 전운봉, <빨치산 소녀>의 윤용규 등이 유명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활동이 두드러진 감독이 제 2세대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바다>(1969), <꽃파는 처녀>(1972), <한 자위단원의 운명>(1970), <백두산>, <조선의 별>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북한의 1세대 감독들은 2세대 감독들에게 주역을 넘기게 된다. 이 중 엄길선은 가장 대표적인 제 2세대 영화감독이다. 그는 <성장의 길에서>, <유격대의 오형제> 등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하여 뛰어난 역량을 보였는데, 이후 <백두산>,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의 감독을

맡아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과 〈조선의 별〉을 연출함으로써 북한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쌓았다. 이 외에도 〈월미도〉의 감독 주경진과 〈설죽화〉(1982)를 시작으로 많은 역사영화를 만든 유원춘 등이 대표적인 감독으로 꼽힌다. 제2세대 감독들의 특징으로는 그들이 제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장르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감독으로는 〈홍길동〉을 만든 김기림, 20년 간을 끌어온 남녀의 삼각관계를 묘사한 〈기쁨과 슬픔을 넘어서〉(1986)로 멜로 드라마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윤기찬, 한국전쟁 당시 농촌을 배경으로 섬세한 형상연출을 한 〈아무도 알 수 없다〉(1990)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건조 등이 있다. 영화 문학(시나리오)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로인 백인준, 리종순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김일성을 영웅적으로 그린 〈민족의 태양〉을 만든 영화 문학 작가나 감독으로 김희봉(작가), 박찬성, 리계준(이상 감독) 등이 있다.

15. 북한 영화의 역사

북한 영화의 역사는 이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의 확립 시기와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둘러싼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1) 건설시기(1945. 8 - 1950. 6)

이른바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는 노래와 연극 등은 있었지만 영화 작품은 없었다. 북한은 이 시기의 공백을 나운규의 〈아리랑〉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카프 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채우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예술 영화(극영화)는 일제와 맞서 싸우는 혁명 투사를 중심으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시대상을 비교한 〈내고향〉(김승구 작, 강홍식 연출, 1949)을 시발로 〈용광로〉(1949)등이 있으며 기록영화로는 그 첫 번째 작품인 〈우리의 건설〉(1946)과 〈인민위원회〉 등이 있다. 〈우리의 건설〉은 평양시 3.1 운동 기념 행사, 5.1절 기념 행사, 수도 평양 건설의 일환인 보통강 개수공사 등 세 개의 소재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영화의 맥아가 싹텄던 시기였고, 기술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대단히 빈궁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 시기(1950. 6 - 1953. 7)

전면적인 전쟁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는 〈국경 수비대〉(1950), 〈소년 빨치산〉(1952), 〈정찰병〉(1953) 등의 예술 영화가 있었다. 이 중 〈정찰병〉(한상운 작, 전동민 연출)은 인민군 정찰병들이 적후에서 벌이는 정찰 활동과 그 위훈을 그린 것이다. 또 〈소년 빨치산〉은 강점 당한 고향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안주 탄광소년 근위대들의 대담한 투쟁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 역시 김일성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대중적 영웅주의, 혁명적 낙관주의를 그린 것이다. 또 이 시기는 전쟁기인 만큼 기록영화가 예술영화에 비해 더 많았는데 〈아시아 여맹대회〉(천인상 작, 1952), 〈세계민청대회〉(천인상 작, 1952), 〈1950년의 2.8절〉(류득찬 작, 1952) 등이 있다. 그 외에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외화들도 제법 상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후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 시기(1953.7- 1960)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북한 사회의 최고 과제는 전후의 복구 작업과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 작품들이 이를 위해 동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8월 5일 당 중앙위 보고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와 1955년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통한 방향 제시에서 김일성은 “작가, 예술인들은 복구 건설의 벽찬 현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잘 형상화함으로써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1958년에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에서 사회주의 시대의 현실과 당 사상 사업의 사상 교양적, 동원적 역할에 대한 과업과 그 방도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영화의 내용 또한 이러한 당의 방침에 충실한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주동인 작, 1955)는 철도 일꾼들의 경제 복구 건설에서 고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신혼부부의 생활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산애〉(1957)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광부들의 비참했던 처지와 해방 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며,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한상운, 양재춘 작, 1957)는 북한과 남한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하여 통일 의지를 고무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영화 축전(1957)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어랑천〉(한 성 작, 1957)은 전쟁 시기 인민군들과 어랑당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웠다는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기록영화는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5년의 〈김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전적지〉, 〈건설의 하루〉, 〈강철〉, 〈조조친선〉 등이 있고, 1957년엔 〈평양시 창건 1530주년〉 등 26편과 시보 영화 74편이 있다.

4) 사회주의 건설과 전면적인 승리를 위한 시기(1960- 1994)

1960년 이후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80년대 전반기까지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시기’(1960-1966)와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1967-현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북한의 영화사는 1960년대를 고조기, 1970년대를 전성기, 1980년대를 더욱 높은 단계의 시기로 편의상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1966년 조선 노동당 대표자 회의를 기점으로 전개되는 유일 사상 체계 확립 추구 시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영화예술론』이 발표된 1973년, 그리고 신상옥의 탈출을 계기로 새로운 창작 지도 체계가 발표된 1986년을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되, 이후 김일성 주석 사후 시기를, 비록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뉘 보았고, 또 무엇보다 반종파 투쟁 시기를 주목하였다.

(1) 다양성 속에서 일관된 경향의 시기 (1960-1966)

1960년부터 1967년 반종파 투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기간 동안 북한 영화는 제한된 가운데서나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점은 북한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상영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영화의 ‘다양한 형태’는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 천세봉

이 쓴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가 찾은 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예일 뿐이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한 주인공의 긍정적인 모습과 아울러 부정적인 모습도 작품 속에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또 인민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품성이 있다는 것을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북한예술분야에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논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영화 분야에서 이러한 논쟁을 초래한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문학과 달리 영화는 국가 차원에서 기획되고, 촬영 이전에 이미 그 작품의 내용이 조정되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영화계는 별다른 동요 없이 북한의 기본적인 영화 정책에 발맞춘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선진적인 인텔리 출신 혁명가들인 허철만과 심혜영을 통하여 1920-1930년 초의 항일 무장 투쟁의 전개 과정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로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그리고 있는 〈한 지대장의 이야기〉(리종순 작, 박 학 연출, 1966). 남한의 4.19를 전후한 시기부터 1963년 6.3 투쟁에 이르는 격동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남한의 한 인텔리 청년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반미 반남한 정권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성장의 길에서〉(2부작, 백인준 작, 전운봉, 박창환 연출, 1965),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겪던 주인공이 북한에서는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에서 천리마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의 〈정방궁〉(한 성 작, 1963)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북한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공산주의적 성장, 반미 반남한 투쟁,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 고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천리마의 정신을 구현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교양 개조하는 내용으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폭넓게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붉은 꽃〉(리종순 작, 천상인 연출, 1963), 일제의 폭압 속에서나 현재에서나 교육을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혁명의 맥락에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민교원〉(한상운, 허용삼 작, 천상인 연출, 1964), 〈독로강변에 핀 꽃〉(김종진 작, 1965), 〈최학신의 일가〉(1965), 〈분계선 마을에서〉(리지용 작, 박 학 연출, 1961) 등이 있다. 특히 〈최학신의 일가〉는 종교라는 마술에 빠져 오랫동안 숭미 사대사상에 젖어 있던 최학신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종교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2) 반종파 투쟁 이후 시기(1967-1972)

1966년 조선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발표를 통하여 조성된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 병진 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며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려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하자는 즉 유일사상체제를 요구하였다. 특히 영화에 관해서는 1968년에 「혁명적 영화창작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하여 영화는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사상 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문학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1970년의 조선노동당 제 5차대회와 5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전개됨과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67년을 거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확립과 사회주의 체계의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까지 북한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이 기간의 북한 예술 영화들을 경향별로 그 대표작을 열거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항일혁명기의 공산주의적 성장과 투쟁

사회의 최하층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인간으로서, 피착취자로서 응당한 계급적 각오와 투쟁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오던 성녀가 유격 공장원 금선의 영향 밑에 계급의 의지와 이념으로 눈뜨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찾으며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무장 투쟁의 성원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린 〈강물은 흐른다〉(유정혁 작, 박동연, 장웅강 연출, 1967).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혁명적인 영향을 받아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이 이끄는 길만이 진정한 삶의 길, 투쟁의 길이며 그 길만이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내가 찾은 길〉(집체작, 천상인 연출, 1967). 그리고 〈유격대의 오형제〉(1968-1969), 그리고 이 시기의 대표작인 〈피바다〉(최익규 연출, 1969), 〈꽃파는 처녀〉(박 학 연출, 1972) 등이 있다.

(나) 노동계급화, 사회 혁명화

대를 이어 광산 노동을 하는 광산 노동자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로동가정〉(한복규 작, 1970)에 대해 김일성은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아버지가 노동계급이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 계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 교양과 사상 투쟁을 거쳐서만 로동 계급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혁명적 기류 속에서 농민들이 구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자신과 자기 가정, 자기 마을을 혁명화 해 나가는 모습을 병철 일가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보여 준다. 이외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 끝에 속도전을 수행하려는 세 세대들의 형상을 통하여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버리고 당 정책을 주인공다운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룬 〈사과 딸 때〉(김세륜 작, 1971) 등과 〈포구의 처녀들〉(김정흠 작, 1971), 〈우리 련차 판매원〉(신정범 작, 1972) 등이 있다.

(다) 전쟁의 회고와 고취

해방 후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와 인민 무력의 창건, 전쟁 발발과 전쟁 과정의 무훈을 그리면서 이전의 항일 혁명 투사였던 이정훈과 인민군인 인식, 만석, 세용 등의 이야기를 담은 〈전사의 맹세〉(2부작, 주동인 작, 민정식 연출, 1968)가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 김일성은 직접 “우리가 예술영화 〈전사의 맹세〉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영화에 항일 혁명 투사가 해방 후 토지 개혁과 인민 무력 건설에 직접 참가하여 그의 영향을 받아 압박 받고 천대 받던 청년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이 잘 그려졌기 때문입니다.”라고 칭찬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이 시기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1971), 〈태백산에 봄이 온다〉(1971), 〈화선에서 부르는 노래〉(1972), 〈마을을 지켜 싸운 인민무장대〉(1970) 등이 나왔다.

(3)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 시기(1973-1985)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영화계에 대한 지도는 1960년대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지도는 좀 더 본격화된다. 즉 김정일 위원장은 1973년 『영화예술론』이라는 두터운 저서를 발표하면서 영화 제작에서 주체사상과 주체의 문예 이론에 입각한 영화 예술의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수령형상의

창조'와 '혁명 전통의 묘사'에 힘을 쏟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그 외에도 북한 영화의 고유한 장르에 속하는 주제들, 예컨대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력 동원을 고무하는 영화', '공산주의적 품성을 강조하는 영화' 등은 계속 만들어졌다.

〈조선의 별〉(10부작, 1980-1987년)은 '수령 형상의 창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후 10부에 나오는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을 모티브 삼은 연작 〈민족의 태양〉이 계획되었다. 〈조선의 별〉 연작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를 배경으로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고 조선혁명의 길 위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여 조선 인민혁명군을 창건하여 항일 대전을 벌여 나가서 반일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과정을 연작으로 그린 것이다. 이런 작품으로는 〈누리에 붙는 불〉(백인준 작), 〈첫 무장 대오에서 있는 이야기〉(리종순 작)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3대 혁명 소조원에 대한 형상 창조와 숨은 영웅들의 형상 창조를 위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열 네번째 겨울〉(리춘구 작, 1980), 〈청춘의 심장〉(리춘구 작, 1981), 〈려단장의 옛상관〉(리상옥 작, 1984) 등이 있다. 그리고 당의 영도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에 주체형의 당 일군을 형상화한 〈한 당 일군에 대한 이야기〉(설주용 작, 1981), 〈군당책임비서〉(리춘구 작, 1983)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시기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로는 대부분의 예술영화들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것에 반해 군사, 전쟁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조선 2. 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월미도〉(리진우 작, 1983)가 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시 월미도를 지켜 싸운 인민군 해안포병들의 무용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북한에서의 평가는 "주인공들 성격의 개성화와 대중적 영웅주의의 유기적인 통일 등으로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신필립의 해체와 김일성 주석 사후(1986- 현재)

북한 영화계에서 커다란 변화로 꼽을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남한 출신의 감독 신상옥과 여배우 최은희의 탈출 사건이다. 북한은 이 부부 영화인들을 통하여 북한 영화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신상옥에게 최대의 혜택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는 탈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북한 영화계는 신필립에 부여하였던 일정한 자율권을 다시 당의 지도 속으로 되찾는 한편 그 후유증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사후 환경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 영화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여하튼 북한 영화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역시 당과 주체사상의 입장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민족의 태양〉 연작이 1987년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전 시기에 시작한 다부작 〈민족과 운명〉은 1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7부까지 나왔으며 현재까지 57부작이 나왔다. 김일성 주석 사후와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영화는 표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영화에서 새로운 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른바 오락성의 강화라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홍길동〉과 〈명령 027호〉(198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민중을 구하는 의적의 얘기를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협 액션의 재미가 시청의 핵심 요소이며, 후자 역시 한국전쟁 시절 남측에 침투하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특공대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실제 시청의 핵심은 그들이 벌이는 무술이다. 또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영화는 대중들의 오락적 관심에 보

다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온달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등 역시 사상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의 흥미를 끌어 모으기 위해 활극 장르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낙랑’과 ‘고구려’의 공주와 왕자의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아야 하며 특히 외국의 힘에 의지하는 낙랑왕을 비판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북한이 남북교섭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주제들을 예술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다소 거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배경 처리에서 파스텔류를 사용한다거나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 등은 북한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 북한 영화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홍길동〉과 〈온달전〉이다. 이 영화에는 활극 그 자체를 주요한 오락 거리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카메라로 담는데도 홍콩의 활극 영화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급격한 줌 렌즈의 사용이라든가 줌과 패닝을 복합시켜 인물과 상황의 분위기를 과장되게 전달하는 것 등이 뚜렷한 특징이다. 또 단선적인 인물 묘사와 주제 전달에 벗어나 인간의 갈등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복선의 드라마 구조를 선택한 것도 북한 영화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북한 영화의 활극은 엉성하고 홍콩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현란한 특수 효과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북한에서 이 영화들은 대단히 인기를 끌어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활극을 통하여서도 애국적 정열을 호소하는 모습은 북한 영화가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질적인 맥락은 그대로 둔 채 영웅적 소재에서 대중들에게 친근한 소재로, 사실주의적 묘사보다는 흥미를 끄는 묘사로 북한 영화는 조금이나마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부자 조류학자를 매개로 다룬 〈새〉는 그야말로 이산가족의 아픔과 환경의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묘사한 평작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북한 영화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부를 수는 없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나온 것이 분명한 〈추억 속에 영원하리〉(강중모 연출)는 군인들의 농사 지원 사업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먼 훗날의 나의 모습〉(장인학 연출)은 ‘노력 영웅’의 아들이지만 혁명 정신이 없는 청년이 과오를 뉘우치고 대덕단 지역에서 훌륭하게 트랙터 기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6. 북한 영화 베스트 10

북한 이탈 주민 약 40명을 대상으로 북한 영화 베스트 10을 선정케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본 영화들 중 좋아했던 영화들을 묻는 설문은 수령형상 창조 영화(김일성 부자의 영웅담을 주제로 한 영화), 노력동원 영화, 전쟁영화, 기타 등으로 구분했는데, 전쟁영화에 관한 선호도가 70%였고, 수령형상창조 영화와 노력동원영화는 각 5%씩이었으며, 기타 〈민족과 운명〉이 3명, 애정영화 2명 등 기타가 20%였다. 또 북한영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1, 좋다 9, 보통이다 19, 나쁘다 8, 아주 나쁘다 1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나 남녀, 연령대와는 무관한 결과였다. 그들의 특수한 위치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정 결과가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 의한 북한 영화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참고가 될 것이다.

1위. 〈홍길동〉 20, 2위. 〈림격정〉 17, 2위. 〈민족과 운명〉 17, 4위. 〈봄날의 눈식

이> 15, 5위. <이름없는 영웅들> 14, 6위. <도라지 꽃> 13, 7위. <명령 027호> 11, 7위. <보증> 11, 9위. <조선의 별> 10, 10위. <군당 책임비서> 8, 10위. <춘향전> 8, 12위. <종군 기자의 수기> 6, 12위. <사랑 사랑 내사랑> 6, 14위. <밀림이 설레인다> 6, 14위. <붉은 단풍잎> 6, 16위. <철길을 따라 천만리> 5, 16위. <금희와 은희의 운명> 5, 16위. <월미도> 5, 19위. <꽃파는 처녀> 4, 19위. <길> 4, 19위. <돌아설 수 없다> 4, 19위. <달매와 뱀다리> 4, 19위. <은비녀> 4, 24위. <산정의 수리개> 3, 24위. <검은 장미> 3, 24위. <님을 위한 교향시> 3, 24위. <생의 흔적> 3, 24위. <소금> 3, 24위.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3, 24위. <억센 날개> 3, 24위. <우리집 문제> 3, 24위. <혈육> 3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무협풍의 <홍길동> 과 <림격정> 이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을 배경으로 체제의 우수성을 표현한 <민족과 운명> 이나 김일성을 영웅적으로 그린 <조선의 별> 또한 상위권에 속해 있고, <춘향전> 이나 <도라지꽃>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 중에는 극소수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평범한 관객의 입장에서 또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영화를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이 설문 조사는 남한 영화에 대한 반응 또한 병행했으나 적절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했던 <공동경비구역 JSA> 와 <쉬리> 가 절반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남한에서 보고 좋아했던 영화’로 선택되었다는 점은 부기해 두기로 한다.

북한의 건축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1. 북한의 건축, 변천과정

북한에서는 일제시대 김일성이 항일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을 현대건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현대사가 시작되는 시점과 똑같이 잡고 있는데 그 시기는 크게 여섯 단계로 변천되어 왔다.

첫 번째는 ‘1920년대 후반기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의 건축’이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통치 밑에서 민족건축의 발전이 억제되고 오히려 형형색색의 반인민적인 건축이 성행했던 시기로 보았다.

두 번째는 ‘해방 후 민주건설시기 건축’이다.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인데 이 시기 건축은 화려한 장식을 억제하고 근로인민 대중의 사상미학에 적응하려고 했다. 이 당시 건축예술은 참다운 인민적인 예술, 노동계급적인 예술로 생각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에 부합된다고 믿었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시기 건축’이다. 이 시기의 건축은 대부분 전시건축물로 만들었는데 특히 지하구조물이 많다.

네 번째는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건축’이다.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1960년까지이다. 전쟁복구를 위해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여러 나라에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을 도와주었다. 이 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건축에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 이후 현대건축에 전통양식을 접목시키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건축’이다. 1961년부터 1970년 제1차 7개년계획이 진행되던 시기로 건축의 과학화, 건설부재의 대형화, 건축부재의 경량화의 기치를 걸고 건축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는 장식을 부르조아적 형식주의로 비판하는 풍조가 생겨나 무미건조한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졌다.

여섯 번째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 건축’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려는 시기인데 1970년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이다. 이때가 되면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여겨 독창적인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거대한 건축물과 기념비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기념물과 거대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김일성 유일사상을 고취하고 그 행적을 인민들에게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과 경쟁에서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북한 현대건축이 남한과 몇 가지 다른 점은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혁명기념비건축과 같은 시설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산업건물과 농업생산건물도 하나의 건축유형

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북한의 건축양식

사회주의 국가의 건축은 자본주의 국가의 건축과 다른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다. 국가 통치 이념이 다른 것이 근본적인 배경이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의 건축양식을 하나의 큰 틀로 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전해져 예술, 문학, 건축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사회 각 분야, 특히 예술 및 건축분야에 접목시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양식을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사상으로 형성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그것이 ‘주체사상’이다. 이 주체사상은 북한사회 모든 분야의 기본 이념이 되면서 건축도 주체사상을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현대건축에는 ‘주체적 미학사상’이라는 개념이 그 바탕에 깔리게 된다. 주체건축이란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주체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체건축은 “수령을 잘 모시려는 인민대중의 염원을 실현하며 수령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수령의 위대성에 결부시키고 있다. 이 말은 김정일 위원장이 저술한 『건축예술론』이라는 책에 서술해 놓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해방 후 북한의 현대건축 양식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북한에 전해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건축적 특성을 현대건축에 접목하여 만든 ‘민족주의 건축양식’인데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건축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형성을 강조하여 가능한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건축양식으로 ‘조형주의 건축양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한과 극심한 대립과정에서 북한 사회주의를 자랑하려는 생각으로 만든 남한보다 거대하고 웅장한 ‘우월주의 건축양식’을 들 수 있다.

3.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서 파생하여 발전되어온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유형이다. 실제로 마르크스 미학사상은 사회주의가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밝혔던 미학사상이나 비평을 근거로 그 추종자들이 완성시킨 미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은 마르크스-레닌 사상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되었다.

북한에서는 사실주의에 대하여 “객관적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생활자체의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현실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

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사실주의 발전의 최고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사실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우월한 창작방법이며 사실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한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과정이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의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옛날 소련과 같이 문학에서부터 예술의 모든 분야, 나아가 생활에까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확산되기에 이른다. 건축도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배치 및 평면의 구성은 중심축선과 좌우대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좌우대칭은 주로 공공시설물에 많이 표현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비대칭적인 건물도 있으나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입면에서는 층고가 높아지고 거대한 벽과 육중한 기둥을 세우며 문과 창 주위에 장식을 가미하는 것이다. 층고를 높이고 육중한 기둥을 세우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높아지고 수직선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선은 혁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신념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 지붕과 양측면 지붕 상부에 삼각형 모양의 박공면을 두고 창호의 윗부분을 반원아치로 만든다. 지붕에는 간혹 조각을 세우는데 조각의 주제는 '인민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역사 기념', '주체사상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축이 특히 많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전쟁 직후 동구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도시를 건설할 때였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4. 민족 전통주의 건축

북한에서 현대건축에 전통양식을 접목시키자는 말은 1950년대 말부터 나왔다. 이 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현대건축에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올려놓는 것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았다. 현대건축에서 이러한 민족적 형식을 대입시키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북한 사회주의에서 볼 수 있는 획일화의 특징이 건축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민족적 형식은 건축가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당시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건축가들이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건물로 평양대극장, 옥류관, 인민문화궁, 인민대학습당 등이다. 이 건물들은 도시의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도시의 상징적인 조형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민족적 형식을 공동주택과 소도시에 적용하여 만든 경우도 있다. 평안북도 구성시 성안동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에 민족적 형식을 적용한 사례가 그것이다. 2~3가구를 하나의 건물로 묶어 길게 연결하여 2층 또는 3층으로 계획하였다. 각 동의 지붕은 기와지붕으로 처리하여 입면으로 보면 민족적 형식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평안북도 향산군 향산읍 시가지는 묘향산을 끼고 있는 산간도시로서 원래 있었던 작은 마을을 자립적 휴양도시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관청, 역, 학교 등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여관, 주택 등 시가지의 모든 건축물에 기와지붕을 올렸다. 단일 건축물에 적용했던 전통양식을 도시계획에 적용한 사례이다.

전통양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쟁승리기념탑 정문과 평양 개선문이 있다.

이 두 건축에서는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부분을 석탑의 지붕과 같이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도시계획에서도 민족적 형식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시·건축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첫째, 인민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조선의 고유한 민족건축양식을 도시계획에 직접 받아들임으로서 건축예술의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며, 둘째, 도시계획에서 독창적이며 사실주의적 모범을 훌륭히 보여준 가치 있는 고전건축수법을 현대도시구성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셋째, 현대도시계획 및 현대건축물과 시설물들에 인민의 정신적 특성과 미에 대한 감각적 이상을 나타냄으로서 천리마시대, 노동당시대의 건축술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건축과 도시는 민족의 고유한 양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도 한다.

5.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건축

우월주의 건축은 하나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조형성을 강조하면서 이 건축물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미가 담겨진 건축유형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남한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유형이다. 이 시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도자수업을 받으면서 후계자로 부각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건축물은 문화현상이면서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건축물이 사회주의 국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표현물이라는 것을 북한 통치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택 보급율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하고 훌륭한 건축물로 사회주의를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조형성이 뛰어난 창조적인 건축을 세우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의 건축이론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건축학설이며 위대한 건축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 건축의 추상적이며 변태적인 조형미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며 말세기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조아 사상으로 오염시킨다고 비하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도 남북 대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평양의 건축물 중에는 이처럼 남북 경쟁과정에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 있다. 주체사상탑이나 평양개선문, 5.1경기장도 이러한 건축유형에 속한다. 이런 건축물은 기능성과 효율성보다는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건축을 “부르조아 형식주의 건축이고 편리성이 보장되지 않은 실용성이 없는 건축물이다”라고 말해 마치 쓸모 없는 듯 한 건축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건축은 “진실하고 생동한 조형미는 인민대중의 미적지향에 맞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찍이 정치권력층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 및 건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축관을 삽입시키게 되는데 2가지 측면에 중점을 둔 것 같다. 하나는 건축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의 조형성을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6.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는 조형주의 건축

조형주의 건축을 다른 말로는 ‘형태지상주의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취향과 생각이 표출된 건축유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건축가들에게 건축도 하나의 예술로 취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축설계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건물형식을 모방해서는 안되며 설계에서 유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라는 교시를 하였다. 이 교시는 북한의 모든 건축가들에게 독창적이고 특이한 건축형태를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예술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 중에서 “건축창조에서 모방은 도식과 유사성을 낳는다. 도식과 유사성에 빠지면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며 기성건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건축형태를 될 수 있으면 서로 닮지 않고, 독특하게 설계하도록 했다.

1993년 제정된 북한의 건설법에는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여 입체성과 비반복성·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같은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를 지닌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의 사상성과 시대의 요구, 인민의 사상미학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건축가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미적지향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북한 건축가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건축가는 참다운 의미에서 창작가이며 창조자이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본 따는 건축가, 한두 가지 기법에 매달려 매번 엇비슷한 건축을 창조하는 건축가는 그 이름뿐이지 창작자, 창조자로서의 건축가가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의 정책요구와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큰 지침은 북한건축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평양의 중요한 건축물을 비롯하여 고층아파트의 형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평양 광복거리의 다각형 아파트, ‘S’자형 아파트, ‘Y’자형 아파트, 바람개비형 아파트, 그리고 통일거리의 계단형 아파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아파트가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사업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주거단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그리고 높이 짓는다. 이에 비해 북한의 주거지 계획은 상업적 이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지 않고 도시 가로경관의 아름다운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남북한의 건축형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다.

7. 기념탑 건축에 담긴 사회주의

북한에서의 기념탑은 인민의 사상교육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사상, 혁명사상, 항일고취, 주체사상을 계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념탑에는 건축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조각이 포함되면서 의미와 상징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조각에 대해 예술적 가치보다는 사상미학이나 혁명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다음 글을 읽어보면 북한에서 조각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조각이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담겨져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미숙한 세계관과 낮은 과학기술수준으로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현명한 영도로 인해 일체의 사상잔재와 형식주의적 창작경향을 청산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힘입어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를 담은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조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조각도 다른 예술분야와 함께 당성과 계급성, 나아가 인민의 사상적 생활상을 사실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민족적 형식이 표현 되어야 진정한 주체조각예술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기념탑 건축 역시 조각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기념탑은 기념성이 잘 표현되어야 하지만 주민을 계도하는 사상교양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탑이 그 일대의 중심역할을 하는 신성한 공공장소가 되도록 하였고, 도시가 아닌 지역이나 사적지와 같은 곳에서는 상징성과 함께 사상교양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북한에서 기념탑을 세우는 데는 크게 2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항일투쟁이나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항일투쟁은 주로 김일성의 항일행적과 관련된 곳에 항일투쟁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념탑도 여러 곳에 건립되어 있다.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기념탑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속도전, 당창건 기념 등이 기념탑 건립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기념탑 건축은 1967년 이후 혁명사적지 정비와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8.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업시설은 자본가들에게 사유재산제도를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도시 노동자들은 빈민계층이 되면서 비위생적인 과밀주거, 질병, 환경오염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환경 좋은 교외에 거주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조밀하고 열악한 도심지에 거주하게 된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회개혁주의자들은 도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사유재산의 철폐를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념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거대한 도시를 반대한다. 도시가 커질수록 노동자의 주거환경과 직장통근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대도시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형성되었기에 농촌의 희생으로 성장된 것이라 생각하여 대도시를 반대하고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도시재개발을

비판한다. 재개발이 주거환경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거수준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다른 슬럼으로 내몰아 더 과밀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또 도시재개발은 자본가들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노동자들의 직장거리는 더 멀어져 교통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했다. 셋째, 도(都)·농(農) 통합을 추구한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개념 속에서 자본가들이 농민, 노동자를 착취하므로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도·농이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자본주의 도시병은 계획 없이 성장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섯째,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공유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본가의 이기주의나 도시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통제가 강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시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실천으로 첫째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과 주거를 철저히 분리한다. 둘째, 도시공간의 계층구조를 형성한다.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기초단위로 소구역을 설정하여 자족적인 주거단위로서 직주(職住)근접의 이상을 실현코자 하였다. 셋째, 직주근접의 원칙과 형평성을 위하여 서비스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한다. 넷째, 도심부는 이념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교통은 개인승용차보다 지하철, 무궤도전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며, 교통 유형에 따라 교통망을 체계화 시킨다. 여섯째, 도시의 토지이용 결정은 임대료나 땅값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이념이나 기술적인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했다.

9. 평양을 사회주의 모범도시로 꾸미기

북한에 사회주의적 도시계획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57년경부터이다. 북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도시를 사상교양 장소로써 도시 중심부에는 김일성 동상과 혁명기념물을 배치한다. 두 번째는 근로인민의 편리를 위하여 도시규모를 무한정 키우지 않고 대신 대도시 주위에는 작은 위성도시를 건설하며, 지역의 용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세 번째는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한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한다. 다섯 번째는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경제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설계를 표준화하여 건설의 공업화를 추구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계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합계획, 세부계획, 연도별 건설계획으로 진행한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정리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이러한 기본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1952년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 평양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아직 사회주의적 도시계획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의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이 도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바둑판 모양과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도로계획은 지금과 비슷하다. 구시가지의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배후 지역을 개발하도록 하고, 동평양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와 부분적으로 방사형 도로를 혼합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그 후 1957년 평양도시계획을 새로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평양의 인구를 100만 명으로 하고 도시영역을 대동강 동쪽과 서쪽의 보통벌, 동평양, 평천별로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 김일성광장을 대동강변 서쪽에 배치하고 교육, 문화, 보건, 편의 시설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건축밀도는 20~25%로 계획하였다. 이 때 앞에서 밝힌 도시계획의 여섯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도입한 것 같다.

북한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 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축은 도시를 잘 인식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도시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는데 김일성 주석이나 사회주의를 나타내는 조형물을 세워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도시가 인민대중의 사상교양 장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축을 두는 원칙은 평양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남포, 신의주 등 크고 작은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10. 독특한 평양의 도시계획

반세기 동안의 분단은 남북의 도시를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르게 발전, 성장시켰다. 이렇게 도시가 서로 다른 지역성을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평양은 1950년대의 전후복구를 거쳐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모범적인 사회주의 이상도시로 개발해 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 때는 제1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던 시기이다. 1970년 이후에는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면서 도시를 통해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하려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도시개발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평양을 사회주의 혁명도시로 표방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도시형태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평양의 도시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도시 전체를 사회주의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계획하고,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이어주는 상징축을 중심으로 기념비적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상업중심지역을 두지 않고 모든 편의 시설을 골고루 분포하여 배치했다. 중심 지역에는 정치, 문화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세 번째 주거지 개발은 남한에서와 같은 단지개념으로 개발하지 않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 구간을 개발하였다. 네 번째는 도시 내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넓게 하여 그 사이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두었으며, 특히 녹지 공간의 비율을 높게 만들었다.

평양의 도시구조는 선진 산업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녹지가 많고 도시공간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비록 사회주의 체제과시나 개인의 업적을 찬양하는 건축물이지만 각종 기념비적 건축물이 평양 도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평양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과 그 지류인 보통강은 평양의 도시공간을 푸르고 맑게 해주고 있다. 최근 개발된 중요 가로의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독특하게 만들어 사회주의 도시를 우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과 같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건물을 짙게워 토지 이용율을 높이거나 건물을 고층으로 높인다고 해서 도시의 효용가치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11. 새로 개발된 평양의 거리들

1980년대에 들어와 평양 외곽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평양을 사회주의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대대적으로 새롭게 개발하였다.

광복거리

평양 서남쪽 만경대구역의 약 6km의 직선거리이다. 시발점인 정임다리는 평양의 서남 관문 이기에, 건축물에 웅장하고 다양한 조형성을 도입하여 도시의 상징성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물과 고층아파트를 다양하게 배치하였다. 이 거리는 평양에서 창광거리, 통일거리와 함께 가장 계획이 잘된 거리로 자랑하는 곳이다.

도로 폭을 100m로 넓히고 건물배치는 뒤로 후퇴시켜 전면을 넓게하여 오픈공간을 많이 조성하였다. 공공시설물로 31층 규모의 청년호텔을 비롯하여 만경대소년학생궁전, 평양교예극장, 상점 등이 있고 나머지는 주거와 녹지로 조성하였다. 공공건축물은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배치하였다. 그 동안의 가로계획에서는 아파트를 비슷한 모양으로 배치하여 단조로웠는데 여기서는 구역별로 서로 다른 아파트와 공공건물을 배치하여 다양성과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一’자모양의 판상형을 비롯하여 탑형, ‘Y’자형, ‘쌍Y’자형, ‘I’자형, 계단형, 6각형, 곡선형, 바람개비형 등 다양하게 세웠다. 층수는 8층에서부터 42층의 초고층까지 다양하게 만들었다.

통일거리

1992년 완공되었는데 대동강의 섬 양각도 남쪽 강변의 긴 도로를 중심으로 거의 평평한 구릉지대이다. 길이는 약 5km이다. 북쪽으로 대동강이 넓게 펼쳐지고 강건너로 새로 개발된 청춘거리의 다양한 건축물들이 형성되어 있다. 인도를 제외한 차도 폭은 48m이고, 도로 좌우에는 18층, 20층, 25층의 고층아파트가 서있다. 아파트 동수는 30여 개로 2만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 아파트는 타워형, 판상형 등 다양한 형태가 구획마다 서로 다르게 배치되고, 이밖에 공공건물, 상가 등을 골고루 배치하였다. 판상형 고층아파트 한 동의 길이는 300~400여 미터로 한 동에 평균 500~600 세대가 거주한다. 이 거리는 구간별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1,2호는 긴 꺾음형 아파트를 묶어서 배치하고, 3호는 긴 꺾음형 아파트, 4호는 단식묶음 아파트, 6호는 12층에서 20층에 이르기까지 단식주택들과 긴 건물들을 혼합하여 배치하였다. 7호는 병풍식으로, 8호는 긴 꺾음식 아파트로 계획하였다.

이 거리의 2-1호동 아파트는 통일거리와 충성의 다리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8층의 병풍식으로 계획되었다. 4-1호동 아파트는 커다란 방형 평면이 고층으로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점차 줄어드는 계단모양을 하고 있다. 6-4호동 아파트는 통일거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이다. 12개의 동을 ‘ㄱ’자와 ‘ㄴ’자로 연결시킨 ‘꺾음식 살림집’으로 전체 길이가 320m에 달한다. 전체 길이 중 반은 12층이고, 나머지는 반은 20층, 18층, 16층, 14층으로 하여 입면에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 북한의 살림집

북한에서는 주택을 순수한 우리말로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60년대 중반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하면서 살림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그리고 사적유물론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살림집은 다른 물질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계급적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하나 집 그 자체만은 계급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이 집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연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양한 살림집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층에 따라 주거형태와 면적이 다르다. 1992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0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라고 하여 모든 주택을 국가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28조에는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라고 하여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런 근거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이용권은 노동자, 사무원, 농민에게 넘겨주고 있다.

주택은 인간이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만들어 낸 하나의 물질적 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주거문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사회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나라에서 모든 세대에 주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우리보다 높은 100퍼센트라고 선전한다.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100퍼센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건축자재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보니 자연히 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이 짓기 위해 주택 면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기본적인 거주활동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대량생산과 품질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자재는 단열과 방음 효과가 떨어지고,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들어와 평양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세대별 면적을 좀더 크게 하고, 좀더 좋아진 재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13. 평양의 아파트

평양에는 근래에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크게 자랑하고 있다.

광복거리아파트의 외부는 강한 수평요소를 기본으로 입체적인 변화에 의한 수직요소를 적용하였다. 면이 크고 반복되는 건물에서는 발코니로 변화를 주었다. 아파트의 평면계획과 가구배치는 노동자, 기술자,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인 등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가구당 면적을 보면 방이 2개인 가구는 95㎡(약28평), 방이 3개인 가구는 108㎡(약33평)이다.

광복거리 ‘Y’자형 아파트는 30층 규모로 한층에 15세대여서 한 동은 450세대가 된다. ‘Y’자 모양 끝부분에 하나의 홀을 중심으로 4세대가 원형으로 배치되고, 중심부에 또 하나의 홀을

중심으로 3개의 주거단위가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홀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쪽이 외기에 면해 있고 2개의 큰방과 2개의 작은 방, 부엌, 욕실 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큰방에는 또 하나의 작은 화장실이 달려 있다.

광복거리 곡선형 아파트는 여러 세대를 'S'자 모양으로 만들거나 'C'자모양의 거대한 아파트로 만든 것이다. 거대한 판상형을 둥글게 곡선으로 만든 것이다. 6각형 아파트는 하나의동에 4세대를 묶어 고층으로 올린 것이다. 이 아파트 평면은 각 홀에 하나의 계단실과 2개의 엘리베이터를 두고 양쪽으로 출입문을 두었다. 각 세대에는 2개의 방과 부엌, 욕실, 화장실로 계획되었다. 특히 이 아파트는 화장실을 욕실과 분리하고 6각형의 사선으로 인해 베란다가 모두 삼각형인 것이 특징이다. 바람개비형 아파트는 풍차의 날개 같은 바람개비가 3방향으로 뻗으면서 'Y'자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 아파트는 중심 홀부분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두고, 가운데에 긴 복도를 둔 중복도형식이다.

통일거리 2-1호동 아파트는 18층 병풍식으로 만들었다.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은 2가지 유형이다. 하나의 홀을 중심으로 4세대가 연결된다. 평면은 2~3개의 방과 부엌, 화장실로 계획되었다. 통일거리 4-1호동 아파트의 전체적인 외형은 고층부에서 바닥이 점차 줄어드는 계단모양이다. 평면은 홀형과 복도형을 절충한 것인데 하나의 홀을 중심으로 6가구가 배치된다. 이 때문에 홀이 폭 넓은 복도처럼 되었다. 세대별 평면은 전실(현관), 크고 작은 2개의 방, 부엌 그리고 위생실로 구성되었다. 최소면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실이 없어졌다. 6-4호동 아파트는 통일거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이다. 12개의 동을 연결시켜 전체 길이가 320m나 된다. 전체 길이 중 반은 12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은 14층~20층으로 다양한 층수가 되도록 했다. 이 아파트의 평면은 홀형인데 하나의 홀에 4가구를 두는 평면과 3가구를 두는 평면으로 구분된다. 각 단위 평면은 2~3개의 방과 부엌, 위생실로 계획되었다.

14. 북한의 농촌주택

원칙적으로 거대한 도시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성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농촌주거계획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도시의 규모를 적절하게 제한하려면 농촌 주거환경이 좋아야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주거지를 자유롭게 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농촌 주거계획에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경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경지는 반경 2km 이내에 둔다. 그러나 평지일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산간일 경우 이보다 좀 작아진다. 둘째, 가능한 농경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한다. 지형이 조금 높은 경사지를 주택지로 이용하면 농경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변 가까운 곳에 수원지를 확보하여 높은 곳에 저수조를 만들어 두도록 한다. 넷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농촌주거단지는 공업생산지와 다리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 있으며, 전시용으로 철도와 200m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다. 저수지 아래 부분에는 주거지를 만들지 않고, 산지의 주택은 유사시 후방병원과 전시시설로 사용하도록 한다.

북한에서 주거계획은 농촌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중심주거지역'과 '기본주거

단지', 그리고 '분조'로 나누어 계획한다.

'중심주거지'는 합작농장관리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작업반을 두고 있다. 작업반의 규모는 100~200가구이며, 경작지 규모는 1,500㎡~2,000㎡정도이다. 이에 따라 단지의 규모는 200가구 이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가구 정도인 곳도 있다.

'기본주거단지'의 규모는 1개의 작업반을 두고 약 100가구 정도가 된다. 평야지대는 이보다 좀더 클 수도 있다.

'분조'마을의 규모는 약 10가구 내외이다. 평야지대에는 일반적으로 중심주거단지와 기본주거단지 2개만 둔다. 각 주거단지의 규모는 경작지 분포, 작업반의 크기,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분조의 규모는 대체로 5~12가구이고, 작업반 규모는 25~50가구이다. 생활단위와 생산단위조직에 따라 2~3개의 주택군을 한데 묶어 배치하기도 한다.

농촌주택은 1가구로 된 단독형도 있지만 대부분 2가구 이상 연립주택으로 만든다. 이는 벽을 함께 씌으로써 자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크기는 11.4m×4.5m로 한다. 마당을 포함한 동당 면적은 담 안에 채소밭을 둘 경우 380㎡~400㎡이고, 담 안에 채소밭을 두지 않을 경우 220㎡~240㎡로 한다. 농사일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집단농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주택에 농기구나 기계를 놓아두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농촌주택의 면적이 커 질 수가 없다. 주택의 면적은 건립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5. 북한 대학의 건축교육

북한에서는 기술교육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1947년 <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기술천시사상을 청산하고, 27개였던 기존의 기술학교 외에 17개의 기술전문학교를 더 만드는 것이다. 이미 있던 부실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실험실습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각 건물, 공장, 작업장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술교육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는 대학에서 5년제 건축과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미 전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건축가, 도시계획가, 기술자로 양성하였다.

건축공학과에서는 1~2학년 때 도학, 측량, 이론역학 등 기초과목을 배우고 3~4학년에 전공과목을 배운다. 대개 전공과목과 비전공 과목의 비율은 7:3 정도가 된다. 다른 대학과 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조선노동당 역사, 정치경제학, 변증법적 유물론 등 공산주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외국어로는 러시아어를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수학, 체육, 화학, 측량, 도학 등을 배우고 나서 전공과목을 배운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건축설계인데 1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 8학기에 걸쳐 배운다. 특히 4학년 2학기에는 매주 10시간, 5학년 1학기에는 매주 17시간을 하도록 하였다. 5학년에는 건축설계와 건설조직 및 계획 등 주로 설계실무와 관계된 과목을 배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은 건축구조관련 과목이다. 건축구조와 관련된 과목으로는 고등수학, 물리, 이론역학, 건축구조, 건축물리, 건축역학, 건설구조, 지반과 기초 등이다. 과목은 강의와 실험, 세미나연습으로 구성되는데 약 ⅔는 강의이고, ⅓은 실험 또는 세미나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건축역사, 미술실기, 건설경제, 건축시공, 건축설비, 도시 및 주거지계획 등을 배우고 있다.

건축학과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인 교양과목을 공통적으로 익히고 나서 미술실기, 데생, 수채화, 조각 등 조형감각을 익히는 과목을 배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미술실기, 데생, 수채화, 조각을 배우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건설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을 배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을 엄격하게 분리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평양의 건설대학에는 건설산업, 건설, 수력발전, 운수건설, 건설지질, 도시건설, 건설경제, 지도 및 측량 등 모두 9개 강좌가 있었으며 113명의 교수가 1주일 평균 36시간을 강의한다고 한다. 1980년부터 건설건재대학 외에 건설단과대학을 평양, 청진, 함흥 등지에 건립하고, 또한 각 도마다 건설전문학교를 두고있다.

16. 중국에서도 소문난 평양의 건설건재대학

평양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때 유명했던 건설건재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일제 때부터 있었던 평양공업전문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직후 김일성대학을 만들면서 평양공업전문학교를 이 대학 공학부로 편입시켰다. 그 후 김일성대학 공학부를 독립시켜 평양공업대학을 만들었다. 평양공업대학은 다시 김책공업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전쟁복구와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김책공업대학의 건축공업학부를 따로 떼내어 평양건축대학을 새로 만들었다. 이 학교가 몇 년 후 평양건설대학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당시 대학에는 건축학부, 건설공학부, 시설공학부의 3개 학부를 두고있었다. 각 학부에 설치된 학과를 보면 건축학부에 2개학과(건축학과, 도시경영학과), 건설공학부에 1개학과(건설공학과), 시설공학부에 3개학과(수리건설학과, 교량 및 터널학과, 도시건설 및 측량공학과) 등 모두 6개학과이다. 평양건축대학이 평양건설대학으로 바뀌면서 건설공학부의 토목관련학과는 김책공업대학의 운수공학부와 합쳐 평양운수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모든 운수(運輸)와 관련된 건설교육은 이곳에서 교육하도록 하였다. 수리건설관련학과는 평양수리대학이 설립되면서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평양수리대학은 1965년 함흥으로 옮겨져 현재 수리동력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7년 평양운수대학 운수건설학부에 있던 도로학과, 교량학과를 평양건설대학 도시경영학부로 옮기고 그 후 이름을 건설건재대학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편제로 바뀌기 전 평양건설건재대학에는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도시경영학부, 건설기계학부, 건재학부로 나누어져 있고, 건축학부에서는 단지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생소한 도시경영학부에는 도시경영, 교량, 도로, 지하구조물, 원림 등의 전공분야를, 건재학부에는 유기재료와 무기재료 등의 전공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이 대학의 일부 학과는 5년제로 운영되고, 학부로는 건설재료학부, 건축학부, 설계학부, 미술학부, 경영학부와 그리고 박사원을 두고 있으며 학생 수는 약 3,000명 정도이다.

건설건재대학 캠퍼스는 원래 본평양의 중구역 대동교 입구인 중성동에 있었으나 1980년대 초 동평양의 대동강구역 대동강동으로 옮겼다. 원래 있던 캠퍼스 자리에는 현재 정부기관이 들어왔다. 이 학교는 공산권에서 건축분야의 우수한 대학으로 이름이 나있어 198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이 학교에 많이 다녔다. 지금도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양 건설건재대학 졸업생들이 건축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17. 북한의 건축가와 설계사업소

북한에서도 남한과 같이 ‘건축가’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설계사’라는 공식용어를 많이 쓴다. 설계사는 1급~5급까지 등급이 있고, 준설계원은 1~4급이 있다.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 지나면 5급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여기에 합격되어야 5급을 준다. 그 후 매년마다 3년 주기로 설계원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떨어지면 1등급이 낮아지고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여 원상복귀 할 수 있다. 시험은 전공과목과 외국어를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고 이밖에 소논문 발표와 그 동안의 공적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규정에는 3년에 1등급씩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지나야 3급설계원이 될 수 있다. 2급설계원이 되어야 공훈설계원, 1급설계원이 되어야 인민설계원이 될 수 있다. 준설계원은 고등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해당된다. 직급은 준기사, 기사 등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설계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설계업무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자격이 없다. 이들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특별히 공로가 있는 기술자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기사’자격을 수여하고 이들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자격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없다. 모든 설계사업소는 국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곳의 통제를 받는다. 평양에 약 80여 개소의 설계사업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양시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 ‘평양도시설계사업소’가 있고, 국가건설위원회 소속의 ‘중앙표준설계사업소’와 중앙당 재정경제부 소속 ‘백두산건축연구원’ 등이 있다. 그밖에 정부원, 위원회, 성, 총국 등에 소속된 설계사업소가 있다.

지방에는 그 지방의 규모에 맞게 소규모 설계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도마다 건설위원회 소속의 도시설계사업소가 있으며, 도인민위원회 산하 총국단위로 작은 규모의 설계사업소가 있다. 설계안의 승인은 투자금액에 따라 국가건설위원회 해당 심사국 또는 각 도, 정부원산하위원회, 성의 심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될 수 있다. 해당 기업소, 공장의 설계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설계는 시공설계(실시설계)만 허용하고 투자금액은 승인 받지 못한다.

간혹 국가적인 현상설계 경기가 있으면 각 단위 설계사업소에 작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설계의 최종안은 최고 통치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계안으로 당선되더라도 건축가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고 설계사업소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18. 김일성 주석이 사랑했던 건축가 김정희

김정희는 일제 때 대동강 두루섬의 지주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던 중 김일성을 만나게 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경이었다. 김일성은 김정희를 통해, 김정희는 김일성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꿈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김일성이 처음 그에게 맡긴 직책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건설부장’이었다. 이를 기

화로 조선건축가동맹을 조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후 김정희는 해방 후 북한의 첫 번째 해외 유학생에 선발되어 모스크바 건축아카데미로 유학을 간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희에게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국가건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격려하고 돌아갔다.

한국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1월 김정희는 잠시 귀국하여 전쟁 후 평양시 복구건설계획을 맡게 된다. 김일성은 집무실 가까이에 그의 작업실을 주고 경호원을 붙여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 후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 남은 유학기간을 마쳤다.

유학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건축계를 이끌게 된다. 이 때 그의 직책은 내각 도시설계총국장 겸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정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북한은 195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제4차 국제건축가협회(UIA) 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에 가입했다. 국제적인 그의 활동은 북한 건축의 위상을 높였고, 한편으로는 김일성이 평생 꿈꾸었던 사회주의 모범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965년 초 그는 휴양각 건설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있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이 일로 인해 평안남도 도시설계사업소 안주분소장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그 동안 건축계에 헌신한 공로와 어려울 때 김일성을 도와준 것이 참조되어 완전히 숙청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준 것 같다.

안주분소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가 1972년 3월초였다. 김일성은 그곳의 고위 인사에게 김정희의 신변을 부탁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몇 년 후 안주분소장에서 평안남도 도시설계사업소장으로 승진되면서 남다른 충성심을 발휘하였다. 김일성이 그를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1975년 11월 어느날 그는 건설 현장 감리 중 굴뚝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김정희가 사망하자 김일성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족들을 평양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도록 배려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 영화관계자에게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는데 이 영화는 바로 건축가 김정희가 모델이다. 최고 통치자의 건축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일화이다.

19. 김정일 위원장의 건축에 대한 생각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다. 선대에 이루어 놓은 도시 기반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축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바탕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관여하면서 건축가들에게 “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건축창작도 반드시 비반복적이어야 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절대로 다른 건물형식을 본 따려 해서는 안 된다. 설계에서 유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다”라는 교시를 했고, 이 때문에 북한의 건축가들은 건축의 다양한 창조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부상과 함께 그의 건축 이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주장해왔던

건축 이론을 근거로 이른바 ‘조형성 형태주의 건축’ 또는 ‘형태지상주의 건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말한 주체건축 이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2년 『건축예술론』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 서문에서 “주체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계획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 창조를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주체건축이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식의 건축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에서는 또한 주체건축에 대하여 “주체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건축 학설이며 위대한 건축 강령이다”라고 적고 있다.

당의 정책요구와 인민대중의 미적 지향이라는 두 가지 큰 지침은 김정일 등장 이후 북한 건축이 나아가는 중요한 방향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건축가들에게 새롭고 독창적인 건축조형을 만들어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권력층으로 부각되면서 거대한 건축물과 기념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김일성 유일사상을 고취하고 그의 행적을 전 인민에게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과 경쟁적인 대립을 생각해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남북의 극심한 대립은 건축에서도 남북대립이라는 경쟁심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주체건축을 앞세워 체제 우월성과 결부시키면서 건축물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20. 재미있는 북한의 건축용어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 당국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인 ‘국어순화운동’을 전개한다.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의 주관으로 생활용어에서부터 전문용어들, 특히 한문, 영문, 러시아 문들을 우리말로 고치는데 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몇 가지를 제안하여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 때 건축분야에서도 한문, 영문 용어들이 우리말로 바꾸게 되었다.

한자어인 주택을 ‘살림집’으로 고치고 건물의 각 실도 우리말로 고쳤다. 거실을 ‘살림방’, 대기실을 ‘기다림방’, 응접실을 ‘손맞이방’, 세탁실은 ‘빨래간’, 샤워실은 ‘물맞이간’, 탈의실을 ‘옷갈이칸’, 화장실을 ‘위생실’ 등으로 고쳤다. 영어로 사용된 용어 중 발코니는 ‘내민퇴’, 베란다는 ‘퇴칸’ 또는 ‘해맞이칸’, 테라스는 ‘내민대’ 또는 ‘편편대’ 등으로 바뀌 부르게 하였다. 이 중에는 바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안만 하고 쓰이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동안 사용되어왔던 건축용어 중에는 일본식 용어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일체식벽은 ‘통짜식벽’, 조립식은 ‘맞춤식’, 마찰말뚝은 ‘매달린말뚝’, 지주식말뚝은 ‘박힌말뚝’, 타향식말뚝은 ‘때림말뚝’ 등이다. 건축구조용어 중에서 하중은 ‘짐’, 집중하중은 ‘몰킨짐’, 분포하중은 ‘널린짐’, 등분포하중은 ‘고루널린짐’, 자중은 ‘제무게’, 켄틸레버는 ‘내민보’ 등으로 고쳤다.

고건축에서 사용하던 한문식 표기를 우리말로 고쳤는데 예를 들면 사찰을 ‘절간’, 석굴사원을 ‘돌굴절간’, 루정은 ‘다락문건축’, 사당은 ‘제사집’, 목탑은 ‘나무탑’ 맞배집을 ‘배집’, 배흘림기둥을 ‘배부른기둥’, 동자주를 ‘아이기둥’, 쇠서를 ‘소혀’ 안솔림을 ‘안기울임’ 등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재미있는 것 중에는 불상 뒤에 세워두는 광배(光背)를 ‘빛너울’, 추녀 끝에 걸어두는 풍경(風

磬)을 ‘바람중’과 같이 순수한 우리말로 고쳐부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고친 용어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절터’, ‘탑터’, ‘벽돌탑’, ‘무덤간’ 등은 남한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건축에서는 옛날부터 쓰던 용어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

북한의 건축용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쓴 것, 두 번째는 뜻은 같으나 이름이 조금 다른 것, 세 번째는 전혀 생소한 용어로 고쳐 쓰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은 많은 건축용어를 이처럼 서로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잘 고친 것도 있다. 이제 남북이 만나 좋은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민족동질성을 찾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체육

박 영 옥
(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진흥’(sport promotion)정책이란 정부가 자국 국민이 더 많이 스포츠 혹은 신체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국제적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실력(Performance level)을 발휘할 선수(혹은 팀)를 길러내는 정책이다. 북한의 체육정책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시키는 것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양대 축이다(북한헌법 55조).

주요 조직으로 중앙에 국가체육위원회가 있다. 당연히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는다. 국가체육위원회는 일종의 체육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체육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으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국가체육위원회의 위원장 아래는 여러 명의 부위원장이 있고 조직으로는 1처 10국(계획국, 대외사업국, 재정국, 후비양성국, 국방체육국, 군중체육국, 종합국, 기술지도국, 생산관리국, 교육국, 선전국, 지방지도국, 후방처)이 있다. 또한 산하에 체육과학연구소, 체육간부양성소를 두며 체육단체(예를 들면: 북조선배구협회, 북조선축구연맹 등)도 두고 있다.

지방에는 직할시체육위원회나 도체육위원회가 있어서 국가체육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 아래는 군(郡)이나 구역(區域)이 있고 주요 기본 단위는 구역(군)체육위원회가 한다. 구역체육위원회는 학교와 체육구락부(체육학교),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여성동맹 등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체육진흥 사업을 한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체육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 이전의 북한 체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노동과 국방에 복무할 수 있는 인간 양성의 도구로서 수단적 의미만 주로 강조되었다. 체육의 대중화란 전민을 건강한 체력과 체질로 노동과 국방에 복무하게 하려는 목적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후비대’를 길러 내려는 목적으로 집약된다.

반면에 김정일의 체육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서 국제대회 참가와 우승, 전문선수의 실력(경기력)의 강화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둘째, 체육정책의 쟁점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즉 선수선발과 육성, 훈련방법, 지도자문제, 스포츠과학진흥,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서 보다 전문적 정책 목표가 제시되고 추구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수실력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 강화’ 방식이 채택되었다. 특정 종목(축구 등)만을 우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차별화했다. 넷째, 체육부문에서도 과학 및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 점이다. 다섯째, 체육의식이 다소 유연해졌다. 신체활동과 운동 참여를 촉구하면서 ‘문화적 소양’, ‘건강·장수의 비결’ 등 체육이 개인에게 주는 장점이 언급되고 있

다.

2. 업간(사이)체조와 아침 운동

1959년 逃慕括漢?매일 하루 1시간 이상의 체육운동을 실시하라爛?방침이 선포된 적 있다. 체육대중화는 업간체조(학교에서는 사이체조란 용어를 사용한다)와 아침운동(아침체조와 줄지어 달리기)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1965년 〈체육을 대중화할 데 대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업간(사이)체조, 아침체조 활성화 방침을 천명했다.

업간체조는 거의 전 지역에서 행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비해 아침달리거나 아침체조는 실행하는 비율이 더 낮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빠진 이후에는 안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업간체조도 지방에 따라서 안 하는 곳이 더 많다고 주장되고 있다.

업간체조는 오전 11시정도 업무도중에 이루어지며 10분 내지 15분 정도 집단적으로 보급된 다양한 체조 중 하나를 시행한다. 아침체조나 업간체조를 알리는 종이 올리면 학교 혹은 기업소별로 운동장이 있는 곳은 운동장에 사람들이 나오고 운동장이 없는 곳은 복도에 나와서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한다.

북한은 업간체조에의 흥미를 돋우고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체조를 개발한다. 북한의 체육과학연구기관과 조선체조협회, 체조전문 교수들이 대중체조의 개발자로 중요하다. 에어로빅 동작이 가미된 대중윽동체조와 동작수가 적고 시간이 짧은 노인윽동체조, 태권도 동작을 가미한 태권도체조 등이 그 예이다.

체조의 보급은 각 학교 및 기업소에서 대표자가 강습회에 다녀오면 그 사람(교사 혹은 학생 등)이 익혀온 동작을 전교생 혹은 전직원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파시킨다고 한다. 새로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학교대항 혹은 직장대항 체조경연 대회가 열리는 경우도 흔하다.

체육의 대중화는 당의 방침에 의해서 직장의 조직책임자(조직체 최고 일군)의 책임 하에 조직되지만 직장 내 사회근로단체(사회주의노동자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직장 내 체육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탈북자 면접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인들은 업간체조, 아침달리기, 체육경기대회, 민속경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3. 인기 운동종목

인기종목이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좋아한다는 말에는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종목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직접하지는 못하지만 TV중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 보통사람이 하는 운동은 걷기, 달리기와 체조 정도이다. 그러나 각종 대회를 보면 가장 널리 채택되는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농구, 수영, 스케이트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자료는 없으나 고등중학교 학생선수가 나오는 「정일봉상 체육대회」, 인민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장자산상 체육대회」, 또한 체육구락부나 학교대항대회, 직장별 대항 체육경기에서 축구나 탁구, 배구, 농구가 빠지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 종목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종목일 것이다. 또한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에

서 흥미 있고 유망한 선수에게 특별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체육소조(우리 식으로는 교내 클럽활동)의 수를 보면 축구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다고 하니 축구가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수영의 경우 자유형, 배영, 평형, 접형 식의 영법(泳法)을 배우기보다는 물에 던져졌을 때 익사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로서 수영을 습득케 하므로 많은 사람이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한다. 스케이트는 남한보다 더 널리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보통 가정은 아령, 줄넘기, 탁구채 외에 스케이트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외 빼 놓을 수 없는 인기종목은 마라톤(마라톤)이다. 마라톤은 1998년 정성옥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마라톤 우승을 한 이래 최초로 공화국영웅을 배출시킨 종목으로 북한 전역에서 열광적인 환호와 따라 배우기 열풍을 일으켰던 종목이다.

운동에서 인기종목은 지역별, 시기별로 조금씩 바뀐다. 농구의 경우 1980년대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반면 평양에서는 축구와 함께 널리 행해졌다.

TV로 방영되는 종목은 많지 않다. 축구 외에 씨름이 주로 방영된다. 국제 대회인 경우 북한이 승리한 경기를 사후에 방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연 인기 TV스포츠는 축구이다. 그러나 90년 중반이후 ‘텔레비전 민족씨름경기’가 방영되면서 씨름이 더 인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TV씨름이 중계되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자기 지방 선수들을 응원하며 즐긴다고 한다.

4. 인민체력검정

인민체력 검정은 1948년 시작되었다. 1971년 9월 내각결정 제80호로 현재 행하고 있는 인민체력검정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향상과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8월과 9월에 실시한다. 북한이 인민체력검정을 우수선수의 자질이 있는 꿈나무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보고도 있다. 북한은 학교별, 사회단체별, 각 기업소나 기관별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서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활용했다(이학래, 한국체육백년사, 2000).

초기 종목은 달리기, 뛰기(북한말로 조약), 턱걸이(북한말로 현수), 중량운반, 던지기, 행군, 수영(북한말로 헤엄)이다.

시행종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태권도는 남녀 공히 연령계급에 상관없이 실시하고 이외에 100m달리기, 1500m달리기, 400m 장애물극복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턱걸이(여자의 경우 엎드려 팔굽혀펴기), 8km 달리기, 수영 등이 시행된다. 이외 고등중학교 5, 6학년들에게는 수류탄던지기, 등반줄오르기, 등반봉오르기, 평행봉(여자 제외)이 실시된다. 인민체력검정 기준 표는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 일반부문으로 나뉘며 그 세부기준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검정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영예의 체력장〉, 〈특수 체력장〉이 수여된다. 또한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시(구역), 군에는 모범체육군 칭호를 수여하여 참여와 체력관리를 독려해왔다. 따라서 기업소나 학교 단위에서 인민체력검정을 앞두고 높은 수검율과 기준 합격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준 종목에 대비해서 훈련을 행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인민체력검정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강제적이거나 동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난 인민체력검정은 제재와 불이익

이 가해지는 강압적 제도로써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 북한에서 인민체력검정이 끝나면 해당 급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근로단체의 회의에서 상호비판 혹은 자기반성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북한의 경우 체력관리를 국가가 하는 사회이므로 인민체력검정은 중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행하는 체격 및 체력검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민체력검정은 남한의 직장 단위 의료검진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m 달리기 등 체력검사를 하며 전년에 했던 개인기록과 틀리면 반복해서 측정한다고 한다. 체력검사 외에 체온 및 혈압 측정, 키 몸무게 등 체격 및 기초적인 체질검사가 병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과정에서 건강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람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을 하고 직장단위로 있는 병원에 인계하기도 한다.

5. 역대 올림픽 참가와 성적

북한은 당시 올림픽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 동경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접촉하였다. IOC는 이 문제를 남북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해결하기를 권고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서로 협의하라는 것이 IOC의 권고내용이었고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한 체육회담이 열렸다. 회의는 결렬되었으나 이 회의가 곧 최초의 남북체육회담이다. 북한은 1963년 60차 IOC총회에서 회원국 지위를 얻었고 1964년 동경올림픽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GANEFO(신흥국가경기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제한 당하자 선수단 전원을 철수시켰다. 1968년에도 선수단을 파견하려했으나 호칭문제로 불참하였다.

따라서 1972년 뮌헨올림픽이 최초의 참가이다. 이후 계속 올림픽에 참가하였으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불참했다. 북한은 1972년 뮌헨에서 남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먼저 따기도 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북한은 사격(소구경복사)에서 금메달을, 복식(라이트플라이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레슬링, 여자배구, 유도, 라이트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땀다. 당시 남한의 올림픽 전적은 유도 미들급에서 은메달 1개를 딴 것이 전부였다.

북한은 197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따서 세계 순위 12위를 했고 남한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외에 동메달 4개를 추가해서 11위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는 남한이 불참했다. 모스크바에서 북한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15위를 했다.

냉전대결로 북한은 84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과 88 서울올림픽에 불참했다. 92년 다시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16위를 해서 과거 수준을 유지했다. 남자체조에서 배길수 선수가 금메달을 땀던 것이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2년 남한은 금12, 은 5, 동 12로 세계 7위의 성적을 거둬으로써 북한은 남한 선수들과의 벌어진 실력 차이를 경험해야 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김일성사망 이후의 체제정비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를 자제해왔다. 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땀으나 33위로 밀려났다(당시 남한은 금 7개, 은 15개, 동 5개로 세계 순위 10위

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세계 60위로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의 성적을 냈다(당시 남한은 금 8개, 은 9개, 동 11개로 12위를 유지). 시드니 올림픽에서 북한은 역도에서 리성희 선수가 은메달을, 유도에서 계순희 선수가 동메달을 땀다. 이외에 북한의 주요 메달 획득 종목이던 복싱과 레슬링에서 김은철 선수와 강용균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88서울올림픽 이후 참가종목수도 20개 이상이며 선수단 수도 300명에서 600명 규모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던데 반해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의 선수단 규모는 바르셀로나대회의 경우 105명(선수 64명, 임원 41명), 애틀란타올림픽의 경우 70명(선수 24명, 임원 56명), 시드니대회 61명(선수 3명, 임원 30명)으로 작은 규모였다.

한편 북한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처음 출전한 것은 1974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안 게임이다. 북한과 남한의 아시안 게임에서의 실력 수준은 1982년 인도 뉴델리대회까지 비슷했다. 북한은 1974년 대회에서 금 15개, 은 14개, 동 7개로 5위를 했고 이에 반해 남한은 금 16개, 은 26개, 동 25개로 4위를 했다. 1978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금 15개, 은 13개, 동 15개로 4위를 했고 이에 반해 남한은 금 18개, 은 20개, 동 31개로 3위를 했다. 1982년 뉴델리에서 북한은 금 28개, 은 28개, 동 37개로 3위를 고수했으나 북한은 금 17개, 은 19개, 동 20개로 4위였고 실력차이도 점차 벌어지게 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90년 북경대회, 1998년 방콕대회에서 북한이 각각 4위, 8위를 차지해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아시아권 2위인 남한과 비교되었다.

6. 실력 있는 종목 : 여자배구, 탁구, 레슬링

70년대에 북한 여자배구와 탁구의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폴란드에서 개최된 1977년 6월 대회와 동년 7월에 독일에서의 국제여자배구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북한 배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1975년 2월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제33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18세의 북한 박영순선수는 여자단식 우승후보였던 구 소련선수와 중국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박영순선수는 제3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77년 3월 영국 버밍햄)에서도 여자단식을 제패하였다. 이 대회에서 북한팀은 여자복식 1위와 단체전 3위를 차지하여, 2개의 금메달과 2개의 우승컵, 그리고 1개의 동메달을 따는 성적을 올렸다. 2회 연속하여 세계선수권 제패자가 된 박영순선수에게는 북한국민의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 훈장이 수여되었다.

1985년 3월 스웨덴의 에테보리에서 열린 제38회 세계탁구선수권에 출전한 북한은 단체전에서 체코·네덜란드·일본·독일·홍콩을 3: 0 스트레이트로, 루마니아와 프랑스에게는 3:1로 승리하였다. 준결승에서는 한국을 3: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준우승의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1987년의 제39회 대회에서는 남자단체와 여자복식에서 2위를 차지하여 '탁구북한'을 세계에 알렸다.

레슬링의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소련의 키예프에서 1983년 9월에 개최된 제22회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에 출전한 북한 선수는 48kg급에서 중국·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하여, 소련선수를 이기고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에서도 48kg급에서 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24회 대회에서도 48kg급과 57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프랑스의 제25회 대회에서 48kg급 금메달을 거머쥔 북한선수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26회 대회에서도 52kg급 금메달과 48kg급 은메달을 차지했다. 북한의 레슬링은 올림픽에서 연속적으로 메달을 따게 해 준 종목이다. 25회 바르셀로나대회에서는 김 일선수, 이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김용식 선수가 동메달을 땀고 26회 애틀랜타에서도 김 일선수가 자유형 금메달을, 이영삼선수가 동메달을 땀고 17회 시드니에서도 강용균선수가 동메달을 땀다.

7. 축구와 여자축구

북한의 축구는 화려한 전통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며 우선 육성 종목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축구의 지위는 월등하다. 86년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축구를 지목했고 89년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는 ‘북한 사람의 체질조건에 맞고 기본적’이므로 ‘축구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표명했다. 북한의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의 조직도 다른 종목은 중경기종목, 경경기종목으로 묶여서 관리되는데 반해 축구는 별도로 부서로 독립되어 있다.

1958년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한 이후 90년대 초까지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북한의 축구는 66년 런던의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칠레와 이탈리아를 격파하고 8강전에 진출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시 박두익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북한축구는 이후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태국에서 열리는 86년과 87년 개최된 「킹스컵」 국제 축구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91년 북한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대학축구대표팀과 로버트케네디기념 경기장에서 가진 친선 경기는 북한이 2:1로 승리했고 미중 평풍 외교에 비유되기도 했다.

북한 축구는 94년 월드컵의 예선전을 치르던 93년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권 획득에 실패한 이후 국제대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다가 98년 방콕 아시안경기대회를 계기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개최된 12회 아시아컵 축구대회의 지역 예선전에 출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대회 참가 경험을 쌓고 있다.

FIFA 랭킹에 의하면 북한의 축구는 세계 140위 정도로 나타나지만 국가대표팀간 A 매치로 산정되는 FIFA랭킹이 북한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2001년에는 중동 원정 경기를 갖고 대 요르단전에서 2:1로 이겼고 동 해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4개국 대항 중국월드컵 대표팀 평가전에 참가하여 중국을 꺾었다.

북한의 축구팀 수는 겸직체육단과 직장의 축구팀, 도체육단팀 등 성인팀만도 2,000개가 넘을 것이다. 북한은 3개 리그를 갖고 있다. 이들 리그간에는 순환제도가 있다. 순환리그의 경우 1부 리그 최하위 팀은 다음해 2부 팀 최상위 팀과 자리바꿈을 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3부 리그의 한 팀이 2부 리그로 올라가고 2부 리그의 하위 팀이 3부 리그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여자축구를 집중 육성해서 1990년대 세계 여자축구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91년 국제 여자축구대회에서 2위를 하고 92년 아세아경기대회에서 여자축구 3위를 한데다 93년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세계 최강 중국팀 격파하고 2위를 차지했다. 북한 여자축구의 존재가 남한에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제3차 세계여자선수권대

회(별칭 미국여자축구월드컵 개최)에 참가해서 최강팀인 중국과 대등한 경기를 한 것이다. 또한 김순희선수가 세계올스타팀에 뽑혀서 화제가 되었다.

8. 농구와 키크기운동

북한은 농구가 그 어떤 체육경기보다 운동 부담이 크고 운동량이 많아서 몸을 튼튼히 만들어주고 특별히 키를 크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권장하고 있다. 농구와 키크기 운동과의 관계는 농구가 청소년의 뼈 발육을 돕고 팔다리와 허리의 뼈를 발달 시키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운동생리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학생들의 체격개조 특히 키를 키우기 위해서 적합한 운동의 하나로 농구에의 참여를 권장해왔다. 북한에서 농구의 보급정도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 평양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농구를 주요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농구라는 종목에 아예 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북한의 농구선수 중 유명스타는 리명훈이다. 리명훈은 함경남도 수동탄광마을에서 태어났는데 13살에 이미 키가 187cm가 되어서 체육단에서 조기교육을 시켜서 농구선수로 키워낸 것으로 알려졌다. 리명훈은 232cm라는 키에 기량을 함께 갖추어서 미국 프로농구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었던 선수로 유명하다. 그는 1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시아 최우수 농구선수로 주목받았다고 한다. 17차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여 받은 바 있고 북한 대중잡지인 천리마에 ‘인민에게 자랑과 긍지’로 극구 칭송된 바 있다. 천리마의 선수 소개 기사에 실린 또 한 사람은 우뢰 농구팀의 박천중 선수이다. 박 선수는 187센티미터의 키에 경기 당 3점 슛(먼거리던져넣기)이 평균 8회로 4.25체육선수단 출신으로 알려졌다. 박천중선수는 1994년 공훈체육인이 되었다. 박천중 선수는 북한잡지에 ‘마이클조던을 압도하며 유고슬라비아의 데얀 보디가 선수를 무색케 할 실력자’로 소개되었다.

남한에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에서 키 크기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종목은 육상과 기계체조(철봉운동, 평행봉운동 등)이다. 북한은 1986년 체육부문 일군과의 담화 형식을 통해서 발표한 김정일의 ‘체육을 대중화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란 문건에서도 키를 키우기 위한 추천 운동으로 농구가 아닌 육상과 기계체조를 많이 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9. 태권도와 태권도전당

북한은 태권도에 대해 큰 애정을 표시하고 있고 남북 체육교류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의지를 갖고 있다. 북한은 ‘태권도가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민족 고유 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민족무술 태권도’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는 품세나 경기규칙면에서 다르다. 북한은 북한식 태권도 규칙을 바탕으로 국제태권도연맹을 주도해오고 있다. 북한의 태권도는 월북한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총재의 주도로 보급되었고 이후 동남아시아와 사회주의권에 확산되었다. 북한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이끌고 국제사범을 파견해서 공산권과 제3세계 권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태권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해서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북한의 국제태권

도연맹과 남한의 세계태권도연맹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운동 및 경기방식이 올림픽에서 채택되었다.

북한의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위력, 호신술 등으로 구분되며 틀의 경우 천지틀, 단군틀, 도산틀, 원효틀, 율곡틀 등 14개 틀에 180여개 동작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대중잡지 <천리마>에 1994년 1월호부터 1년여에 걸쳐서 태권도 도형을 소개한 바 있다.

도복은 남한이 사범과 수련생이 동일한테 비해 북한은 사범 도복 가장자리에 검은 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1단계의 급수 구분이 있고 9단계의 단수 구별이 있다. 급수의 띠는 흰색, 흰색에 노란 막대가 있는 띠, 노랑띠, 노랑에 녹색막대가 있는 띠, 녹색띠, 녹색에 하늘색 막대가 있는 띠, 하늘색띠, 하늘색에 빨간 막대가 있는 띠, 빨강띠, 빨강에 검은 막대가 있는 띠, 검정띠로 올라간다. 단의 경우 검은 띠에 로마자로 단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시 남한의 경우 몸통, 머리, 낭심, 팔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하지만 북한은 보호대 없이 태권도 장갑과 신발만을 착용한다. 경기방식은 남한이 상대의 몸에 직접 가격해서 점수를 얻는 겨루기 중심의 ‘풀 컨택’(Full-Contact)인 반면 북한은 발 주먹이 가격 전에 멈추는 ‘넌 컨택’(Non-Contact)방식으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92년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태권도전당을 만들었다. 태권도장은 체력훈련장과 샤워장, 음향실, 영사실, 방송실을 부대시설과 갖춘 근대적 체육시설이다. 같은 해 북한은 태권도전당에서 평양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태권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태권도기술센터를 설치했다.

유명태권도 선수로는 노력영웅 칭호와 북한 태권도여왕이란 별칭을 얻은 장경옥선수가 있다. 남자선수로는 함철국, 강병무, 랑금성, 리형국선수가 유명하다.

10. 집단체조와 예술체조

집단체조는 일종의 매스게임인데, 남한에서도 전국체전 등 식전 행사로 소위 카드섹션과 운동장에서의 집단체조를 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체조는 사상성을 가미하고 수만 명을 동원시킴으로서 북한 고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북한은 집단체조가 주제와 사상적 내용의 풍부함에서 과거 체코나 소련의 집단체조를 능가하며 체조, 민속무용, 댄스, 미술, 음악을 조화시킨 종합예술작품이란 점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의하는 집단체조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조직성,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동시에 그들의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집단체조 배경대의 ‘카드섹션’은 ‘축구공이 골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닭이 알을 낳는 장면에서는 흰 계란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생동감이 있게 그려진다’고 묘사할 정도이다.

북한집단체조의 역사는 1958년 8월 광복 13주년을 기념해 공연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부터이다. 이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생일(2.16), 김일성 주석 생일(4.15), 정권수립일(9.9), 노동당 창당일(10.10) 등에 주요 행사마다 집단체조를 연출했다.

북한은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71년 국가체육위원회 산하에 ‘집단체조창작단’을 두고 있다. 집단체조 창작단은 창립이후 96년 말까지 수십 편의 집단체조를 창작하고 520여회에 걸쳐 공연을 진행했다. 창작연출부, 체조창작부, 음악창작부가 있고 집단체조과외학교

를 두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서 평양체육대학에 집단체조창작학과를 두고 있다.

집단체조는 주로 평양에서 하며 평양거주 학생들이 도맡아한다. 학생들이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과정은 보통 4개월 혹은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한다.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관람석에서 배경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과정은 처음에 각 학교별로 준비하다가 행사를 앞두고 2-3개월 부터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음악에 맞춰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피약벌에서 하는 장시간의 집단체조 연습은 학생 개개인들에게는 힘든 시련이다.

예술체조는 링(북한 말로 룬), 리본(북한 말로 댕기), 로프(북한 말로 뽕줄), 곤봉, 공 등의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남한의 여자 체조이다. 예술체조는 ‘여성들의 육체적 및 심리적 특성에 맞게 부드럽고 경쾌한 동작들을 율동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몸을 유연하고 곱게 하는 예술적 성격이 강한 정서운동’이라고 정의되며 집단체조와 구별짓는다.

11. 90년대의 스타 플레이어

8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남한 전문 선수의 경기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북한선수는 다크호스처럼 세계 스포츠계를 놀라게 했다. 90년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인기를 한 몸에 얻은 유명 선수를 소개한다.

○ 공화국영웅 정성옥과 연인 김중원 - 1998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정성옥 선수가 유력한 우승후보인 이치하시를 막판 400미터 스퍼트로 따돌리고 우승하자 세계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북한주민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귀국했고 공화국영웅 칭호와 고급승용차, 고급아파트를 받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북한 마라톤의 대들보인 김중원 선수와 결혼해서 더 유명해졌다. 평양시체육선수단 소속인 김중원은 95년 북한 남자마라톤 기록을 1분20초나 앞당겨 그해 10대 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98년 베이징(北京) 국제마라톤대회 우승, 방콕아시안게임 동메달, 제18회 마카오국제마라톤대회에서는 우승선수이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소설 ‘결승선’과 영화 ‘달려서 하늘까지’로 만들어졌다.

○ 애틀랜타 스타 계순희 - 16세였던 계순희선수는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유도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자인 일본의 다무라 료코(田村亮子)를 꺾고 북한 유도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인민체육인 칭호와 함께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고급주택과 자가용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로 북한 주민 사이에 자식을 운동선수로 키우자는 열풍이 불었다. 그녀는 97년 파리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97년 필리핀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와 98년 방콕 아시아올림픽, 99년 중국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2000년 3월 체코 오픈 국제유도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땀다. 2000년 시드니에서는 동메달에 그쳤다.

○ 체조요정 김광숙 - 북한 선수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김광숙 선수는 북한 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1991년 세계 체조선수권대회의 고저 평행봉 종목에 출전한 북한의 김광숙은 심판 전원 만점을 받는 완벽한 경기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김광숙 돌기’란 용

어가 만들어졌다. 15살의 나이였고 그녀에게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칭호가 주어졌다. 특히 김광숙이 우승했던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되었기때문에 북한주민의 열광은 더욱 컸을 것이다.

○ 안마왕 배길수 - 배길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체조 안마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후 92년, 93년, 96년 3차례의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동양인에게는 높이만 하던 세계 체조의 벽을 넘은 인기선수로 북한에서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12. 스포츠와 방송 및 영화

북한은 국내경기의 준결승이나 결승전을 중계하고 예선전을 전부 중계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 TV로 방영되는 체육경기는 국제경기대회 중 북한이 승리한 경기이다. 국제경기도 이긴 경기만 보여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중 한 사람은 북한이 아시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축구 붐 조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유럽 축구리그 경기를 TV에서 방영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다. 북한이 예상 밖으로 2002 한일 월드컵 경기를 녹화 방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축구경기는 4.25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간의 경기를 방영한다.

국내 스포츠중계로는 축구와 씨름을 한다. 북한 외국문종합출판사가 발행하는 해외 홍보용 월간지 조국 1월호는 “우리 조국에서는 날로 높아 가는 씨름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반영해 6년 전부터 ‘텔레비전 민족씨름경기’를 조직하고 있다”며 “씨름경기를 방영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자기 지방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다른 종목들 보다 시청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체육과 관련된 영화와 TV 연속극 제작은 체육 대중화를 위한 선전사업이다. 이미 정권초기부터 북한은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우수 선수를 소재로 한 홍보영화 제작을 매년 해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체육영화는 군대영화나 전쟁영웅영화, 생산현장의 혁신자들에 관한 영화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 동안 수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조선아! 달려라〉라는 마라톤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제작된 바 있고 레슬링 선수에 관한 영화가 있었다. 배길수, 김광숙 선수 등을 소재로 한 〈선수권보유자들〉이란 기록영화도 제작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이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 중 하나로 뽑았고 공화국영웅 칭호를 부여한 마라토너 정성욱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 ‘달려서 하늘까지’가 제작되어 모스크바영화제에 출품되기까지 했다.

북한에서 스포츠스타는 TV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축구선수가 나오는 〈중앙공격수〉, 수중발레선수가 주인공인 〈갈매기〉, 운동선수가 청춘남녀로 나오는 〈청춘이여〉 등 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TV 연속극에 리듬체조선수, 여자 태권도선수, 농구선수, 마라토너 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북한사회가 얼마나 체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13. 프로스포츠

1992년 북한은 프로복싱을 도입하였다. 북한 프로권투협회는 95년 세계복싱협의회(WBC)에 가입하고 97년에는 세계복싱협회(WBA)와 범아시아복싱협회(PABA)에도 가입했다. 북한에 프로복싱이 도입된 배경은 당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수들이 세계프로무대에 나가서 활약하고 달려까지 벌어들이는데 자극을 받아서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여자 프로복싱선수도 2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여자선수로는 지순복 선수나 지운복 선수가 우수선수로 알려졌다.

북한의 프로복싱 수준이 높다는 것은 99년 남한의 프로복싱프로모터인 송민프로모션이 성사시킨 5개국 프로복싱대회에서 확인되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북한의 김기환(미니 플라이급)선수, 최평국(플라이급) 선수가 각각 동급인 남한의 박명섭선수와 박한준 선수를 KO패 시켜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 프로스포츠로는 프로농구를 들 수 있다. 현대가 추진했던 남북 농구 교류전에 참가했던 북한의 번개팀과 우뢰팀은 프로팀이라고 알려졌다. 이외에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적했던 ‘일부 종목의 프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축구의 프로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프로복싱과 프로농구처럼 국제 프로스포츠시장을 염두에 두고 프로스포츠 조직에 가입하는 것 만으로 프로스포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에서 선수는 특정 기업, 시·군·구 체육단에 소속되고 직업적으로 급여를 받지만 프로 선수라기보다 세미 프로인 우리 나라의 실업팀 선수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평양시체육선수단, 압록강체육선수단, 경공업성체육선수단, 기관차체육선수단 등에서 체육선수단 앞에 붙는 기관명칭이나 직장명칭은 이들 직장이나 기관이 체육선수단을 보유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선수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스카웃이 되거나 매매되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에 프로스포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북한의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선수가 갖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농구선수 리명훈의 미국진출 협상 과정에서도 리명훈이 급여를 수령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등장한 바 있다. 또한 1990년 후반 중국의 프로축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선수들이 중국 프로팀에 진출한 바 있지만 이들 선수들의 경우도 선수들이 선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북한의 방침으로 계약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14. 체육시설과 운동용품

체육시설은 보통 군(구역) 단위로 정비된다. 군구역체육시설은 남한의 시군구 단위의 육상경기장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육상경기장의 외곽에 빈 사무실에 체육관련 단체가 입주하듯이 북한의 경우도 군(구역)체육위원회와 과외체육학교(과거 체육구락부)가 체육시설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체육시설을 확대해서 체육 대중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수 차례의 시설건설 노력으로 나타났다. 모범체육군의 경우를 보면 먼저 평안남도 양덕군의 체육시설로는 연건평 1,400㎡의 체육관, 스탠드(관람석)이 있는 15,000㎡의 경기장, 수영관이 있었다. 또한 함경북도 북청군의 경우는 3만 석의 경기장, 50여 개의 수영장을 갖추어 놓았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 수영장은 냇가나 강을 막아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다.

현대식 경기장은 주로 평양에 몰려 있다. 주요 경기장으로 모란봉경기장이 있다. 모란봉 경기장은 1982년에 2배정도 규모인 10만 명 수용경기장으로 확장 완공하여 김일성경기장으

로 개칭하였다.

북한은 북한 최대의 실내 아이스링크 시설로 빙상관을 개관(82.4)하였으며 같은 해에 남포시에 평양골프장(36만 평, 18홀 규모)을 개장하였다.

그러나 북한 체육시설의 정비는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89.7)에 대비하여 평양시 청춘거리에 조성된 안골체육촌이다. 안골체육촌은 89년 축구, 농구, 야구, 사격장 등 13개 경기장을 갖춘 종합 체육기지가 되었다.

북한의 체육시설을 누구에게 개방해서 쓰게 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경기장과 체육관 등 대규모 시설의 활용방침은 보면 200여일은 주민들에게(소위 생활체육) 나머지 100일 정도는 전문선수의 훈련에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한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용품이나 체육기자재는 각 도 단위의 체육기자재공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만들어 공급(유통)한다. 기관(체육단, 학교 등)에 대한 직접 공급이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배급권으로 살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체육기자재의 질과 규격 표준 관리는 경공업성의 관장 하에 있고 체육기자재 규격 표준이 국가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난이 가중되기 시작한 이후 운동 용품이나 체육기자재가 거의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방도시에는 축구공, 탁구채, 탁구네트 등이 없어서 일반 학생들은 간이로 만든 운동기구(예를 들면 널빤지를 탁구채처럼 깎아서 탁구채를 만들고 줄을 쳐서 네트대용으로 삼는 등)를 사용했다고 한다. 탁구대의 경우 시멘트로 만든 탁구대를 만들어 썼다고 한다.

90년대 점차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각급 학교에 축구공 등 기본적인 운동 용품이 공급되지 않아 전담체육교사가 개인적으로 공을 마련해서 수업을 했다고 한다.

15. 체육용어, 경기용어

북한은 주체성을 강조하는 나라이므로 외래어, 한자어를 한글고유어로 대체해서 사용하려 노력해왔다. 99년 들어 체육에서 국제 공용어 사용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노동신문〉이나 〈천리마〉의 기사를 통해서 경기 및 운동용어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다. 국제경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발상지인 영미권의 스포츠용어를 범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체육상식으로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매우 부분적인 것이다. 북한은 일단 스포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권 형성 초기에는 체육이란 단어와 스포츠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으나 스포츠라는 용어는 60년대 이후에는 사라졌다. 북한 주민들은 스포츠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남자 머리 모양인 ‘스포츠머리’는 상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쓰는 운동 종목을 가리키는 말은 남한과 비슷하다. 축구, 농구(농구), 배구, 탁구, 야구, 체조, 권투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단 마라톤은 ‘마라손’으로, 수영은 ‘헤엄’으로, 하키는 ‘지상호케이’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톤’으로 쓴다. 남한과 차이가 많이 나는 용어는 경기용어이다. 남한은 거의 대부분 경기용어를 영어 등 외국어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대체할 한국 고유어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남한과 차이가 심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축구 : 페널티킥은 ‘11미터벌칙차기’, 타임은 ‘시간’, 코너킥은 ‘구석 차기’ 라인은 ‘선’으로

시축은 ‘먼저차기’로, 헤딩은 ‘머리 받기’로 사용한다.

농구(농구) : 점프는 ‘조약’, 드리블은 ‘공물기’로 패스는 ‘공런락(연락)’으로 농구골대 즉 링을 ‘륜’으로 리바운드를 ‘판공잡기’라고하며 패널티라인은 ‘벌넣기선’, 드로우인은 ‘바깥공던져넣기’라 한다.

16. 민속경기와 여가스포츠

북한은 민속놀이를 주민이 노동과 생활 속에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고유의 오락놀이라 하여 계승하고 발전시켜왔다. 민속놀이는 체력단련놀이, 지능겨루기놀이, 가무놀이, 무술연마놀이, 인형 및 탈놀이, 어린이놀이로 구분되어 연구 정리되었고 더 나아가 보급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 졌다.

그 중에서 체력단련 놀이와 무술 연마놀이에 해당되는 종목은 민속경기로 분류될 것이다. 연 띄우기, 딱지치기, 팔씨름, 제기차기, 기마전놀이 등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망차기, 외발씨름, 진놀이, 꼬리잡기 등 남한에서 사라진 놀이도 많이 남아있다.

민속경기 종목이 포함된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 매년 개최된다. 민족체육경기의 정식 종목은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이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선수들이 평양 모란봉에서 바둑, 장기,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종목으로 겨룬다. 씨름은 민속 경기의 백미로 알려진다.

특별한 여가나 위락거리가 없는 북한 사회에서 일반근로자가 선수로 구성되고 직장 간, 기업소 간 대결로 이루어지는 직장체육대회는 생활의 일부로 수용되고 있는 듯 하다.

주민들은 국가적 명절이라고 하는 2월 16일, 4월 15일, 9·9절, 10월 10일 등 1년에 2~3번 정도 군에서 조직하는 체육경기에 참가하는데 이 때는 공장, 기업소별 대항경기를 한다. 작은 기업소에는 체육소조가 없지만 웬만큼 큰 공장, 기업소에는 체육소조가 따로 있어서 체육경기가 있는 한 두 달 전부터 직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체육훈련을 한다. 일반인들은 대회를 할 때 돼지 1-2마리, 술, 텔레비전 등을 걸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하다. 상품은 기업소에서 돈으로 낸다고 하며 작은 기업소들은 2~3개씩 묶어서 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기업소가 지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애쓴다. 시, 군(구역)급의 대항경기에서 이기면 양동이 같은 상품을 주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회사에서 하는 체육경기에는 사람들이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구경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싸오고 모자도 단체로 맞추고 응원도구 등도 준비해온다.

문화예술인 종합체육대회, 출판보도일군체육대회, 비생산부문일군 체육대회, 성중앙일군체육대회 등 소위 전문직이나 사무직도 대회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인체육대회는 영화배우, 연극인, 아나운서 등 인기인이 집결한 체육대회로서 이 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영화배우나 아나운서, 가수가 공을 차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장기업소 대항경기는 급감 했다.

17. 국제 스포츠교류

참가거부 이후 1969년 6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68차 총회에서 북한 선수단 명칭에 대한 북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그 이후 국제대회에서 북한의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북한의 국제체육 교류에의 관심은 1974년 이후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IOC위원 자리를 확보한 것은 1978년이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80차 IOC총회에서 당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유순이 IOC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국제스포츠조직체에 정식으로 가맹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북한은 90년대 김일성 사망이후 국제 스포츠교류를 극도로 자제하다가 98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 대회에 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국제무대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99년 여자월드컵축구경기 참가로 국제 스포츠교류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참가했다. 2001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4개국 국제축구경기대회 참가했다. 또한 2001년부터 평양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의 규모도 커졌다. 평양에서 ‘제10회 백두산상 국제취거(피겨)축전’과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가 전년대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되었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중동원정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동 원정경기에서 북한은 요르단을 2대 0으로 대파했다. 북한의 국제스포츠교류에 대한 변화는 2001년 1월호 천리마 기사에서도 감지되었다. 천리마에 따르면 북한은 “체육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체육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개별적 선수들과 체육일꾼들이 모국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가서 체육활동을 적극 벌릴 것”이라고 전망, 북한 체육선수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가장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 대상국은 중국이다. 북한은 북경체육대학교에 매년 10여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원, 교수를 파견해서 새로운 스포츠정보를 수집해가고 있고 조중체육교류협약을 통해서 체육단체간 교류도 정례적으로 치루고 있다.

18. 남북체육 교류

분단 이후 공식적인 최초의 체육교류 노력은 1964년 동경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유로 1963년 로잔(스위스)에서 열린 남북 간의 회담이다.

올림픽대회는 물론 아시아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 논의까지 거의 30년 동안 남북 간의 체육회담은 진행된 바 있다. 30년간의 체육회담의 결과 남북 간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공동선수단이 구성된다면 단기(團旗)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아리랑을 단가(團歌)로 사용하며 공동선수단 구성시 대표선수를 어떻게 선발해서 훈련시킬 것인지 선수단장은 누가 맡을 것인가가 합의된 것이다.

90년, 91년에는 3건의 체육교류가 성사되었다.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냉전체제의 붕괴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19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 공동응원단이 등장했다. 그 대회에서 남북한 체육장관이 만나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합의했다.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한 선수가 만나 축구를 하였고 사람들은 감격했다.

1991년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했고 9연패에 도전하던 중국을 접전 끝에 3대 2로 꺾고 우승했다. 199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도 남북 선수가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프랑스 툴롱의 국제청소년축구대회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축구의 경우도 세계 8강 진입이란 성적을 거두었다.

1990년대 말 체육교류는 기업주도로 이어졌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 9,000여 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였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라고 명명한 남북 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녀복녀, 북남남녀가 짝이 되어 치른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 정신을 살려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었다. 남북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을 치른 것이다. 시드니 남북단일팀이 착용한 단복은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2001년 금강산렐리사업(통일염원 6.15자동차질주경기대회로 호칭됨)과 금강산모터사이클대회가 개최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19. 유명 체육지도자

보통 체육지도자는 감독, 코치, 체육교사를 통칭한다. 북한은 중앙급 체육대학인 평양체육대학교와 남포시에 있는 중앙체육학원을 양대 축으로 하고 고등체육전문학교(도별 체육대학으로 명명됨), 사범대학 체육학부와 교원대학의 체육학과에서 지도자를 배출한다. 그러나 체육지도자 중에서 유명선수가 지도자가 되어 현장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체육지도원(감독 혹은 코치): 북한에는 유명 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후진 양성을 하는 지도자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 1958년 자강도 대표선수로 전국대회에서 일등을 한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북한을 빛내던 육상선수 신금단의 경우도 32세에 은퇴한 후 압록강체육선수단의 육상지도원으로 활동해왔다. 유명선수인 정성옥이나 김광숙은 하나같이 평양지역 소재의 체육단에 소속되어 지도원(감독 혹은 코치)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축구해설가 : 이동규씨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해설가로 71년부터 중앙텔레비전의 축구경기 해설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체육과학연구소 축구연구실 실장을 맡았던 스포츠과학자이다. 이동규 실장은 동경교육대학(현 쓰꾸바대학의 전신)에서 체육학부를 졸업하고 동경조선인체육인연합회에서도 활동했던 인물로 66년 제8회 런던월드컵에 참가한 북한 선수의 훈련과정에도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99년 북한의 중앙통신은 전례 없이 이동규 실장을 인기 있는 축구해설가로 소개한 바 있다.

○ 여자축구심판 : 북한은 여자축구팀이 많아서 여자축구심판으로 활동하는 여자지도자들이 여러 명이다. 북한 최초의 여자축구 심판인 리성숙이나 국제심판인 양미순이 있고 2000년 여자축구월드컵의 심판으로 참가한 리성옥이 알려진 인물이다.

20. 역도산과 이노끼

나이가 제법 든 사람들은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 인기스포츠로 프로레슬링을 기억한다. 프로레슬링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곧 역도산이다. 역도산은 한국 사람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처음에는 스모(일본 씨름)를 했다가 나중에 레슬링선수가 되어 세계선수권자가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레슬링의 제왕인 미국의 루테츠선수를 꺾고 우승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 그는 1938년 함경남도 흥원군의 어촌마을에 살다가 일본인 모모다 이노스케에 의해서 발탁되어 반강제로 일본 스모선수로 데뷔했다. 그의 본명은 김신락으로 역도산의 딸이 북한에 살고 있다. 전 체육상인 박명철은 역도산의 사위라고 한다. 역도산은 43세의 나이에 강패의 습격으로 칼을 맞고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남한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남한에서 역도산이 단지 재일교포로 알려졌지만 북한에서 역도산은 대단한 체육계의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종합잡지인 <천리마>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역도산의 일대기를 소설화해서 인기리에 연재했다.

역도산의 이야기에 빼놓 수 없는 것은 일본인 선수 이노끼와의 인연이다. 이노끼 간지 선수는 1943년생으로 브라질 쌍파울로의 농민시장에서 짐꾼 노릇을 하다가 전 브라질체육경기대회에서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에서 우승해서 일본계 이민들 사이에 유명해진 인물이다. 17살 때 브라질에 원정 왔던 역도산의 눈에 띄어 일본에 와서 <역도산훈련관>에서 프로레슬링을 시작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이노끼는 역도산의 제자인 셈이다.

그는 1967년 자이언트 바바와 함께 국제복식경기선수권 타이틀을 보유하고 1969년에 프로레슬링연맹전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이후 1971년 3월 미국 로스앤젤리스 프로레슬링 UN 중량급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노끼는 일본스포츠평화당 당수이자 참의원 의원으로 1971년부터 전일본프로레슬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프로레슬링을 통한 세계 평화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 평양에서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신일본프로레슬링주식회사의 공동 주최로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 축전>이 열렸다.

이노끼 간지는 생애 마지막 경기를 평양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에서 보여준 이유를 역도산과의 귀한 인연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노끼는 이 대회에서 세계프로권투선수권 보유자였던 조지 포먼과 경기를 했다. 이 축전에는 무하마드 알리도 초청되어 참가했다고 한다.

21. 유도스타 계순희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간에 유도는 일본에서 창안된 종목이다. 가노 지고르라는 사람이 창안한 유도는 상대가 공격해오는 힘을 절묘하게 역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이다. 말 그대로 허를 찌르는 순간적인 힘의 이동으로 상대를 유도매트에 거꾸러뜨리는 것. 이것이 유도의 통쾌함이다. 1960년 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182개국이 국제유도연맹에 가입해있다. 그만큼 널리 행해지는 종목이다.

북한 선수나 북한 팀이 일본선수나 일본 팀에 이긴 적은 여러 번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북한의 계순희가 일본의 유도스타 다무라 료코를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꺾었던 그 경기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국내 방송사가 앞 다투어 계순희 선수의 결승 경기 장면을 되풀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에서 점차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던 북한이 애틀랜타 올림

픽에서 금메달을 땀다는 것도 큰 사건이지만 유도 종주국인 일본의 유도스타를 무명의 북한 소녀가 제압했다는 사실에 세상이 놀랐던 것이다. 당시 다무라 료코선수는 84전 연승 행진을 하고 있었고 계순희 선수는 방년 17세의 무명 선수였다.

1996년 애틀랜타 이후 소녀선수 계순희는 이제 서른을 앞둔 나이가 되었다. 그녀가 정말 우수한 것은 어린 선수이던 48kg급에서 세계 최고임을 입증한 이후 2001년 독일 뮌헨 세계유도선수권대회 5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57kg급 체급경기로 옮긴 이후 2003년, 2005년, 2007년 내리 3번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점이다. 체급경기인 유도에서 3개 체급을 석권하고 57kg 체급에서 6년간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세계유도연맹은 2003년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계순희 선수에게 '베스트플레이어상'을 수상하였다. 땀과 훈련으로 스스로를 단련한 선수에게 대회조직위원회의 감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순희 선수는 모란봉청소년체육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탁되었다. 북한의 영자지 평양타임지는 계순희 선수를 북한을 빛낸 '별 중의 별'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그녀는 만 29세가 되었다. 26세 되던 해에 유도 감독이던 김철 감독과 결혼했다. 인민체육인인 계순희 선수가 북한 인민의 여망인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북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2. 엘리트선수들의 구원 투수, 체육과학원 체육의학연구소

스포츠 역시 과학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점을 내기 위해 타자를 삼진 아웃시켜야하는 투수가 야구공 커브의 과학적 속성을 이해한다면 결정적 순간에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선수는 고기를 먹어야할지, 탄수화물만 먹어야할지 조언을 받고자한다. 시합 당일 극한의 신체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신체의 매커니즘을 잘 아는 스포츠과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훈련방법, 운동 부상에서 재활하는 방법, 피로를 막아주는 신발의 개량 등에는 스포츠과학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해지고 있고 스포츠과학은 더 중요해졌다.

북한에는 어떤 스포츠과학이 있을까? 북한은 스포츠란 용어를 쓰지 않고 체육과학이란 용어를 쓴다. 북한에서 선수의 경기력을 지원하는 스포츠과학의 거점은 체육과학원이다. 북한체육과학원은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과학기술국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체육과학기관은 5개 하위 기관으로-체육과학연구소, 운동의학연구소, 약물연구소, 스포츠정보센터, 체육용기구연구소-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종사 인력은 50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소는 국제대회 전략종목인 유도·레슬링·권투·사격·역도·탁구·축구 등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연구원 대부분은 경기인 출신이라는 점이 남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평양시 평천 구역에 있는 체육과학 연구기지에 위치해 있는 체육과학연구소는 체육과학 발전 계획을 세우고 농구, 축구, 마라톤 등 권장 종목과 국제대회에서 승산이 있는 종목의 기술발전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체육과학 교류 사업도 한다.

체육의학연구소는 대체로 스포츠과학에서 자연과학 분야인 운동영양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과 스포츠의학 영역의 연구가 이뤄지는 곳이다. 체육종목의학연구실, 운동기능진단연구실, 체육인치료예방연구실이 그것이다.

체육종목의학연구실은 축구, 마라톤, 복싱, 유도, 수영, 역도 등 종목 특성에 맞는 과학적 지

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의 패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수에게 필요한 인지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운동을 위한 각근력과 근지구력은 어느 정도로 발달시켜야할 지를 연구한다면 그 연구는 축구라는 종목의 연구가 될 것이다. 역도를 예로 들자면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인 북한의 역도선수가 더 많은 중량의 바벨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방법이 도움이 될지를 연구하거나 그 선수가 들고 있는 바벨을 잡고 들어 올리는 부분 동작을 분석해서 문제되는 동작을 교정해주는 운동 역학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운동기능진단실은 선수 개개인의 운동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측정평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또한 선수의 운동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곳이자 스포츠영재를 평가하는 곳도 운동기능진단실일 것이다.

체육인치료예방연구실은 운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사전에 예방시킬 방안을 만들고 부상선수를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곳이다.

이렇듯 북한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정신력만이 아닌 과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3. 남한의 연고전과 북한의 김일성대학대 김책대학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2003년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렸고 90년대 말 무주에서 동계유니시아드가 개최된 바 있다. 대학생과 스포츠 활동은 썩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정직, 우정과 우애, 페어플레이, 인내심, 협동심, 근면한 정신의 함양은 유니버시아드가 내건 가치이기도 하다.

대학 간 경기는 대학생의 체육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지성, 덕성과 함께 건전한 육체 단련을 통해서 미래세계 주역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연고전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간 운동경기 대회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대교경기라서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5년부터 북한의 2대 명문 대학이라 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간의 대교 경기를 연례행사로 갖기로 했다. 2005년 2월 1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대회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려 초만원이었다고 한다. 경기종목은 농구대회, 배구대회와 줄다리기, 장기와 윗놀이 경합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다. 종목으로 미루어 전문 엘리트선수가 겨루는 경기는 아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간 대교경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열리고 정례화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고전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 대회기간 동안 양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이 대회에 참가하고 응원을 하는 내내 일심단결, 결사옹위, 총폭탄 등 구호가 외쳐졌다고 한다. 북한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명문 대학생에게 기대하는 가치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4. 세계를 평정한 북한 여자권투

2005년 4월 중국 선양에서 김광옥선수와 류명옥선수가 밴텀급과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벨트

를 매며 링을 도는 순간 북한 여자 권투가 전성기를 맞았다는 말이 많았다. 2005년 6월 평양의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세계권투평의회(WBCF) 챔피언전에서 3개 체급에서 북한 여자권투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다. 함흥철도국체육선수단의 선수인 최은순, 상업성체육단의 류명옥선수, 중앙체육학원의 김광옥 선수가 각각 라이트플라이급, 밴텀급, 슈퍼플라이급에서 챔피언이 되었다.

류명옥선수는 IFBA와 WBCF 챔피언을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녀는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으며 ‘프로 권투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다. 2005년 국제여자복서협회(IFBA) 밴텀급 챔피언 김광옥의 챔피언벨트는 미국의 테리쿠루즈라는 선수에게 갔다가 한국의 김은영선수에게 왔고 2008년 봄에는 일본 아리마 마나미선수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자권투는 여전히 강하다. 2005년 국제여자복서협회나 세계권투평의회 선수권에서 북한 권투가 선전을 보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북한 여자권투는 제1회 아시아여자권투선수권대회 단체 1위 및 2회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종합우승 전적을 갖는 등 수 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여자 복싱은 아직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프로복싱에서 여자복싱 경기대회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정부가 여자권투 선수를 육성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자권투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데는 두 가지 동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육경기대회에 여자권투선수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실제로 199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자권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청소년체육학교 육성 종목으로 여자 권투종목이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 전국체육경기대회에서 여자권투 종목이 들어갔다. 또한 프로스포츠로서 여자복싱을 바라보고 복싱을 통해서 경제수익을 기대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권투는 관습적으로 여자들에게 여전히 금기시된 종목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여자 복서들은 부모의 반대 속에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25. 북한의 체육지도위원회와 올림픽위원회

북한의 국가 체육지도위원회는 처음에는 남한의 대한체육회처럼 정부기구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조선체육회와 별도로 북한에는 북조선체육동맹이 생겼다. 북조선체육동맹은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 체육부 산하의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름을 북조선체육위원회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북조선체육위원회는 산하조직 결성에 나서 도급, 시급, 군급의 조직을 확대하고 공장이나 직장에 하부 조직을 만들면서 1947년 말 산하에 4,141개의 하부조직과 16만9400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체육회, 체육연맹 혹은 체육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축구·배구·농구 등 각종 종목의 대회를 주관하고 선수를 선발하며 경기규칙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고 있고 각 종목의 조직을 하나로 묶는 조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대한체육회가 그 역할을 하며 독일은 독일올림픽체육회, 호주는 호주체육회 등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정부조직인지, 완전히 민간단체인지에서 차이가 있다. 체육회조직은 그 밑에 경기종목단체(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와 같이 북조선축구협회 등)를 거느리게 된다. 북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국가수준의 체육조직은 여러 종목을 망라하여 대회를 관장하고 종목보급을 하는 외에도 종목별 선수의 발굴과 양성(북한식 표현으로 스포츠 ‘선수 등급 소유자’ 육성), 그리고 스포츠교수 및 훈련의 선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

다.

1989년 북한의 중앙행정조직에는 국가체육위원회라는 비상설 기구가 있고, 여기서 국가대표를 파견할 것인지 체육관을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사항을 다룬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당시에 조선훈예지도위원회는 각 종목경기단체의 통합기구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이 내각의 조직인 국가체육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1989년 김정일의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 따르면 조선훈예지도위원회가 기존의 국가체육위원회의 의사결정 역할까지 장악하고 권한을 더 갖게 되며 이름도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할 것이 나와 있다. 이는 곧 국가체육위원회가 각 종목별협회나 체육단체를 국가기구로 연결시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83년 당시 체육지도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면서 경기단체를 감독, 지도하는 4국과 1 연구소, 1 간부양성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내각의 한 부처가 되면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밑에는 행정조직인 12개의 국(局)과 30개의 경기종목협회가 들어있다.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의 명칭을 보면 재정국, 계획국, 대외사업국, 후비양성국, 군중체육국, 기술지원국, 지방지도국, 교육국 등이다. 여기서 후비양성국은 엘리트선수를 선발하고 육성시키는 것을 전담하는 것이며 군중체육국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의 북한 경기종목협회로는 축구연맹, 권투협회, 농구협회, 럭비협회, 레슬링협회, 배구협회, 사격협회, 수영협회, 피겨스케이팅협회, 스키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역기협회, 요트협회, 유술협회, 육상협회, 빙상협회, 자동차협회, 자전차협회, 정구협회, 체조협회, 카누협회, 태권도협회, 펜싱협회, 탁구협회, 낙하산체육협회, 궁술협회, 야구협회, 골프협회가 있다.

내각의 체육지도위원회는 1997년 내각 체육성으로 개칭하여 체육성이 된 적도 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체육지도위원회란 명칭을 쓰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올림픽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체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각 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과 같은 급으로 올림픽위원장을 임명한다. 때로는 내각 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이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을 겸직하기도 한다. 북한의 올림픽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에 북한선수단을 파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26. 체육소조와 청소년체육학교

우수선수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우수선수가 될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훈련을 잘 시키고 대회를 내보내면서 선수를 키워내는 엘리트선수의 발굴 육성제도를 대체로 다 갖고 있다.

북한에서도 국가대표나 유년 체육단에 뽑히려는 청소년들은 북한식 선수육성제도에서 키워진다. 그 육성제도의 두 줄기가 체육소조와 청소년체육학교라고 볼 수 있다.

체육소조는 학교 외에도 공장이나 농촌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학교소조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학교에 있는 체육소조는 학교마다 체육에 취미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을 학교 체육교사가 지도하는 과외체육 단위이다. 체육소조 말고도 음악소조나 미술소조, 과학소조도 있다고 한다. 학교의 체육소조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멀리 퍼져있다. 고등중학교에는 아주 시골만 아니면 거의 다 소조가 있는데 전문화 체육소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체육교사가 있고 운동장이나 체육실이 있는 학교에는 모두 2-3개가 종목별 소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대체로 인민학교(초등학교)나 고등중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5년제 학교)에서 체육교사는 학교당 최소 2-3명이 있고 이 선생님들이 체육소조를 책임지고 운영한다.

체육소조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 수는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기 종목은 30-40명 정도이고 체조나 육상, 역기 등 개인 종목은 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 체육소조 시간은 하루 2-3시간으로 보이며 1주일에 6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할 때는 흔히 체육소조라고 하고 게임을 할 때는 '전문화 경기를 한다'라고 했다. 학교의 체육소조에서 연습을 해서 시군 대표를 가리는 대회에 나가고 다시 시군대표가 되면 다른 시군의 체육소조를 대표해서 나오는 선수나 팀과 경쟁을 해서 이기면 도 대표가 되는 것이다. 다시 각 도의 대표가 된 팀과 선수가 모여서 전국체육소조운동경기대회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승한 선수는 체육관계자의 관심이 된다. 보다 실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체육대학에 들어가거나 체육단에 입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체육소조는 이러한 경기대회 운영체제와 맞물려서 숨어있는 우수한 체육영재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체육소조는 선수선발 이외에 학교 수업으로는 할 수 없는 운동 기능을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소조로 활동하지만 선수로 뽑히는 학생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 외 체육 소조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운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므로 생활체육의 밑거름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상업적으로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운동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탁구나 농구를 배우려면 체육교사가 방과 후에 운영하는 체육소조에 들어가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체육학교는 체육소조보다 수준이 높은 학생운동부 썸 된다. 처음에는 청소년체육학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체육구락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각 시군구에 하나씩 있고 시군단 위에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체육지도원이 상주하면서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별도로 소집하여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운동부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계순희 선수가 모란봉청소년체육학교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평양의 모란봉 구역에 있는 청소년체육학교가 모란봉청소년체육학교인 셈이다. 북한전역의 청소년체육학교에는 각각의 여건에 맞춰서 종목이 선정되며,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를 가리키는 곳이 제일 많다고 한다. 이외에도 핸드볼(북한식으로는 송구)·배구·탁구·육상 등 각 시군의 체육시설 여건이나 해당 체육지도원(코치)이 지도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종목의 종류가 결정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 우수 성적을 기대하는 종목으로 수중발레가 있다. 그런데 수중발레를 훈련시키려면 수영장이 있어야하므로 이런 종목의 경우는 시설인 창광원수영장에 청소년체육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아마 창광원청소년체육학교는 다른 종목이 아닌 수영이나 수중발레 등 수영장시설을 활용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의 수는 5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하다. 경성군이나 선봉군 체육구락부에는 축구, 여자 소프트볼, 여자 축구, 배구, 권투로 7개 종목의 팀이 있었다고 한다. 경성군의 체육구락부에서 운동을 했던 학생은 100명 정도이다. 각 청소년체육학교가 위치한 시군 중에서도 도시지역이어서 인구가 많고 체육시설 여건도 좋으며 체육지도원수도 많이 둘 수 있으면 당연히 구락부에서 운동하는 선수 수는 2-3배 이상 커질 것이다.

어쨌든 별도의 체육계열 고등중학교가 없는 북한에서 청소년체육학교는 북한의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북한 엘리트선수의 산실이라고 할 것이다.

27. 국가종합체육단(국가대표팀)

2008년 3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 체육단 축구선수 중 60%가 세대교체가 되어 북한 축구선수가 아주 젊어졌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런데 북한 기사를 보다 보면 압록강팀,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식으로 이름이 붙은 체육단도 있다.

북한은 체육단이란 말과 선수단이란 말을 같이 쓴다. 이런 체육단은 1급 선수단, 2급 선수단, 3급 선수단으로 구분된다.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1급 선수(체육)단은 수십 개, 2급 선수(체육)단이 수백 개, 3급 선수(체육)단(각 공장, 기업소, 기관에 조직된 선수단)이 수백 개라고 한다. 여기서 1급은 일정 규모나 조직 역량을 기준으로 북한이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1급 체육단은 종목수, 선수수(600명 이상) 및 경기력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체육단이다. 2급은 이보다 낮고 3급은 더욱 낮은 선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2·3급보다는 중앙체육단, 도(직할시)체육선수단, 겸직체육선수단이란 구분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중앙체육단은 모두 1급 체육단이며 도(직할시)체육단은 일부만 1급 체육단이고 나머지는 2급 체육단이라고 한다. 중앙체육단은 대부분 남한의 실업팀처럼 특정 정부기관(철도부, 경공업성 등)이 선수단을 운영하고 4.25체육단의 경우는 군(軍)이 운영한다.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등 20여 개의 체육선수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에서 내노라하는 중앙체육단은 다음과 같다. 4.25체육단은 인민무력부가 운영하는 체육단이고 압록강체육단은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안전부의 지원을 받는 체육단이다. 기관차체육단은 북한 철도청에 소속된 체육단이다. 이들 3개 체육단은 1급 체육단이기 때문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는다. 이외에 유명한 중앙단위 체육단으로는 봉화산 체육단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북한 수뇌의 경호실 소속 체육단인 리명수체육단, 북한의 육군사단이 운영하는 매봉산체육단, 월비산체육단, 오성산체육단, 반룡산체육단이 있고 공군이 운영하는 제비체육단이나 해군이 운영하는 갈매기체육단이 있다.

도(직할시)체육단은 2급 체육단이다. 그 규모는 함경북도가 1,000명 선이다. 평양시체육단 규모는 이보다 컸다고 하나,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직할시)체육단에는 각도와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운영을 보장하는 평양시체육단·자강도체육단·개성시체육단·평북체육단·평남체육단·함북체육단·함남체육단·강원도체육단 등이 있다.

도체육단이나 중앙체육단은 선수들을 입촌시켜 잠자고 먹고 훈련을 시키는 입촌형 시설을 운영하며, 중앙체육단의 경우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실업팀 선수처럼 급여를 받는다. 선발된 선수 모두에게 선수 등급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불한다. 겸직체육단은 1977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3급수준 체육단이다. 도종합체육단과 겸직체육단의 실력 차이는 큰 것으로 보인다. 겸직선수단은 큰 공장에 주로 설치되어있다. 함경북도의 경우 약 10개 정도의 겸직체육단이 있었다고 한다. 겸직체육단은 말은 겸직이지만 전문선수 중 일부를 지원하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겸직선수들은 구락부나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실력이 비교적 낮은 선수들 즉 전문체육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급여 낮은 각종 도 및 중앙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소 혼동되지만 국가종합체육단은 국가대표팀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대

표팀 선수는 소속이 프로팀에 있거나 시청팀으로 되어 있다가 올림픽대회나 아시안게임을 할 때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대회에 나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기관차체육단에 소속된 선수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가종합체육단이 구성되면 국가종합체육단 선수가 되어 대회에 나가는 식이다. 즉 국가종합체육단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체육단이 아니고 각 소속체육단에서 활동하다가 특정 시기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만들어진 체육단인 셈이다.

한편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 단위로 선수를 모아서 교육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선체육대학과 중앙체육학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학생체육단은 각각 조선체육대학체육단, 중앙체육학원체육단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미술

이 구 열

(한국근대미술 연구소 소장 / 미술 평론가)

1. 북한 미술 50년의 특징

북한의 사회주의와 주체주의 미술의 특징은 과거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유럽의 그 위성국들, 그리고 이웃의 중국 공산당이 다같이 혁명적 문예정책으로 삼으려고 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지금도 교조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실태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다만 1955년에 ‘사상사업에서의 주체성’을 주창하며 비롯된 ‘김일성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발전하며 모든 분야가 ‘주체’를 앞세우게 된 가운데 ‘주체미술’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모든 미술가가 그 주체주의를 창작의 핵심으로 삼게 하였다. 그것이 북한의 ‘우리식’ 미술의 대외적 특징이다. 1990년대부터는 또 주체주의와 사실주의의 합성어로 ‘주체사실주의’라는 말을 만들어 쓰며 ‘김정일 동지’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의 교시’와 ‘김정일 동지의 지침’은 당 정책에 앞서는 절대적 요구이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미술창작에 요구한 1966년의 ‘수령의 교시’에 이런 기본적 지침이 들어 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한다.”

1994년의 수령 사망과 함께 북한의 정치권력을 계승한 김정일의 미술 관계 지침은 종래의 수령의 주체미술 지침에 자신의 ‘주체사실주의론’을 접목한 것이었다.

“혁명적 문학예술의 사회주의적 내용은 바로 주체사실주의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데 대한 기본원칙(김일성 교시)을 내세움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이 주체사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정일 미술론』에서)

앞서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의 미술은 ‘민족적 특색의 조선화’ 중심으로 ‘우리식 미술’을 발전시키려고 한 특징을 보여왔다. 가령 그림은 모든 인민대중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현실감의 사실주의 기법과 밝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그려졌고, 인민의 낙원으로서의 인물 묘사는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표정으로 그리게 했다. 곧 그런 의도적 주체성과 표현방법으로 인민성·당성 및 혁명성을 구현시키려고 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의 새롭고 자유로운 방법의 현대미술을 모두 ‘부패한 자본주의 나

라들의 부르주아 형식주의 미술’로 비판하며 북한에의 파급을 철저히 배격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2. 북한의 산업미술

『김정일 미술론』(1992)에는 ‘산업미술은 쓸모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항목에서 이렇게 산업미술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다.

“산업미술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 입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미술에서 기본은 공업미술이다. 여러 가지 기계제품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도안을 잘 만드는 것은 제품생산을 늘이고 생산문화를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상미술과 상업미술 등에 대한 언급도 있다. 특히 상업미술에서는 포장과 상표 도안을 잘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언급은 자유세계 시장경제 상품에서의 디자인 경쟁 및 판매 승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는 제품 생산을 전제로 하는 산업미술의 범위를 크게 형태미술, 공예미술, 장식미술, 산업출판미술로 분류하며 당의 산업정책과 지도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북한 나름의 다양한 창작을 추구하고 있다. 그 창작도안의 경쟁은 국가미술전람회 출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의 우수한 도안과 디자인 아이디어는 실용화와 상품화로 이어진다.

『조선미술사2』에서는 1960-80년대 ‘산업미술’의 성과를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고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 시기의 우수 산업미술 작품들을 열거하고 있다.

중공업 제품 형태도안

〈5000톤 급 냉동운반선 형태도안〉(김창민, 1968), 〈대형 여객자동차 형태도안〉(장영환, 1971), 〈‘자주호’ 자동차 형태도안〉(리상원, 1977), 〈‘갱생 78’ 광산용 전차 형태도안〉(리영길, 1978)

경공업 제품 형태도안

〈‘만경대’ 소형만능 재봉기 형태도안〉(리상호, 1970), 〈대형탐시계 형태도안〉(한정숙, 1971), 〈여자용 들가방 형태도안〉(리원희, 1978)

방직미술 도안

〈방직도안〉(리장엽, 1968), 〈목도리감 도안〉(김린세, 1971), 〈다색 단이불감 도안〉(김진경, 1975),

상표도안

〈10가지 이름난 술병 상표도안〉(임승태·김봉일, 1971), 〈물고기가공품 상표도안〉(김정식, 1977), 〈포도술 상표·포장지도안〉(리성국, 1977)

그밖에 국제친선전람관의 외부장식과 만경대예술극장의 내부장식 등 기념비적 건축장식미술에서도 새로운 발전이 많았다고 『조선미술사』는 서술하고 있다.

3. 북한의 미술 용어와 풀이

북한의 미술용어에는 남한에 없는 만든 말이 꽤 많다. 같이 쓰는 말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와 주체적 입장에서 풀이한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모던 아트

: 반동적인 부르주아 형식주의 조형예술 사조의 하나.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아무런 진실성도 없는 추상적인 수법들로 예술 형식 자체를 기형화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흐리게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인화

: 목화를 기본으로 하여 봉건 사대부들이 그린 형식주의적인 동양화의 한 종류. 봉건 양반들이나 선비들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채색화를 반대하며 ‘붓과 묵(먹)의 유희’로 즐긴 산수화나 매화·난초·국화·대나무 그림을 말한다.

보석화

: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보석같은 천연 돌들을 가루로 만들어 색상 재료로 삼은 그림. 북한에서 1988년에 개발한 미술형식이며, 개발자인 화가 신봉화는 그 공로로 1990년에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산수화

: 산과 물·나무 등 자연풍경을 그린 조선화와 동양화의 역사적 조류의 하나. 지난날의 산수화 가운데는 문인·양반들의 현실 도피적인 생활태도를 반영한 그림이 적지 않다. 오늘에 와서는 풍경화의 개념에 포함된다.

인상주의

: 반동적인 부르주아 퇴폐주의 문학예술 사조의 하나. 형식주의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창작 경향. 입체주의·미래주의 등 각종 퇴폐주의 사조와 유파를 산생시키는 뿌리가 되었다.

입체주의

: 부르주아 형식주의 미술사조의 하나. 부르주아 문화의 전반적인 반동화와 퇴폐화의 산물로 1910년대에 프랑스에서 생겨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조선화

: 오랜 세월을 두고 조선 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영하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 재능에 의하여 발전된 전통적인 민족회화. 화법은 선명하고 간결하며,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날 양반 문인화가들은 수묵화를 즐기고 전통적인 채색화를 천시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조선화의 결함이었다.

집체작

: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 집체적 지혜에 의지하면 인민들을 혁명 사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작품을 더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

추상주의

: 현대 부르주아 형식주의 미술 사조의 하나. 사실주의적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무엇을 묘사하고 조형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피상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는 반동적인 미술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 그것은 예술의 '조계급성'과 '세계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4. 월북 미술가의 활동

1945년 8·15 광복과 민족해방은 이내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분단으로 이어져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체제로, 그리고 북쪽은 혁명적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했다. 그 대립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동족상잔의 6·25전쟁 때 정치적 신념으로 또는 피치 못할 개인적 처지에서 월남 혹은 월북하게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미술가들도 그 일면이었다. 그들은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다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미술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중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의 잔재를 비판받으며 위치가 약화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전까지 그들은 모두 당의 문예정책에 충실하려 했고, 특정한 주제작품으로 김일성 수령과 당에 충성을 나타내려고도 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월북 미술가의 작품실태이다.

1) 조선화가

정중여(1914~1984)

-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 칭호. 조선미술가동맹 부위원장 역임
- 주요작품: 〈2차로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1951), 〈5월의 농촌〉(1956), 〈고성 인민들의 전선원호〉(1958)

리석호(1904~1971)

- 평양미술대학 조선화과 교원 역임
- 주요작품: 〈영웅한 고사포병대〉(1951), 〈중국인민지원군을 맞이하는 농민〉(1952), 〈소나무〉(1966)

김용준(1904~1967)

-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 강좌장 역임
- 주요작품: 〈침략자의 만행〉(1951), 〈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는 인민들〉(1956), 〈춤〉(1957),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963)

2) 유화가

김주경(1902~1981)

- 평양미술대학 교장 역임
- 주요작품: 〈적과 싸우는 고사포 용사들〉(1951), 〈삼지연의 봄〉(1962), 〈청년공원〉(1965)

길진섭(1907~197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1948) 대의원, 평양미술학교 교원, 조선미술가동맹 부위원장 역임
- 주요작품: 〈또다시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955), 〈종달새가 운다〉(1957),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1961, 제자들과 합작)

정현웅(1911~1976)

- 국립미술제작소 회화부장, 조선미술가동맹 출판화분과 위원장 역임
- 주요작품: 〈이순신 장군 한산도 해전〉(1955), 〈누구 키가 더 큰가?〉(1963, 수채화), 〈3·1운동을 목격하시는 김일성 원수님〉(1968, 조선화)

리쾌대(1913~1969)

- 건설성미술제작소, 조선미술가동맹 평양시와 자강도위원회에서 활동
- 주요작품: 〈대대장고지 방어 전투〉(1955), 〈농악〉(1957), 〈중국인민지원군 우의탑 벽화〉(1958, 같은 월북화가 김진항과 합작), 〈방목〉(1961)

최재덕(1915~?)

- 주요작품: 〈군대를 원호하는 인민들〉(1953), 〈용해공〉(1958), 〈사과 따는 처녀〉(1961)

쫄김만형(1916~1984)

- 중앙미술제작소 부장, 조선미술가동맹 평양북도위원장 역임
- 주요작품: 〈전선에서 온 전투영웅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952), 〈첫물을 붓는 사람들〉(1957),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1962)

3) 조각가

조규봉(1917~1997)

-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장 역임

- 주요작품: 〈수확의 기쁨〉(1952), 〈김일성 원수 반신상〉(1954, 같은 월북조각가 리국전과 합작), 〈남녘 땅의 어머니〉(1961)

김정수(1917~1997)

- 평양미술대학 교원 역임
- 주요작품: 〈탄부〉(1947), 〈혁명투사 마동희 동지〉(1965), 〈전선을 시찰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1967)

리국전(1915~?)

- 교통성미술제작소 제작부장, 평야미술대학 교원 역임
- 주요작품 〈여성 복구대〉(1953), 〈농민〉(1956), 〈주물공〉(1961)

5. 선전화 : 정치선전과 대중선동

북한에서 ‘선전화’ 곧 ‘포스터’는 판화·수채화·단색화(연필화·펜화·콘테화)·삽화 등과 더불어 ‘출판화’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선전화(1970년대 후반부터 쓴 ‘포스터’의 대체용어)는 어느 조형예술보다도 대중성을 강하게 띠는 미술로서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적 선전과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미술사2』(199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는 1950-60년대의 ‘출판화’ 항목에서 이미 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 정치선전화(포스터)는 우선 혁명발전의 매시기 제기한 우리 당의 전투적 구호를 기동성 있게 작품에 발취하여 근로자들을 당 정책 관철에 힘있게 불려 일으켰다.”

그 시기의 대표적인 선전화는 1958년 9월에 전체 당원들에게 제시한 전투적 구호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모두 다 천리마를 타고 과감히 진군하자!’를 주제 삼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곽홍모, 1958)를 비롯하여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을 전 군중적으로!〉(류환기, 1959),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안창수·박상락, 1962),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의 손발을 얹어매자!〉(박래천, 1968) 등이었다. 1970년대 이후 ‘선전화 창작사업’은 더욱 중요시되어 당 정책의 주제내용이 무수히 그려졌다. 대규모의 전국선전화 전람회도 해마다 열렸다.

그 중 다음과 같은 작품들은 대량 인쇄되어 북한 전역의 도시와 농촌 및 공장·기업소에 내붙여져 정치적 선전과 선동의 큰 성과를 올리게 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만세!〉(김수남, 1971),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김창성, 1976),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윤기택 외, 1977), 〈당은 부른다! 모두 다 충성의 돌격전, 결사전으로!〉(류환기, 1978), 〈신념은 철쇄를 끊는다!〉(리선영, 1981), 〈30만 정보의 날바다를 벼바다로!〉(박래천, 1982). 한편 『김정일 미술론』(1992)의 ‘출판미술은 위력한 선전선동 수단이다’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화의 위력을 역설하고 있다.

“선전화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 선전화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동성 있게 창작하여야 인민들이 당의

정책과 방침을 제때에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도록 할 수 있다.”

6. 유화·조각·판화

북한은 민족적인 ‘조선화’를 모든 미술의 중심으로 가장 존중하고 있으나 서양에서 들어와 정착된 유화도 당 정책에 맞게 요구하며 존중하고 있다. 역시 서양미술에서 배운 사실주의 조각과 여러 기법의 판화도 주체미술 내지 주체사실주의에 충실하는 조건에서 모두 발전하게 하고 있다. 곧 유화·조각 등도 모두 조선화의 민족적 특성을 본받은 ‘우리식’으로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유화에서는 유채의 질감과 색상 및 사실적 선명성이 조선화에 못지 않은 부드러운 ‘조선화식 유화’를 지향하게 하였다.

『김정일 미술론』(1992, 조선로동당출판사)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미술을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킨다고 하여 유화를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화는 서양화로서의 공통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일련의 특징이 있다. …유화를 우리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미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나 유화와 조각에서 철저하게 배격되고 있는 것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대적 추상주의와 자유로운 표현주의의 수용 또는 추종이다. 1966년에 이미 김일성 교시로 그 문제가 명확히 경고되었다.

“지금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그림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도 무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추상화’가 판을 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 조류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담화문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그 투쟁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현재도 북한에서는 ‘추상화’를 비롯한 서방식의 현대적 미술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주체미술 총서’ 『주체미술건설』(김교련, 1995)의 「반동적 미술조류와의 투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김정일 동지의 지적’이 제시돼 있다.

“우리는 창작 실천에서 형식주의적 경향(추상화 등 =필자 주)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그 자그마한 표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말고 투쟁을 벌려야 한다.”

7. 조선화 - 주체미술의 기본

북한의 ‘조선화’는 남한의 전통적 ‘한국화’와 본질적으로 같은 뜻이다. 그러나 선명한 묘사적 사실주의 채색화 수법의 ‘조선화’가 북한에서는 ‘모든 주체미술의 중심이자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비중은 역시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다. 1966년의 김일성 담화문 “우리

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에서 이렇게 교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훌륭한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의 교시가 나온 후로 조선화가들의 활동은 다른 어느 미술분야보다도 최대의 존중을 받게 되었고, 1970년대 ‘주체미술의 대전성기’에는 조선화가 중심을 이루게 하였다. 수령과 당의 특별한 찬미를 받게 된 조선화가들이 어떠한 주제도 대대적으로 그려나갔던 것이다. 그런 추세에 따라 그간의 유화가가 조선화로 전향하거나 유화와 조선화 창작을 병행하려고 한 사례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수령의 형상, 사회주의 혁명투쟁 및 새 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6·25전쟁), 공화국 영웅 부각 및 사회주의 지상낙원 찬미 등의 주제들이 극적이고 선동적인 구도와 내용구성으로 전개된 조선화 작품들이 무수히 그려져 나왔다. 정확한 묘사력과 선명한 색채표현 기법 등도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낙동강 할아버지〉(리창, 1966), 〈남강마을의 여성들〉(김의관, 1966), 〈용해공〉(최계근, 1968)을 비롯하여 〈내금강의 아침〉(문화춘, 1970), 〈강선의 저녁노을〉(정영만, 1973),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리상문·김정태, 1975), 〈산전막에 남긴 사랑〉(김상직, 1977),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시옵니까?〉(신영기, 1978), 〈백두의 영장 김일성 장군〉(박창섭, 1980) 등이 그 시기의 조선화 명작으로 선전되고 있다.

주체미술 창달을 일찍부터 직접 지도했다는 김정일 현 국방위원장도 1992년에 간행된 『김정일 미술론』에서 ‘조선화는 우리의 회화이다’라고 강조하며 다각도로 그 특징을 설파하고 있다. 또 김교련의 『주체미술건설』(1995)에는 다음과 같은 김정일 동지의 지적이 인용되고 있다.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야 민족적 특성이 뚜렷한 우리식의 미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미술창작에서 인민의 생활 감정과 미적 지향을 잘 반영할 수 있다.”

8. 기념비 미술

석상·동상·탑 등의 기념적 조각상과 구조적 조형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다. 조각상일 때는 ‘기념비 조각’이라고 한다.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미술용어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조선 사회주의 혁명 및 건설의 업적을 극대화시켜 전체 인민이 최대의 우러러보게 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각 형상과 기념비가 평양과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무수히 창작되었다. 수령 형상 중심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 조각상은 모두 북한 최고의 조각가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칭호에 오른 작가들이 이끈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의 집체작으로 제작되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북한 최대 규모의 기념비 미술 작품은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져 있는 높이 20미터의 황금빛 〈김일성 동상〉과 그 뒤의 조선혁명박물관 정면의 거대한 벽화 〈백두산〉, 그리고 동상 앞쪽 좌우 양편의 거대한 두 깃발탑-〈항일혁명투쟁탑〉(오른쪽)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탑〉의 부주제 조각군상으로 구성되는 〈만수대 대기념비〉이다. 1972년에 김일성 탄생 60돌을 기념하여 건립한 것이다.

또 다른 대규모 기념비미술로는 1975년에 세워진 〈왕재산 대기념비〉와 1979년에 세워진 〈삼지연 대기념비〉 등이 있다. 모두 김일성의 항일전적지를 기념화 한 것으로 수령의 동상이 중심부를 이루며 부주제로 혁명군과 지원군 남녀 군상이 곁들여진다.

‘조선의 위용을 시위하는 기념탑’으로 말해지는 것들도 많다. 〈무산지구전투 승리기념탑〉(1971), 〈포평 혁명사적탑〉(1976), 김일성 수령 탄생 70돌 기념 〈주체사상탑〉(1982) 등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조각사2』(1991, 조선미술출판사)에는 ‘만년대계의 우리식 능(陵) 및 문(門) 기념비’로 〈대성산 혁명열사릉〉(1985), 김일성 수령 탄생 70돌 기념비 〈개선문〉(1982), 〈서해갑문 기념비〉(1986)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앞의 책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기념비의 건립’ 항목에 〈보천보 전투 승리기념탑〉(1967)과 ‘항일혁명투사들과 공화국 영웅들의 조각상’이 언급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가정을 형상한 조각상’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직한 혁명가들의 전형을 형상한 동상’ 등도 ‘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 조각의 창조’ 항목에 넣어 열거하고 있다.

9. 사회주의 건설 주제 작품

1966년의 김일성의 담화문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에 이런 교시가 담겨 있다.

“미술가들은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교시 이후 화가와 조각가들은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가장 중요한 당과 인민의 요구 주제로 삼은 작품을 경쟁적으로 창작하게 되었다.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각종 미술전람회에서 그러한 작품들이 수상을 하거나 크게 각광을 받았다.

‘사회주의 건설 주제’ 작품은 곧 ‘사회주의 낙원의 실현’을 표현내용으로 삼게 한 것이다. 그것을 북한에서는 폭넓게 ‘사회주의 현실 주제’ 또는 ‘사회주의 건설 투쟁 주제’라고도 말한다. 그 주제의 그림이나 조각들에서는 건설현장의 남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모든 인민 계층이 하나 같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는 표정과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작품 사례는 명제만을 통해서도 능히 그 표현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조선화

〈간석지 개간〉(리률선, 1961), 〈용해공(제철소의)〉(최계근, 1968), 〈강선의 저녁 노을〉(정영만, 1973), 〈방목지에서 돌아오다〉(리종천, 1975), 〈몸소 창광거리(평양)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리틀선 외 합작, 1980. 김정일 지도자 형상)

유화

〈새 교실〉(홍호렬, 1954), 〈전쟁이 끝난 강선(제철소) 땅에서〉(길진섭 외 합작, 1961), 〈수도 복구 건설장〉(문학수 외 합작, 1968), 〈전후 40일만에 첫 췌물을 뽑는 강철 전사들〉(박문협, 1971), 〈고추 풍작〉(김철수, 1980), 〈김일성경기장 건설장〉(박효성, 1993)

판화

〈풍어의 달밤〉(박영주, 1965), 〈눈꽃 핀 전야에서〉(김육룡, 1971)

조각

〈천리마작업반장〉(송영백, 1959), 〈흥년을 모르는 세상〉(전종각, 1961), 〈여성 선장〉(윤춘희, 1961), 〈출강 후〉(김휘조, 1963), 〈충성의 철길 위에서〉(리승남, 1977), 〈복구 건설의 나날〉(강정치, 1985)

10. 수령과 지도자 형상 작품

1995년에 북한에서 간행된 『주체미술건설』(주체미술총서 1, 김교련)의 제2장 주체미술의 사회주의적 내용의 제2절은 ‘수령 형상은 주체미술 내용의 핵’으로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김정일 동지의 지적’을 인용한 서술을 하고 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것은 사회주의 미술의 내용에서 핵을 이루고 있다.”

“미술작품에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활동과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는 것은 혁명적 예술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북한의 주체미술 정책과 김정일의 지도를 대변하는 저자는 그의 서술로 ‘수령 형상의 목적과 의미 및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미술작품에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충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자는 데 있다.”

“수령 형상 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영상을 작품의 중심에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다.”

“수령 형상 작품을 창작할 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자료에서 불충분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미술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의 그러한 수령 형상 창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1951년에 그려

진 〈농민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1951, 정종여)을 비롯하여 〈수령님 교시 받들고 지상낙원 이루세〉(1960, 황영준), 〈뱃머리에 오신 아버지 수령님〉(1963, 정창모), 〈노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사랑〉(1980, 합작) 등의 조선화와 〈우등불(화롯불) 곁에서 대원들을 교양하시는 김일성 동지〉(1955, 최연해, 1967년 개작), 〈농민들의 마당질을 도우시는 김일성 대원수님〉(1967, 합작),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1982, 정관철) 등의 유화, 그리고 조각의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1967, 합작), 〈만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1978, 합작) 등이다.

주제가 말해주는 수령의 그 온갖 면모의 표현은 『주체미술 건설』의 저자 김교련이 말한 대로 거의가 ‘환상(=상상)과 허구(=꾸밈)’로 창작된 것들이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의 형상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창작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형상작품의 혁명적 내지 정치적 기능과 효용성이 절대적으로 계속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대표적인 미술작품

북한의 문예작품 평가기준은 사회주의적이며 주체적인 사실주의 방법에 철저하면서 내용적으로 혁명성,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이 얼마나 확실하게 내포되었는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술은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미술서적과 화집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에 소개되는 국가적 평가의 대표적 작품들은 모두 철저하게 그러한 기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세계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판단의 시각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1990년에 간행된 『조선미술사2』(1945~)에 수록된 약 2백 점 이상의 회화·조각·공예·자수·산업미술 및 건축물은 사회주의 체제 이후의 대표적인 미술작품의 전모를 엿보게 한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조선화, 유화, 조각 작품이다.

조선화

〈5월의 농촌〉, 1956, 정종여 / 〈춤〉, 1957, 김용준 / 〈고성 인민들의 전선 원호〉, 1958, 정종여 / 〈재봉대원들〉, 1961, 조귀화 / 〈대동교 복구〉, 1965, 한명렬 / 〈소나무〉, 1966, 리석호 / 〈낙동강 할아버지〉, 1966, 리창 / 〈북만의 봄〉, 1966, 정창모 / 〈남강마을의 여성들〉, 1966, 김의관 / 〈강철의 전사들〉, 1966, 최계근 / 〈내금강의 아침〉, 1970, 문화춘 / 〈강선의 저녁노을〉, 1973, 정영만 / 〈해군 지휘성원에 작전임무를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님〉, 1974, 로선주 /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1975, 리상문·김정태 합작 / 〈산전막에 남긴 사랑〉, 1977, 김상직 / 〈재진격하는 부대들의 환호에 보답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1978, 정영만 / 〈지난날의 용해공들〉, 1980, 김성민

유화

〈보천보의 횃불〉, 1948, 정관철 / 〈조옥희 영웅〉, 1952, 문학수 / 〈영웅 고향에 돌아오다〉, 1955, 장성민 / 〈해방 전 이야기〉, 1957, 김석룡 /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

1961, 길진섭 외 합작 / 〈농촌의 저녁 길〉, 1965, 허영 /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1968, 박진영 / 〈고난의 행군〉, 1969, 문학수·홍성철·김영구 합작 / 〈이 철길은 이어져야 한다〉, 1975, 황태년 /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지옵니까〉, 1978, 신영기

조각

〈어머니〉, 1959, 조규봉 / 〈천리마 작업반장〉, 1959, 송영백 / 〈천리마 동상〉, 1961,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집체창작 / 〈과거의 어린 탄부〉, 1966, 로준기 / 〈유격대의 누나〉, 1968, 김익성 / 〈만수대의 김일성 수령 동상과 대기념비 군상〉, 1972,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집체창작 / 〈왕재산대기념비 군상〉, 1975,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집체창작 / 〈삼지연대기념비 군상〉, 1979,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집체창작 / 〈생명수〉, 1980, 신학선

앞의 미술가들은 제시한 바와 같은 평가작품을 잇따라 내놓은 후 거의가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 칭호의 위치에 올랐다. 특정지역에 세워진 기념비 미술을 제외하고 국가미술전람회 등에서 수상했거나 특별히 평가된 작품은 모두 국가 소유가 되었고,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 현대미술실에서 상설전시가 된다.

12.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의 교시, 그리고 당의 문예정책을 충실히 따른 내용의 창작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예술인에게 국가적 최고 영예의 국기훈장 제1급인 ‘인민예술가’ 칭호와 그 다음 급수인 ‘공훈예술가’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시행된 ‘공훈예술가’ 칭호는 1952년 6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그것은 당시 소련의 선행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그 자격을 북한의 1972년 판 『문학예술사전』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수여되는 국가 영예칭호의 하나인 ‘공훈예술가’ 칭호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노동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훈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을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회화·조각·작곡·공예 등 예술부문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된다.”

미술가로서는 조각가 문석오(1904~1973)가 〈김일성 장군 입상〉(1947), 〈쇠사슬은 끊어졌다〉(1955), 〈14세 시의 김일성 원수〉(1955) 등을 창작한 공로로 첫 번째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공훈예술가’ 칭호 이상으로 더욱 공헌이 큼을 뜻하는 ‘인민예술가’ 칭호는 1961년 7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다. 『문학예술사전』은 그 기본 자격을 ‘공훈예술가’와 동일하게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오늘 그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육친적인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 혁명적인 예술작품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

맨 먼저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미술가는 〈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횃불〉(1948, 김일성의 항일투쟁 주제), 〈월가의 고용병〉(1952, 미군 비방 주제), 〈강철을 만드는 사람들〉(1957) 등을 제작한 유화가 정관철(1916~1983)이었다. 현재까지 ‘인민예술가’ 칭호에 오른 미술가(사망자 포함)는 조선화가·유화가·조각가·공예가에 걸쳐 약 50내지 60명 정도, ‘공훈예술가’는 그 3배 정도로 확인된다.

13. 집체작

문학과 예술 전반에서 중요한 성격이나 그러한 주제의 작품을 여러 작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의 성과를 최대 높였다는 작품을 말한다. 미술에서는 정치적 또는 혁명적인 주제의 대작 그림이나 벽화, 그리고 조각 군상이 결집여지는 거대한 기념비 미술 등의 작품행위를 말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은 그 뜻을 ‘여러 사람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김일성 교시와 결부시키고 있다.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혼자서 애를 써서 안 되는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사람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집단으로 하면 일이 더 흥겹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집체작의 공동 작가들은 그들이 참가한 집단의 이름으로만 말해지고 또한 그렇게 홍보된다.

“미술인들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게 창작되어 인민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화·노동계급화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는 대표적 집체작인 눈부신 금빛의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수대 대기념비〉를 비롯하여 〈왕재산 대기념비〉, 〈삼지연 대기념비〉,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등은 모두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작가들의 집체작이다.

그림에서는 거작 유화 〈천리마동상 초안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961) 등이 조선미술가동맹 집체작이며, 평양 지하철역의 대대적인 벽화 〈낙원의 보통강〉(1978) 등은 모두 만수대창작사 벽화창작단의 집체작들이다. 그런가 하면 걸작 금속공예 작품으로 미술서적에 소개돼 있는 〈백두밀영〉은 조선인민군창작사 공예가들의 집체작이라고 한다.

14. 만수대창작사

북한의 미술가들은 중앙(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시와 도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미술작품제작소인 ‘미술창작사’에 소속되어 당 정책에 따른 과제와 자발적인 사상 예술적

작품을 충실하게 제작하면서 일정 급수의 작가생활을 보장받는다. 그 모든 미술창작사는 당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지도부의 관할 아래에 운영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각급 미술창작사 중에서 가장 국가적 비중이 큰 최대 규모의 조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미술창작기지’로 불린다. 그 외에 평양에는 당 중앙미술지도국 직속의 중앙미술창작사,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소속 경공업미술창작사, 사회안전부미술창작사, 무대미술창작사, 별도의 평양시미술창작사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군부 안에 조선인민군미술창작사까지도 있다.

그 모든 창작사 미술가들의 사상예술적 또는 혁명적 내용의 작품은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미술전람회에 경쟁적으로 출품되어 심사과정을 거쳐서 전시된 뒤에 크게 평가되었거나 특별히 골라진 작품들은 당과 국가 및 정부 기관, 그 밖의 여러 공공건물에 들어가 걸리거나 영구히 보존된다.

1959년에 평양의 만수대 지역에 최대 규모의 종합미술창작소로 창설된 만수대창작사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주체적 민족회화’로 가장 중요시하는 조선화 제작 전문의 조선화창작단을 비롯하여 만수대 언덕의 거대한 김일성 수령 동상 중심의 〈만수대 대기념비〉와 〈천리마 동상〉·〈주체사상탑〉 등을 전담한 조각창작단, 그밖에 유화창작단, 벽화창작단, 장식도안창작단, 공예창작단, 수예창작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여러 전문 창작단에서는 국가적으로 최고의 미술가 칭호인 인민예술가와 그 차위급의 공훈예술가를 위시한 수백 명의 소속 미술가들이 당에서 준 혁명적 또는 정치적 과제의 대작들을 3~4 명이 합작하거나 더 많은 수의 작가들이 합심 협력하는 이른바 집체작품 창작으로 역량을 발휘하며 경쟁하게 된다.

그 동안 조선화창작단에서는 정영만, 리창, 최계근, 김성민 등이, 유화창작단에서는 최하택, 조각창작단에서는 리명준, 그리고 장식도안창작단에서는 주수용 등이 주도적으로 활약하였다. 모두 인민예술가급이다. 이들은 물론, 모든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은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는 더없이 숭고한 사업(미술 창작)에 이바지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부터 이미 김정일이 ‘당 중앙’의 위치에서 철저하고 깊이 있게 지도하였다고 선전되고 있다.

15. 국가미술전람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전이나 단체전 또는 그룹전은 있을 수 없다. 당 정책이 뒷받침하는 최대 규모의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하여 전국선전화전람회, 전국풍경화전람회,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조선인민군미술전람회 등이 모두 국가적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며, 아주 드물게 당이 정치적으로 배려하여 꾸며주는 특정 미술가의 개인전람회를 볼 수 있다.

‘미술전람회’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개념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미술전람회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지금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교시와 당 정책 관철에로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문화정서 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직 진행된다.”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가장 권위 있는 국가미술전람회는 반드시 ‘국가적인 명절 또는 기념일’을 앞세우며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가령 조선로동당 또는 공화국 창건 몇 돌, 김일성·김정일의 탄생 몇 돌(4·15와 2·16 명절), 조선인민군 창건 몇 돌을 경축하는 국가적 축제와 기념으로 꾸며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미술가동맹 회원작가들과 전국의 공장 및 기업소 미술소조원들의 작품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회화(조선화·유화), 조각, 출판화(선전화=포스터·판화 등), 공예, 산업미술, 무대미술, 영화미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최종 심사에서 사상예술성과 표현 기량이 특출하게 평가된 작품에는 금상·은상·동상의 등급으로 국가적 표창이 시행되며, 그 결과는 여러 보도 및 출판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선전된다. 또 평양 전시가 끝나면 전국 주요 도시로 순회전시가 이루어진다.

국가미술전람회의 시초는 1947년에 평양에서 꾸며진 제1회 북조선미술전람회이며, 1949년에 그 제3회전을 가졌고, 1950년대 초기에는 한때 ‘전국미술전람회’로 말하다가 ‘공화국 창건 10돌 경축’을 앞세웠던 1958년에 가서 제5차 ‘국가미술전람회’라는 호칭을 썼다. 1998년에는 ‘공화국 창건 50돌 경축’의 제30차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국보로 지칭되며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공화국 창건 이후의 대표적 미술작품들은 거의 모두 이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하며 크게 평가된 명작들이다.

16. 평양미술대학과 미술가 양성

북한의 미술가 양성은 유일한 4년 과정의 평양미술대학과 1960년대 초기부터 여러 도시에 설립했거나 종래의 전문 특수학교를 개칭한 조형예술학교(고등중학교급)와 고등예술전문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배출된 신진들은 중앙미술기지로 말해지는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 미술창작사 등에 보내져 당의 정책에 따른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평양미술대학 졸업생들은 여러 미술창작사에서 특별히 우대를 받으며 미술가로서의 지위를 빠르게 확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고등중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첫 시험에 탈락하면 재수시험이 허락되지 않고, 2년 이상 공장 또는 기업소 등에서 근로 경력을 쌓거나 3년 이상 군 복무를 한 다음 재질과 혁명사상 등을 검증한 당의 추천에 따라 입학할 수가 있다. 조기 전문교육을 받은 미술학도가 특별 추천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평양미술대학은 1947년 9월에 창립됐던 평양미술전문학교가 1949년에 대학으로 승격한 것이다. 그 초대 교장과 학장은 1946년에 서울에서 월북한 유화가 김주경이 1958년까지 계속 역임하였다. 전공학부는 현재 조선화학부(조선화과·서예과), 회화학부(유화과·벽화과), 조각학부, 공예학부, 산업미술학부, 출판화학부로 분류돼 있고, 고등중학생급의 조기 전문교육과정으로 전문부가 병설돼 있다. 그리고 2년제의 연구원(석사 과정)과 3년제의 박사원(박사 과정) 외에 주체미술연구소도 개설하고 있다. 교원(교수) 체계는 학장·부학장·학부장·강좌장·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교원 기량 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유화가 최원수 등이 학장을 지냈다.

“사회주의 민족미술 건설에 미술대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평양미

술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방침은 역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 인재 양성”에 맞추어져 있다. 김일성과 후계자 김정일도 평양미술학교의 인재 양성을 중요시하며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대작 기록화로 그린 작품이 1997년에 간행된 ‘평양미술대학 창립 50돌 기념 화첩’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에 소개돼 있다.

17. 조선미술가동맹

북한의 유일한 전국적인 미술가단체인 조선미술가동맹은 1961년에 재편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약칭 문예총)의 산하조직으로서 중앙위원회와 시·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위원회는 조선화·유화·조각·공예·무대미술·산업미술·평론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연히 당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다. 조직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당의 문학예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문예총은 결성된 첫날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들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 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작가·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노동계급화 하는 사업을 적극 벌이는 한편, 당 문예정책 관철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훌륭하게 반영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 이바지하고 있다.”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조선미술가동맹 회원 미술가들의 작품 활동과 지향 및 추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당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작품 형태와 내용은 이렇게 설명돼 있다.

“(미술을 포함한 모든) 문학예술 부문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 있다”(1970년,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

1953년에 조선미술가동맹이 새로이 조직될 때부터 중앙위원장은 1948년에 김일성 항일투쟁의 기록화 <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횃불>을 그린 유화가이며 인민예술가였던 정관철이었다. 그는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위원장직을 30년이나 연임하였고, 부위원장은 6·25 전쟁 때 월북한 조선화가로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던 정종여가 1964년부터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20년 연임하였다. 그 뒤로는 후진 세대로 인민예술가 위치에 오른 조선화가 정영만과 최계근에 이어서 만수대창작사 유화창작단 단장을 지낸 인민예술가 최하택이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김정일 미술론』과 주체의 미학관

1992년 6월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총 183쪽 분량의 국판 크기 단행본으로 『김정일 미술론』을 간행하면서 김정일의 ‘주체미술 지도논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당이 위촉한 주체미술 이론가가 정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책의 맨 앞에 ‘머리말’처럼 쓴 부분에는 미술의 기본적인 기능 언급에 이어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주체미술’의 개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의 영도 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 미술을 창조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우리식 미술이론’이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의 제1장 인간과 미술에서는 이른바 ‘주체의 미학관’이 이렇게 표명돼 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참된 모습이며, 거창하게 변모되어 가는 조국의 자연이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이다.”

제3장 종류와 형태의 ‘조선화는 우리의 회화이다’ 항목에서는 조선화의 민족적 전통과 주체적인 발전 추구의 절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미술 창작에서 조선화를 기본으로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각은 기념비 미술의 기본 형식이다’의 항목에서는 기념비 미술의 본질을 “수령의 위대성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조형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한 〈만수대 대기념비〉이다. 제4장 미술가와 창작에서는 “미술가는 정치사상적 준비 정도가 높아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당의 정책을 깊이 알고 현실을 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말미의 결론적인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다.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은 사회주의 미술의 생명이다. (그러한 사회주의 미술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미술과 질적으로 구별되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

19. 김일성의 미술 관계 교시와 주체주의

북한에서 주체미술의 논리를 낳게 한 주체사상의 발단은 1955년의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역설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사상’으로 불리기도 한 그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독자적 지도이념으로 발전하며 모든 분야가 ‘주체’를 앞세우게 하였다. 그것은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모든 교시는 당의 지도방향으로 직결되었다.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의 미술’을 요구한 1966년의 교시에 앞서 1964년에 교시된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의 지침도 그렇게 실행되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문예작품과 혁명투쟁에 관한 문예작품의 창작 비율을 5대 5로 제기한다. 그리고 혁명투쟁에 관한 것은 북조선의 것을 4, 남조선의 것을 1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김일성 교시는 미술 창작에서도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투쟁, 수령의 우상화, 그리고 남한의 공산화 혁명 촉구까지를 혁명적인 본분으로 삼게 하였다. 당이 그 지침을 철저하게 받들어 전국적 조직의 조선미술가동맹 맹원들의 작품활동과 각종 전람회, 평양의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미술창작사, 그리고 평양미술대학의 미술가 양성과 인민군 및 공장·기업체 미술소조 등의 각종 미술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썼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김정일이 그 지도에 적극 앞장서며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를 이룩하였다는 성과의 구체적 실상은 단적으로 이런 내면이었다.

“미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고매한 덕성,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을 반영한 작품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주제의 작품을 창작해 넘으로써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더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조선중앙연감』 1977년 판)

20. 북한의 미술정책 - 주체미술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과 그 일환의 하나인 미술정책은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절대시한 ‘당과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통칭 사회주의 리얼리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민족적 자주성을 앞세운 ‘주체적 문예이론’을 ‘김일성 수령의 독창적 강령이며 지침’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술가들에게 그 지침을 철저히 따르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문예정책이자 미술정책이며, ‘주체미술’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

‘주체미술’의 기본 정신과 태도는 1966년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 때 김일성이 미술가들에게 말한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는 교시의 담화문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이 철저하게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술형식(조선화를 지칭)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미술가들이 형식에서 민족적이고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인 참말로 혁명적인 미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수법에 튼튼히 서서 현실을 진실하게 그리려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성 교시에는 이런 대목도 들어있다.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추상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조류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미술가들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북한의 주체미술 정책은 본질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그 동안의 주체미술 성과가 모두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에 따른 것이었음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체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말을 쓰기도 한다.